www.mpss.go.kr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제 2 권)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발간사



재난과 안전사고, 지금도 뉴스 속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10년 간 차츰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대규모 재난들이 깨우쳐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모두가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요령에 대한 반복 학습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위기 상황에서는 초기 대처능력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내외 안전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분야의 범주화와 생애주기별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영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역량을 재난 · 안전사고 유형별 맞춤형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는 생애주기 안전교육지도를 반영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개 대분류에 따라 구성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인지,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사고예방 및 상황대처와 타인을 위한 교육 · 지도 · 구조 실천능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현장의 지도자들이 분야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라나는 세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수집 및 수록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보완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국민안전처 장관 **박 인 용**

Contents

제 1 장 안전과 사고의 이해

1. 안전과 생활 5
2. 사고 예방 12

제 2 장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 생활 안전 27
- 1-1. 시설 안전 28
- 1-2. 화재 안전 72
- 1-3. 전기 · 가스 안전 125
- 1-4. 작업 안전 138
- 1-5. 여가활동 안전 180

2. 교통 안전 229

3. 자연재난 안전 293

4. 사회기반체계 안전 321

5. 범죄 안전 335
- 5-1. 폭력 안전 336
- 5-2. 성폭력 안전 390

6. 보건 안전 453
- 6-1. 식품 안전 454
- 6-2. 중독 안전 466
- 6-3. 감염 안전 472
- 6-4. 응급처치 499

3. 자연재난 안전



3. 자연재난 안전

I. 단원 개관

사회구성원들에게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그냥 운명으로만 받아들였던 여러 재난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특히 자연재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원리를 체득하여 시민의 일원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II. 단원 목표

재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재난 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III.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재난 일반	재난의 개념과 특성 재난 발생 현황 재난 대책과 예방 재난 시 대처 방안	• 재난의 개념과 특성 이해 • 재난 발생 현황 이해 • 재난 대책과 예방 이해 • 함께 해보기 – 재난 시 대처 방안 알아보기 • 정리하기 – 일반재난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의 안전행동이 재난 발생 시 안전 실천 시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재난의 종류를 특성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및 안전수칙 사고례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점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행동을 학습하고, 안전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 재난	기후적 재난 지질적 재난	• 기후적 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 지질적 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 함께 해보기 – 자연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정리하기 – 자연재난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30분		

1. 재난 일반

지도상의 유의점

재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본 단원에서는 재난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의 재난 발생 현황을 통하여 재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구체적인 재난 대책과 예방에 대하여 익힌 이후 재난 시 대처 방안의 원칙을 익히도록 한다.

1) 재난의 개념과 특성

(1) 재난의 이해

① 재난의 개념

재난은 원래 태풍 · 홍수 · 지진과 같이 주로 자연이 주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했다. 그러던 것이 산업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화재 · 붕괴와 같은 사람이 관계된 대형사고 상황을 포함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재해'는 자연재해, '재난'은 사회재난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재난'으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② 재난과 구별할 상황들

재난과 대량 인적 피해 발생과의 차이는 재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재난이 인적 피해 이외 의도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정신적 피해 등을 동반하는 넓은 개념이다.

재난과 사고와의 구별은 재난은 대규모 사태, 지역의 능력만으로 대응이 불가, 의외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사고는 소규모이고 지역의 능력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일상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차이가 있다. 결국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하건 재난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직 · 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사고와 재난

피해규모 및 대응방식에 따라 사고와 재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에 따르면 재난은 사고보다 규모가 크고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간혹, 사고를 잘못 대응하여 재난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표 1〉 사고 · 재난의 구분 및 개념

구 분	피해규모	관리주체	대응방식
사 고	소규모 ↕ 대규모	공공(민간)	기존 관리주체 대응
재 난	소규모 ↕ 대규모	공공(민간)	정부의 대규모 개입(다수부처 공동) 필요

〈표 2〉 시간 진행으로 본 재난과 사고의 관계

시작단계	진행단계	개요	사례예시
재 난	재난	처음부터 재난으로 시작한 상황	태풍, 지진, 핵발전소 폭발
사 고	재난	처음에는 사고로 시작하였으나 대응의 미비 · 미흡으로 진행 중 악화되어 재난으로 확대된 상황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사 고	사고	처음부터 사고로 시작하였으며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거나 다행히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	일반 교통사고, 놀이터 안전사고, 부산 고층주상복합 화재사고

(2) 재난의 분류와 특성

① 재난의 분류

재난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분류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 분류

구분	내용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재난의 규모를 3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한지 여부가 된다.

〈표 4〉 재난의 등급

재난 1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한 규모의 재난
재난 2급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난으로서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되는 재난
재난 3급	재난의 규모가 커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

② 특성 및 추세

재난은 그 규모와 속성 상 해당 지역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적인 대응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재난의 피해는 풍수해가 가장 크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과거에 흔하지 않았던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도 변화무쌍해져 과거보다 예측이 힘들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소지역의 집중적 인명피해로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적 관리가 강조된다. 자연재난도 기상과 지질 활동의 예측과 현대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난 영향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피해감소를 위한 방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③ 재난관리의 단계

흔히 재난의 단계라 하면 단계를 분류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재난관리의 단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예방 및 대비단계는 시간적으로 재난발생 이전에 해당하며, 대응 및 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이후에 해당한다. 예방과 대비의 근본적 차이는 예방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지만, 대비는 현실적으로 예방만으로는 많은 재난의 발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는 활동이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별 활동은 〈표 5〉와 같다.

〈표 5〉 재난관리의 단계와 단계별 활동

단계	단계별 활동
예방단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 관련 법 제정과 정비, 조세유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 관련 법 제정 및 정비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경보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비상자원의 확보
대응단계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난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전염방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이 중 재난의 대응단계는 재난 신고 및 비상소집, 재난진압, 구조 및 처치, 긴급 복구의 3단계를 말한다.

〈표 6〉 재난 대응의 단계

단계	업무	세부업무
1	재난 신고 및 비상소집	(1) 신고접수 및 초기 출동 (2) 재난 확인 및 재난 선포 (3) 비상연락 및 재난본부 소집
2	재난진압, 구조 및 처치	(1) 피해자 색출 및 구조 (2) 중증도 분류 (3)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4) 피해자 이송 (5) 병원에서의 의료 처치
3	긴급 복구	(1) 도로 긴급복구 (2) 전력선 긴급복구 (3) 통신체계 긴급복구 (4) 가스시설 긴급복구 (5)수도시설 긴급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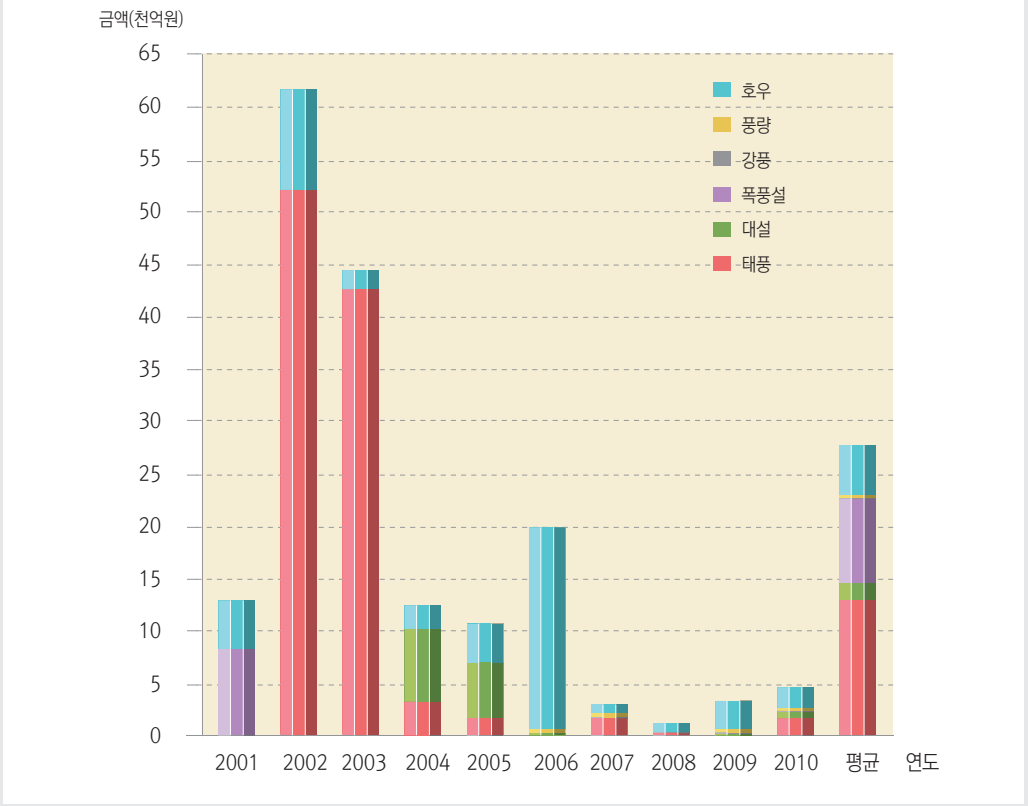
2) 재난발생 현황

(1) 사회 변화와 재난

① 우리 나라의 재난 발생의 변화

우리 나라는 과거 1 · 2차 산업중심의 사회로 대형 구조물이나 교통수단이 많지 않아 자연재해와 화재를 제외한 건물의 붕괴나 가스폭발 등의 도시형 재난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기 이후 대단위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생활환경 또한 고밀도의 도시화와 고도산업사회로 재난환경이 급변하면서부터는 작은 방임이나 실수가 대형 참사를 초래한 경험을 하였다.

②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림 1] 최근 10년 간 자연재난의 원인별 피해액 현황

출처 : 국민안전처

인명피해 측면으로 보면 사회재난이 많으나 그 피해액과 피해를 받은 지역의 넓이로 보면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여전히 강조된다. 자연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재산피해와 사상자 발생 역시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 반면에 사회재난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재산피해와 사상자가 집중하여 발생한다. 또한 자연재난은 대응활동에 한계가 많은 반면에 사회재난은 대응활동과 재난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다.

(2) 재난 환경과 전망

①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

지난 수십 년 간의 불균형, 집중 개발시대의 부실 · 노후 시설물들은 그간의 안전조치 강화와 재개발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안전사고, 가정용 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률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다양한 재난발생 가능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화, 집중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로 재난발생 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 산업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 안전사고, 철도 · 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환경오염사고도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재난 매뉴얼과 관리

(1) 재난 매뉴얼

재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재난 매뉴얼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 각 기관의 의견을 잘 조합하여야 한다.
-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참여자들이 대책을 잘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난 및 재난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 발생 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비상관리'는 재난 및 여타요인에 의해 야기된 일상에서 벌어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관리를 뜻하며, '위기관리'는 주로 국제 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위기의 통제와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의 뜻으로 사용되고, 안전관리는 적게는 사업체, 넓게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지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

자원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나 자원 관리는 주로 장비나 물품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물품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며, 재난물품은 재난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으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것이다. 특히 특수 물품은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상호협조체계를 통해 필요 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재난 시 대처 방안

(1) 재난 대응

① 재난신고와 확인

재난 발생 초기에 적절한 재난신고는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신고 시에 신고접수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표 7〉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A. 재난장소에 관한 정확한 정보
(1) 표식이나 상징물 (예: 기념탑, 건물명 등)
(2) 적절한 지리적 표기
(3) 신고자의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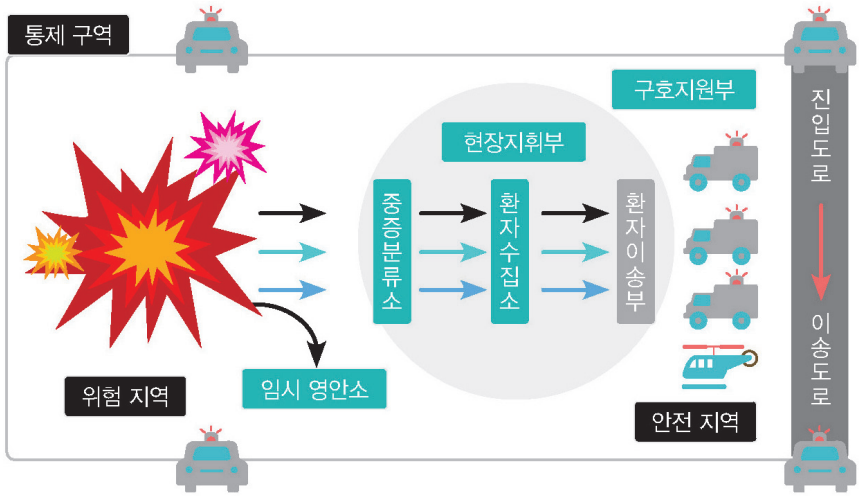
B.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차량의 수와 차량종류
(1) 화물차인 경우에 적재물질 (예: 유류, 폭발물, 유독가스 등)
(2) 사고차량 중에 대형버스도 포함되어 있는가?
(3) 사고차량의 상태 (예: 차량전복, 차량화재 등)

C. 환자수 및 중증환자의 여부

D. 사고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는가?
(1) 화재, 위험물질 누출, 파편 혹은 잔해 등
(2) 사고에 의한 고압전기줄 노출
(3) 차량의 위치가 불안정한가 (예:수중으로 추락, 벼랑에 걸림 등)
(4) 사고현장의 교통상황 (예: 교통의 완전 혹은 부분 마비)

②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재난본부에서 재난의 규모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재난의 등급을 판단하고 현장에 설치할 현장지휘소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림 2] 재난 현장의 모식도(도시의 구조물 붕괴 재난의 예)

(2) 중증도 분류

① 의의

중증도 분류의 정의는 응급처치와 피해자이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심각한 정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의 피해자에게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처치 및 이송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② 방법

중증도 분류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분류색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며 재난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부각되고 있어 분류색은 재난 관련 인력들에게는 일종의 국제 공용어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표 8〉 중증도 분류와 색

분류	분류색	피해자의 중증도
긴급	적색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피해자
응급	황색	수 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피해자
비 응급	녹색	수 시간, 수 일 후에 처치해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피해자
지연	흑색	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

5) 재난관리 환경과 전망

• 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지난 수십 년 간의 불균형, 집중 개발시대의 부실 · 노후 시설물들은 그간의 안전조치강화와 재개발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 안전사고, 가정용 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률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한 재난발생 가능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 집중과 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로 재난발생 시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 산업인구의 증가와 유동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 안전사고, 철도 · 항공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환경오염사고도 광역화될 개연성이 높다.

6) 기후 변화의 영향

•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전지구가 동시에 더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운 지역이 더욱 더워지거나, 추운 지역이 더욱 추워지는 등의 현재의 기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 생태, 환경,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 기후 변화와 물 순환의 영향

기후 변동성은 물 순환 체계에 영향을 미쳐 수자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 변화에 의해 강수량은 증가하고 빈도는 감소할 경우 유역의 증발산량의 증가와 지하수 이용량의 증가로 인해 지하수량과 하천유출량이 감소하고 수질오염이 증가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과 강수의 변화는 유역 변화, 수생태 변화, 수력발전 능력, 용수공급문제, 수질문제, 홍수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우리 나라는 기상학적 변동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후 변화로 증가되는 홍수 및 가뭄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함께해 보기 !

재난의 현황 및 추이

① 일반적인 재난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설명해 보자.

② 재난관리의 단계 및 원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정리하기

일반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재난의 개념 및 구분

- 재난의 개념
- 자연재난
- 사회재난

② 재난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
-

2. 자연재난

지도상의 유의점

자연재난은 우리 나라에서 재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재난은 풍수해 등이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인한 도시화가 맞물려 과거와 다른 인위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은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지진 등 지질재난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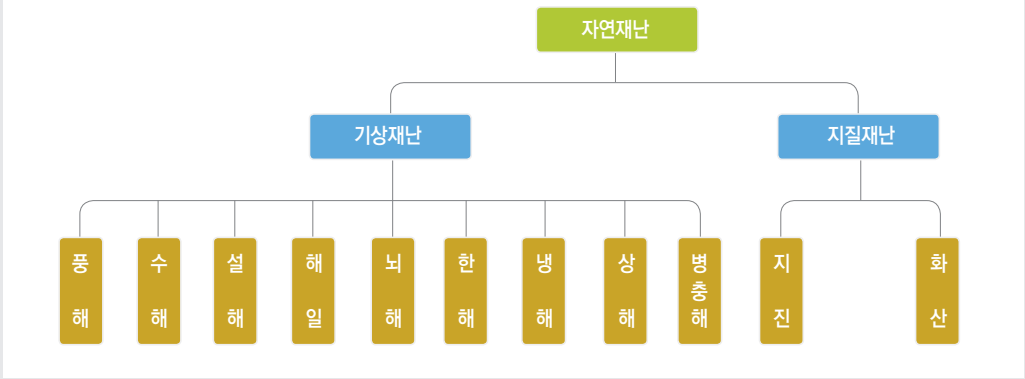
1) 자연재난 일반

우리 나라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는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후, 지형 및 지질 등과 같은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인한 도시화로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택,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산지가 개발되는 등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1) 분류와 개념

자연재난을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난과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난은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난에 해당한다.



[그림 3] 자연재난 분류

(2) 재난피해 현황

우리 나라는 태풍, 호우 등 한 해 평균 10회 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최근 10년 간(2001~2010년) 연평균 인명피해 68명, 재산피해 1조 7,04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사례

2011년 8월에는 서울 중심부에서도 집중 호우에 이은 침수 피해 및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폭우였으며, 짧은 시간 내의 집중 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표 9〉 2010년 발생한 주요한 자연 재난

연도	재난 구분(날짜별)	발생국명	인명피해
2010	지진(1.12)	아이티 프르토프랭스	222,570
	지진(2.27)	칠레	562
	폭풍(2.28), 산사태	프랑스	53
	홍수(4.4)	브라질	256
	홍수(4.6)	콜롬비아	418
	지진(4.14)	중국 청하이성	2,968
	허리케인(애거사, 5.28)	과테말라	174
	홍수(5.29)	중국(남부)	1,691
	태풍(꼰싼, 7.12)	필리핀	146
	홍수(7.28)	파키스탄	1,985
	홍수(10.10)	대만	298
	화산분화, 지진해일(10.27)	인도네시아, 메라피화산	530



[그림 4] 강남역 인근 침수

2) 기상재난

(1) 태풍

① 태풍의 이해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의 서부인 필리핀 동쪽의 넓은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서서히 세력이 증가하면서 이동하다가 동지나해 부근에 이르면 진로를 바꾸어 북북동 혹은 북동쪽으로 대략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태풍은 매년 그 발생 횟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 년에 약 26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 3개 정도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태풍이 건조한 육지로 상륙하면 점차 쇠약해지지만 이때부터 호우와 폭풍이 위력을 떨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 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과 태풍 내습기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때로는 9월에 태풍이 도달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며 6월에도 태풍의 통과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② 태풍 시 대처요령

• 태풍 예보 시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는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한다.



[그림 5] 태풍 시 대처요령

•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 거주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공사장 근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않는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한다. 테이프가 없을 때는 임시로 젖은 신문지로 창을 덮어 두면 유리 조각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 후 접근을 금지시킨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 라디오 · TV ·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둔다.

(2) 호우

① 호우의 이해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집중호우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 장마철의 비는 짧은 시간에 맹렬히 쏟아지는 호우이다. 1일 강수량이 300㎜를 넘는 경우도 많고, 1시간 동안 100㎜를 넘는 집중호우도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호우 등의 이유로 구조물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침수라고 한다.

② 호우 시 대처요령

• 호우주의보 및 경보 시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않는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한다.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봇대나 전선에 접촉하거나 위험, 고압이라는 글귀가 보이는 곳에서 떨어진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
-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라디오 · TV ·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림 6] 호우 시 대처요령

(3) 낙뢰

① 낙뢰의 이해

낙뢰(혹은 번개)는 대기 아래의 온도 차가 커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구름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가 각각 분리, 축적되고 일정치 이상의 전위차가 생기면 두 전하 간의 격렬한 반응으로 순간적인 대 전류가 방전되는 현상이다. 한편 천둥은 구름(양극)과 구름(음극), 구름

(음극)과 지표면(양극) 간의 높은 전위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방전 시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공기 팽창에 의해 나는 소리이다. 벼락에 직접 맞지 않아도 낙뢰가 떨어진 지점 20m 이내의 사람은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뢰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저항이 클수록 피해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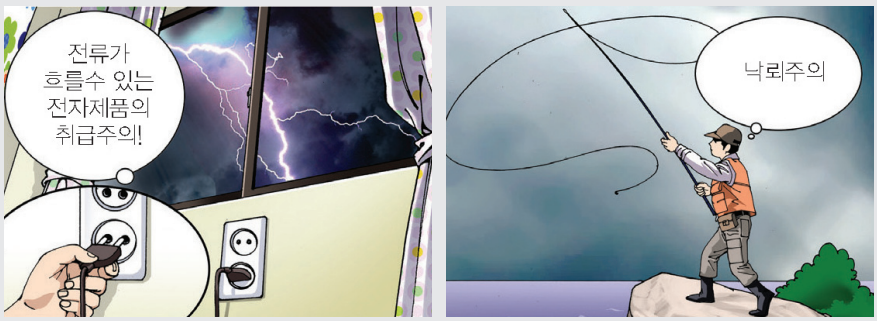
② 낙뢰 시 대처요령

• 가정

- 외출을 자제한다.
-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 제품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잠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는다.

• 야외

-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 키 큰 나무나 전신주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에는 골프채, 농기구, 낚싯대 등을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은다.
-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간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문다.



[그림 7] 낙뢰 시 대처요령

(4) 해일

① 해일의 이해

해일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로서, 해저 지진이나 화산활동에 의해 지층의 수평이동이나 수직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지진해일 혹은 쓰나미)와 태풍과 같이 심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태풍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자연재난 중 지질재난이며 후자는 기후재난으로 해일이라는 모습은 동일하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다. 해일은 만(灣)이나 항구에서 상당한 진동을 발생시켜 해안지역에서의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발생되는 해일의 경우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고 있으나 일본 근해에 해일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② 해일 시 대처요령

• 해일의 대비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듣는다.
- 해안 저지대 주민은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해안에서 진동을 느꼈을 경우나 지진해일 경보를 들었을 경우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 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에 있는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 마실 물,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 등을 준비한다.
- 대피에 대비하여 비상 소지품을 챙겨둔다.
-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둔다.
- 현관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막아둔다.
- 집 주변 하수구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 침수에 대비하여 방이나 거실의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긴다.
- 외출을 하지 않는다.

• 즉시 대피해야 하는 경우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 · 군 · 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한다.
- 지반의 진동이 있을 때 대피한다.

-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한다.

• 미처 대피 못한 경우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 지붕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흰 옷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한다.
-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면 침착하게 문짝이나 스티로폼 상자 등을 이용하여 빠져나온다.

(5) 가뭄 및 폭염

① 가뭄의 이해

우리 나라는 대규모 지하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지하수 개발은 불리하나 비홍수 시 또는 물 부족 시에 중소규모 지하수 개발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 공급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되면 가뭄이 발생한다. 1994년의 경우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용수 공급 및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하천유지 용수의 부족 등으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② 가뭄 및 폭염 시 대처요령

• 가뭄 시 대처요령

- 가정에서는 식기류 세척 · 세수 · 샤워 시 물을 받아 사용한다.
- 가정에서 세탁할 때에는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한다.
- 정원이나 꽃밭에는 한 번 사용한 허드렛물을 재활용한다.
- 개인소유의 우물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 폭염 시 대처요령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한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둔다.
-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 대비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시킨다.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6) 대설

① 대설의 이해

우리 나라의 대설은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호남지방과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상대적으로 서해상 저기압으로부터 남서기류에 의하여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계속 다량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특히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을 넘는 습윤 공기와 동해에 위치한 찬 북동기류가 만나 대설의 원인이 된다.

② 대설 시 대처요령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가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닌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가정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30㎝ 이상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의 눈을 치운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7) 황사

① 황사의 이해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한 황토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와 황토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 또는 내려오는 흙먼지를 말한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강한 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를 거쳐 날아간다. 황사의 크기는 발원지에 따라 크기가 다르나 20㎛보다 큰 입자는 구르거나 부근에 떨어지고, 그 이하는 부유하여 대기권까지 올라간다. 우리 나라에서 관측된 황사의 크기는 1~10㎛ 정도이다.

황사가 발원지로부터 우리 나라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동 고도는 중국 북부 사막지대에서는 3~5일 소요되고 이동 고도는 1~5km, 황토지대에서는 2~4일 소요되고 이동 고도는 1~4km, 만주지대에서는 0.5~3일 소요되고 이동 고도는 1~3km이다.

② 황사 시 대처요령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황사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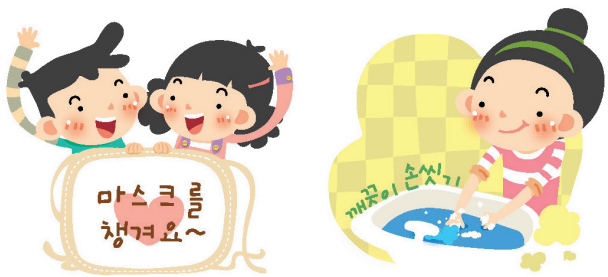
• 가정

-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간다.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한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한다.
- 황사에 노출된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한다.
- 황사가 지난 후에는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황사에 오염된 물품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한다.

• 학교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중지하고 경보 시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
- 실외 활동,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그림 8] 황사 시 대처방안

3) 지질재난

(1) 지진

① 지진의 이해

지진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으로서 급격한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지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지반의 함몰에 의한 함락지진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세기 이후 대형 지진은 없었으나 만약 발생 시 도시의 광역화, 인구의 조밀화, 산업규모의 확대, 지진 대비 구조물의 미흡 등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층 건물이나 핵 발전 설비, 댐 설비 등의 중요구조물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그림 9] 도심에서의 지진

② 지진 시 대처요령

• 지진 발생 중 대처요령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로 대피한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한다.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둔다.
-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건물 · 가로등 · 전선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 번화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가 위험하므로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대피한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고 정전되거나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 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한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그림 10] 지진 시 대처요령

(2) 산사태

① 산사태의 이해

산사태는 다량의 암석이나 쇄설물질, 토사 등 지표상의 지반 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태풍과 장마철에 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산사태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와 경사도가 높은 하천과 계곡의 사면 하부가 침식되는 경우, 그리고 단층과 균열 등이 발달한 파쇄대와 풍화가 심한 지질 상태와 지진의 진동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174명이며, 이 중 산사태 등 급경사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320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망자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② 산사태 시 대처요령

• 산사태 발생 전 대처요령

- 배수시설을 포함한 급경사지를 점검한다.
- 위험 인지 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산사태 징후를 사전에 알아둔다.
- 대피 계획과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산사태 발생 중 대처요령

- 산사태 경로 밖으로 피신한다.
-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인접한 높은 곳으로 피신한다.
- 갑자기 산사태 물질이 접근해 오면 견고한 건물로 피신한다.



[그림 11] 산사태 시 대처요령

출처 : 산림청

함께해보기 !

자연재난

① 자연재난에 대해 설명해 보자.

② 사례를 통하여 자연재난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정리하기 !

자연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자연재난의 개념 및 구분

- 자연재난의 개념
- 기후재난
- 지질재난

② 자연재난의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4. 사회기반체계 안전



4. 사회기반체계 안전

I. 단원 개관

본 장에서는 사회재난의 개념, 특히 사회기반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원리를 체득하여 시민의 일원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II. 단원 목표

재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재난 시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III.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사회재난	사회기반체계안전	• 사회재난 이해 및 대처방안 • 함께 해보기 – 사회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 정리하기 – 사회재난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2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사회재난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사고사례에 따른 대처방안을 점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행동을 학습하고, 안전수칙을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재난이며, 인간의 활동을 안전하게 조정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또한 자연재난

이나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지 않는 등 다양하게 인간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특히 21세기에 들어 그 빈도와 새로운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1) 개념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재난을 말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간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의 사회재난 피해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인명피해	사망	72	102	51	23	65	33	38	59	33	49	53
	부상	261	412	455	299	378	279	243	250	156	167	290
재산피해		16	6	14	44	73	5	12	2	6	40	22

시설물 붕괴, 폭발 및 화재 등으로 3,425명의 인명과 2,2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사망은 53명, 부상 290명, 재산피해는 22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통하여 그 과정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번지, 법조 단지가 앞으로 바라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이 순식간에 지하층 부분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사망 502명, 실종 6명 그리고 93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A동 건물은 백화점의 판매시설이 들어서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사고 시각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는 6.25전쟁 이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중 단일 사고로는 가장 크고, 재산 상의 손실도 막대하였다.



[그림 1] 삼풍백화점 붕괴

붕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건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무단으로 시행한 설계 및 용도 변경으로, 매우 과중한 추가 하중이 부가되었을 뿐 아니라 구조체를 임의로 절단, 파손하여 큰 손상을 가함으로써 구조상 극심한 내력감소를 초래하였다. 시공과정에서는 현장에서의 공사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부실시공을 야기 시킴으로써 붕괴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되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균열이나 처짐 등 붕괴에 선행되는 여러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소홀히 한 것이나, 붕괴 직전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붕괴 이후에도 대량 인명피해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의료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더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던 교훈을 남겼다.

2) 주요 유형

(1) 구조물 붕괴

붕괴사고는 각종 건축물, 교량, 댐 등이 안전점검 미흡, 부실 설계,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깨지는 사고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 있다.

• 붕괴 사고 발생 시 대처

-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본다.
-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하여 이동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림 2] 성수대교 붕괴

(2) 방사능 사고

① 방사능 사고의 이해

방사능 사고는 어느 위험물질에 의한 재난보다 위협적이다. 손상 형태로서 노출, 오염, 침착이 있고, 손상 정도의 결정에는 종류, 노출된 시간, 방사선과의 거리가 영향을 준다.

〈표 2〉 방사능 오염의 형태

구분	내용
노출	방사능 물질이 의복, 신체 일부에 묻는 것을 의미
오염	상처를 통해 흡수 되거나 흡입
침착	방사능 물질의 화학적인 성상과 원자, 갑상선의 조직에 침착

〈표 3〉 방사능 조사의 양과 증상발현 시간 및 종류

1GY의 방사능 -6~12시간, 증상-오심 구토
2-3GY의 방사능-수시간
4GY의 방사능-50% 사망률, 증상-골수기능 저하
10GY의 방사능-사망, 증상-위장관 점막 손상, 위장관 출혈 (위장관 증후군)

방사선 조사는 외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된 양에 따라 증상이 발현되는 시간과 종류가 다르다. 방사능의 영향은 수일 또는 수주일 이후 나타나므로, 방사능 측정, 오염관리, 사고 장소의 정화작업 등이 선행되어 위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흡수 오염을 방지하고,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방사능의 오염 및 침착은 넓은 지역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체르노빌 원자로 누출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표적 문제로서 환경오염이 있으며 이는 방사능이 식량사슬에 오염, 침착되어 이의 대처로서 전문가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림 3]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② 방사능 사고의 대처

• 방사능 누출 시

- 지하실이나 건물의 지하에 대피한다.
-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는다.
- 가옥 내에 대피 시 노란 천을 걸어 가옥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 대피 시에는 전기와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 가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수용한다.
- 자녀가 학교에 있으면 집단으로 옥내 대피 또는 이동시키므로 학교에 찾아가지 않는다.
-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안전 지역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담요, 의복, 구급약품, 유아용품을 지참한다.

• 방사능 낙진 발생 시

- 가능한 한 건물 내에서 생활한다.
- 외출 시에는 우산, 비옷을 휴대하고 눈,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
- 우물이나 장독 뚜껑을 덮는다.
- 옥외에 있던 물이나 식품은 폐기하고 사용 시에는 오염 검사 후 사용한다.
- 음식물을 실내로 옮겨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허용된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하지 않는다.
- 채소, 과일류는 잘 씻어 먹는다.
-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한다.
- 대형 건물에서는 공조 설비를 끄거나 흡입하는 공기를 정화할 방법을 마련한다.

(3) 화학물질 사고

① 화학물질 사고의 이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흔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세계적으로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테러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 냉전 시대에 화학전을 위한 화학물질이 개발, 보관되었으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위험물질들이 남아서 인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액체 화학물질의 경우 낮은 곳으로 흘러

내리는 성질이 있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나, 기체 화학물질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른 확산의 속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고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경우는 밑으로 깔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② 화학물질 사고의 대처

•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대처

- 화학물질 누출을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사고 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건물 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만지지 않는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 안전 지역으로 빠져나갈 경우 전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화학물질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오염이 의심되면 준비된 장비로 몸을 세척하여 오염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상태로 안전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4) 정전

① 정전의 이해

과거 전기 사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전기 소모량도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름과 겨울에 특히 냉난방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냉난방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다.

② 정전 시 대처

• 불시 정전의 사전 대비

- 손전등, 비상 식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한다.
- 전기 기기의 동시 과부하 사용을 자제하고 전용 회로나 전용 콘센트를 마련한다.

- 전기를 사용하는 중요 작업 시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한다.
-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 불시 정전 시 대처

-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이웃과 같이 정전되면 한전에 연락하고 기다리며,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으로 조명이 꺼지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운행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인터폰, 핸드폰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5) 사이버 위기

① 사이버 위기의 이해

사이버 위기는 국가의 주요 기간 전산망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해킹의 형태로 의도적인 전산망에 대한 침투로 나타나거나, 기타 기술적 원인에 의한 전산망 장애로서 생길 수 있다. 사이버 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좁은 개념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목적 없이도 해커들에 의한 자기 과시적 정보보안체계의 붕괴시도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도 사이버 테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갖는 파급효과는 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여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한 공간초월성을 감안할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② 사이버 위기 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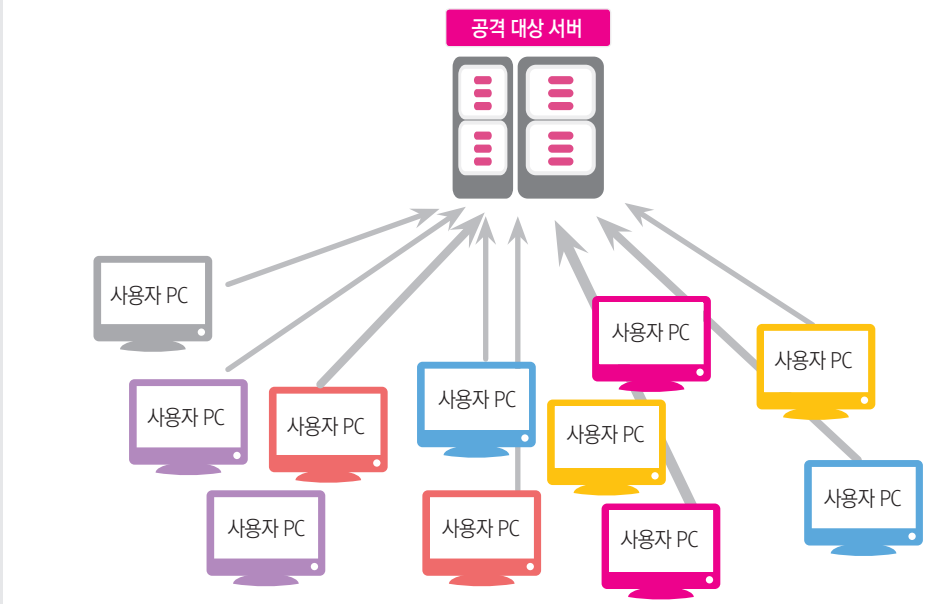
사이버 위기에 대한 개인의 예방 및 대처는 개인과 국가가 같이 대처해야 하며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개인의 대처

- 개인 컴퓨터의 주기적 점검 및 백신 사용을 생활화한다.
-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어렵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한다.

• 국가의 대처

- 사이버 안전대책 수립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
-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
- 정보보호 조직 강화 및 최신 보안장비 도입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관심도 증가
- 홈페이지 보안설계 재검토 및 자체 점검 실시



[그림 4] D DOS 사이버테러

함께해보기 !

사회재난

① 사회재난의 유형별 특성 대하여 생각해 보자.

②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정리하기 !

사회재난 시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사회재난의 개념

- 사회재난

- 사회적 재난

② 사회재난의 대처방법 및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자.

-

-

-

-

생활 속의 재난안전 실천 수칙

1. 재난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분류와 일반적 관리 방안을 이해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는 자연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나 인명피해의 측면에서는 사회재난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방, 대비를 해야 한다.

3. 국내의 자연재난은 풍수해가 중요하나 지진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의 변화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4.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빈번한 사회재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향후 첨단화된 사회변화에 따른 생활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사회재난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에 발생할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문제 1 다음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 중 각각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어디에 속하는지 연결하시오.
(재난의 분류 옆 괄호에 세부 재난 종류의 번호를 기입하시오)

① 태풍	② 방사능 사고	③ 대설	④ 정전	⑤ 산사태
⑥ 감염병	⑦ 구조물 붕괴	⑧ 폭염	⑨ 사이버 위기	

1) 자연재난 ( )
2) 사회재난 ( )

문제 2 호우 시의 대처 중 <u>틀린</u> 내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② 집 안팎의 전기 수리를 해 놓아야 한다.
③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④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⑤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⑥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둔다.
⑦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한다.

문제 3 지진 발생 시의 대처 중 <u>틀린</u> 내용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②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로 대피한다.
③ 문을 닫아둔다.
④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⑤ 번화가에서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대피한다.
⑦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옆에 멈추고 차 안에서 대기한다.
⑧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1층이나 최고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하게 한 후 내려서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 1) 자연재난 (❶, ❸, ❺, ❽)
2) 사회재난 (❷, ❼)

해설 :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회적 재난 중 본문에 설명한 대표적 재난의 예를 열거하면 됨.

문제 2 정답 : ❷, ❹

해설 : 호우 시에는 전기 수리를 하지 않으며,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여야 낙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 3 정답 : ❶, ❸, ❼, ❽

해설 : 진동이 진행될 때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둔다. 이동 중인 차량은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한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한다

참고문헌

- 김경안, 유충. 재난대응론, 도서출판 반, 1998.
- 김태환. 재난관리론, 백산출판사, 2010.
- 백민호. 도시방재론 방재민방위 표준교재,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09.
- 서울시립대학 도시과학연구소. 도시의 안전, 한울아카데미, 1998.
- 조원철 등. 재난관리 및 제도일반, 한국방재협회. 2009.
- David E. Hogan. Disaster Medicine, Lippincott Williams & Wilins, 2002.

참고사이트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
- 미국연방재난관리국(FEMA) http://www.fema.gov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

5. 범죄 안전



5-1. 폭력 안전 / 336

5-2. 성폭력 안전 / 390

5-1. 폭력 안전

Ⅰ. 단원 개관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폭력예방을 위해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익힌다.

Ⅱ. 단원 목표

1. 폭력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나열할 수 있다.
3. 따돌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따돌림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Ⅲ.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폭력과 안전	폭력의 유형 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 폭력의 현황 및 개념을 설명 • 폭력의 유형별 특징을 설명 • 폭력의 예방법과 대처방안설명 • 함께 해보기-폭력 현황 알아보기 • 정리하기-폭력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기	5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폭력에 대해 개념적으로 익히고 폭력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주며, 개인의 폭력 예방이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폭력과 안전	성인의 따돌림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청소년의 자살 예방	• 성인 따돌림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안을 설명 •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안 설명 • 청소년 자살의 징후 및 대처방안 설명	100분	영상물 신문	여기에서 폭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의 양성과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폭력과 안전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의 고도화 등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각종 폭력의 종류별 특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을 지도한다.

1) 폭력의 현황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즉,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까지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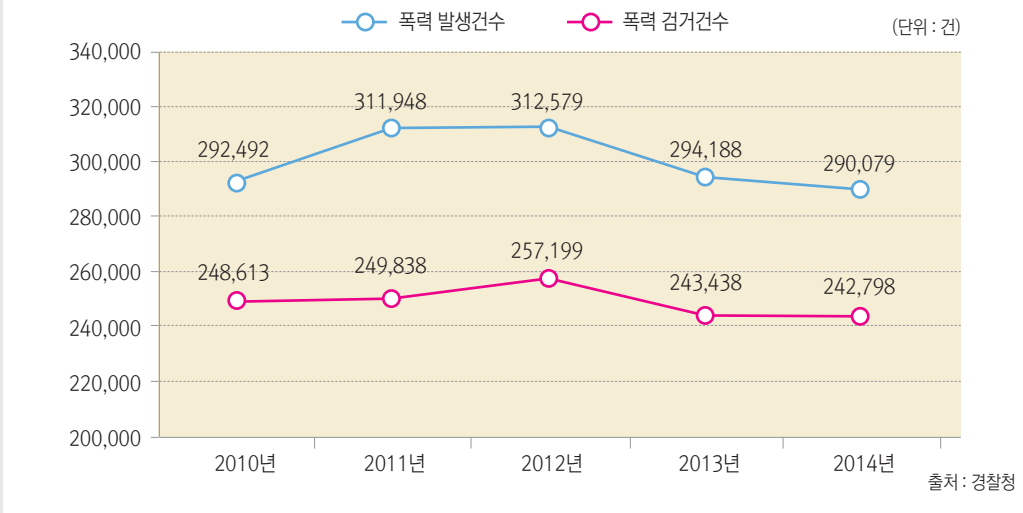
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말은 사람을 비롯하여 각종 생명체나 물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이며 문제시되는 것은 소중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폭력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행동이다.

〈표 1〉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2010년-2014년)

(단위 : 건, 명)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0	292,492	592.0	248,613	390,782
2011	311,948	626.7	249,838	388,094
2012	312,579	625.1	257,199	400,282
2013	294,188	585.8	243,438	369,913
2014	290,079	575.3	242,798	358,275



[그림 1] 폭력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추이(2010년~2014년)

범죄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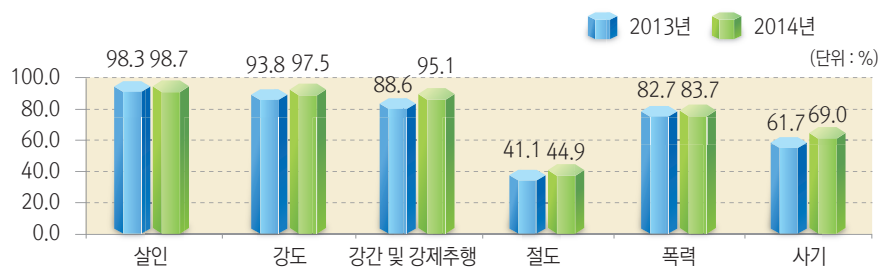
폭력의 현황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4 범죄통계' 에서는 총 범죄 발생건수가 178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8만여 건(4.2%)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발생건수 대비 비율은 '13년 76.5% 에서 '14년 78.3%로 전년 대비 1.8%p 상승하였다.

*지표범죄(6개) : 살인, 강도, 강간 ·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구분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2013년	발생건수	929	1,980	22,310	288,343	294,188	269,082
	검거건수	913	1,857	19,774	118,578	243,438	165,987
2014년	발생건수	913	1,586	21,055	266,222	290,079	238,409
	검거건수	901	1,546	20,031	119,467	242,798	164,594

- 주요 6대범죄 발생건수 역시 총 범죄의 추세와 같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 반면 주요 6대범죄 검거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사기범죄(7.3%p), 성폭력 범죄(6.5%p), 절도(3.8%p) 순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총 290,079건, 인구 100,000명당 575.3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고, 검거건수는 242,798건, 검거인원은 358,275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5년 간 폭력범죄 발생비는 2010년 인구 100,000명당 592.0건에서 2011년 626.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감소하여 2014년 575.3건으로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폭력의 유형

(1) 언어 폭력

글 또는 말과 같은 언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예를 들면, 따돌림, 성희롱 등과 같은 것이다.

(2) 신체적 폭력

구타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즉, 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서 나타난다.

(3) 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은 언어적 · 신체적 폭력에 연관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통해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이다. 따돌림,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유괴 등과 같은 예가 있다.

폭력의 원인

(1) 본능적 생존 욕망의 성취

자신이나 소속된 집단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비롯하여 이웃의 소유물을 강취하거나 목표물을 발견하고 선점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2) 탐욕적 생활

여타 생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하면 그 이상의 탐욕적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모든 사물을 자신이나 소속집단이 소유하여 지배하고자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

(3) 억압과 소외된 삶

인간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불평등 가운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소통이 되지 못하여 빚어지는 불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4) 광적인 호기심

적의로 가득한 인간이 짓궂은 광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선택된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반응을 살피며 즐기는 갖가지 악행들이다.

(5) 물리적인 해결

기대가 불확실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확실히 성사시키기 위해 폭력을 통하여 모든 장애 요소를 단시간에

제거하고 일을 빨리 끝내려는 행위들이다.
범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강력범죄가 예전보다 더욱 잔인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이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강력사건 발생을 부채질하고 그 양상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똑같은 사람이 호황기 땐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댈 수도 있겠지만 불황 속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남의 재산을 탐할 수 있다. 또 극도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잔인해지며 더욱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심리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과격하게 잔인한 행동이 자주 표출된다. 개인적으로 심적 등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건강 또는 학습 등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1)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사항

① 바른 삶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윤리 · 도덕적 가치관을 재확립하여 이기적인 생각이나 탐욕의 생활을 버리고 공생을 위한 바른생활로 바꾸어야 한다.

② 사회구조를 개혁한다. 전통적인 생활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모두 찾아 과감히 개혁하고 다 함께 소통하여 웃고 살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③ 사랑의 정신을 실현한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폭넓은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정신적 ·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기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생활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2) 폭력의 예방

〈표 2〉 가정 및 야외에서의 폭력 예방 방안

가정에서	야외에서
• 혼자 집에 있을 때 현관문과 창문을 잠근다. • 잘 아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 전화 또는 컴퓨터에서 개인적 정보를 주지 않는다.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혼자서 만나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 낯선 사람이 창문 또는 현관문에 접근하여 겁을 준다면, 112에 신고한다. • 집에 올 때, 문에 도달하기 전 미리 열쇠를 준비한다. 하지만 문이 조금 열려져 있거나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들어가지 않는다. •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낯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 밤 늦게 혼자 걸어 다니지 않는다. • 밝지 않은 거리는 피한다. •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상점 또는 다른 공공시설로 들어간다. • 낯선 사람의 차를 타지 않는다.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피한다. • 쉬운 목표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을 가지고 걷는다. • 돈 또는 소유물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준다. • 공격을 받는다면, 비명을 지르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벗어난다.

폭력 예방

폭력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린이나 성인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방의 기본 원칙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피함으로써 폭력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경보를 알리고 자신의 본능을 믿는 것으로 자기 보호 습관을 개발한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미리 계획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폭력의 대처방안

• 범죄가 발생했거나 위험상황이 야기될 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112신고제도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① 112 신고의 장점

- 112 신고는 국번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휴대폰 신고도 지역번호 없이 112로 가능)
- 112 신고는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다.
- 112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신고도 접수하여 성실히 처리한다.
- 112 신고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112 신고 요령

-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하면 즉시 신고한다.
- 신고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으며, 범인의 인상, 휴대품, 특징, 인원수, 도주방향 및 도주 시 이용수단(신고자의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등)을 침착하게 신고한다.
-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112로 한다.

범죄 신고를 112로 하면 신고내용이 컴퓨터에 자동 입력되어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관이 3분 이내에 출동한다.
또한 112신고 접수에서 부터 상황전파, 현장 출동, 도착시간, 조치결과까지도 녹음 또는 컴퓨터에 입력된다.

③ 허위, 장난 전화를 금지한다.

허위 · 장난 · 오인 신고는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2000년 112신고 3,178,190건 중 허위 · 장난 · 오인 신고는 총 288,734건으로 월평균 24,061건, 일일평균 791건이나 되어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 필요한 신고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함께해보기 !

폭력 현황의 특징

① 폭력의 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② 폭력 범죄가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자.

정리하기 !

폭력의 결과를 알아보고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① 폭력의 결과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사회 · 경제적인 피해

② 폭력을 예방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안전 생활 수칙 10가지'를 만들어 보자.

-
-
-
-
-

-
-
-
-
-

이야기해주기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폭력



헐리웃의 지성이라는 죠디 포스터가 나온 〈브레이브 원〉은 폭력 그 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죠디 포스터는 폭력 후의 세계는 고통이고 암흑이라고 이야기 한다. 결혼을 앞둔 연인이 청첩장을 찍고 산책하던 중 정말 지옥과도 같은 집단 폭력에 남자가 목숨을 잃는다. 그 폭력 속에서 간신히 살아난 여자, 죠디 포스터는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한 폭력에 자기만의 항거를 한다.

우연히 시작된 그녀의 행위는 사람을 구하는 행위로, 정당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녀의 복수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이러한 정당한 복수, 사람을 구하는 폭력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어떤 빛깔의 폭력이 되었든 절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 앞에서 혼자다.

〈브레이브 원〉은 보는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 만큼, 폭력이란 어떠한 이유 아래서도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폭력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후유증만 있을 뿐이다.

2. 집단따돌림과 안전

지도상의 유의점

집단 안에 따돌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개인이 속한 집단이 위험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고 능률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장에서는 따돌림 및 자살의 개념, 원인과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지도한다.

1) 성인의 따돌림

(1) 성인의 따돌림 현황

폭력의 한 유형인 따돌림은 자살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을 말하며, 따돌림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사회안전망 부실 등 사회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집단의 다수가 약자에게 분노,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집단에서의 따돌림이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성인의 따돌림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소속감 박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표현도 쉽지 않아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충격이 더욱 크다.

우리 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정신적, 육체적 가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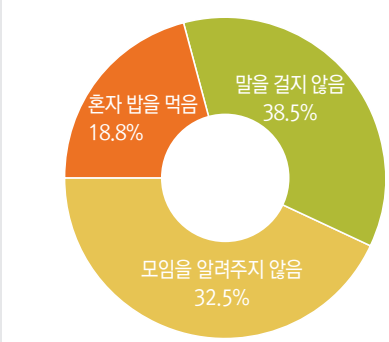
따돌림의 개념

폭력의 한 유형인 따돌림은 자살과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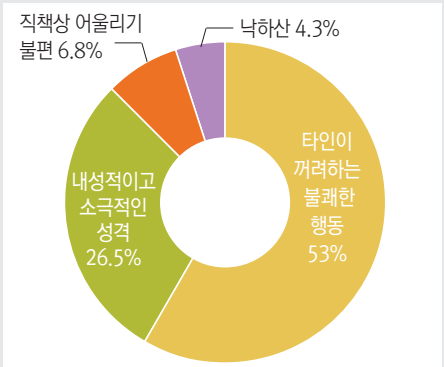
즉,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공동생활 장소 내외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 언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힘으로 나타난다.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은어로 이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병폐적인 문제이다.

성인의 직장 내 따돌림의 현황을 보면, 직장인 426명을 대상으로 '사내 왕따 직장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의 82.4%가 '사내에 왕따 직장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 · 목격하였고 그 가운데 42.3%는 본인이 직접 따돌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2] 왕따의 유형



[그림 3] 왕따의 이유

직장인 대부분은 왕따의 주원인으로 왕따 본인의 문제가 크다(76.9%)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인의 성격 개조 노력(64.1%)을 꼽았다.

따돌림의 현황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38.5%), 은근히 모임을 알려주지 않거나 따돌릴 때(32.5%),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을 때(18.8%) 순으로 왕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왕따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이 꺼려할 만한 불쾌한 행동(53%)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이고 소극 적인 성격(26.5%), 직책 상 어울리기 불편해서(6.8%), 낙하산(인맥이나 혈연 등)으로 채용됐기 때문(4.3%)등의 이유를 들었다.
아무튼 직장인 대부분은 왕따의 주원인으로 왕따 본인의 문제가 크다(76.9%)라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의 성격 개조 노력(64.1%)로 꼽았다.

(2) 따돌림의 유형

① 피해자의 적절한 의사소통의 차단

업무와 관련되어 언어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의사교환을 거부하는 언어적 활동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 관계의 단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에 격리되는 등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다수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기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정보의 근접도 제한된다.

③ 피해자의 개인적 명성에 대한 위해

피해자에 대한 소문, 모욕, 약점(신체적 약점이나 나이 등) 및 종교나 신념 등에 대한 조롱이나 행동방식 또는 말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의 업무적 상황에의 영향

피해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키기, 무의미한 업무를 할당하기, 피해자의 직무를 바꾸기, 고의적으로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기, 공공연하게 업무수행에 대해 창피를 주기, 불가능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마감기한을 줌으로써 극도의 압력을 가하거나 성과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이 결여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

피해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타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직장 내 따돌림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많은 유형의 행동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집단 따돌림의 행동이 항상 신체적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격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미묘한 집단따돌림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보다 비방하는 소문을 내거나, 집단에서 무시해 버리는 등의 심리적인 무시나 배척은 직접적으로 표면화되는 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보다 비폭력적인 집단따돌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따돌림의 특성

① 이미 자아가 형성된 성인이므로 그 고통을 호소할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하다.

② 성인의 따돌림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소속감 박탈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충격이 더욱 크다.

③ 따돌림의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④ 따돌림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 따돌림의 가해자는 일종의 성격장애인 자기애형 성격을 가진다.자신이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서 타인을 희생양 삼아 평가 절하 하는 것이다.
- 따돌림의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바람이 크다. 밝고 똑똑한 편으로 뭐든 열심히 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직장따돌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이용의 목적 때문이다.

항공회사에 다니는 A씨는 명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꼼꼼하게 잘 처리를 했으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동료가 농담을 툭 던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술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는 술에 약한 탓에 아무 말 없이 안주나 식사만 하였다. 동료들은 흥겨운 술자리에서 밥만 먹으며 어울리지를 않으니 불편하고 답답하게만 느꼈다.

맡은 업무는 잘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던 그를 상대로 동료들은 '저 친구 좀 안 보게 해 달라' 고 상사에게 건의를 했으며, 인사이동을 할 때 부서장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 넘기려고 해서 애를 먹곤 했다. 마침내 부서 책임자가 부서이동을 시켰다.

직장 따돌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은 나에게 없으며, 대부분 가해자가 주관적 느낌으로, 또는 남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돌림의 원인

비록 집단따돌림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직장 내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만연되어 있고, 누구든지 심각한 집단따돌림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집단따돌림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미 자아가 형성된 성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그 고통을 호소할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인 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더 심각한 것일 수 있다.

① 성격

전형적인 피해자들은 학생들보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양심적이거나 융통성이 없고, 다소 순진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예민하고, 더 의심을 많이 하며, 화를 잘 낸다.

성인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의 반응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나타낸다.

② 조직 내 개인 간 갈등

직장 내 따돌림은 구성원의 갈등으로부터 기인하여 때로는 매우 빠르게, 때로는 여러 주 혹은 여러 달 후에 나타나게 된다.

③ 심리적 작업환경

개인에 대한 관심의 부족, 직무수행에 있어 불충분한 정보의 흐름, 과업이나 목표에 대한 서로간의 대화의 부족 등의 열악한 심리적 작업환경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④ 조직 분위기

구성원들이 서로의 대화를 경청하는지,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 공공연하게 토론할 수 있는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개인적 차이가 수용되는지 등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근무 환경에 있어 질투와 시기가 존재하는지,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한지, 파벌과 과소평가가 있는지 등이다.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극단적인 직장 내 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다른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원인보다 더욱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피해자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위장장애 및 복통, 불면증, 기억상실, 성기능 저하 등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근심, 우울증, 짜증, 좌절, 스트레스, 저항감, 무기력, 소외감, 자기통제력 약화, 자기존중감 저하, 부정적인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작업동기 상실, 조직에 대한 불신 증가, 이직

의도의 증가, 성과장애 또는 사고장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이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이직은 피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직으로 인해 조직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또 조직 내에서의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동기부여 부족, 직무만족 저하등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결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등을 발생하게 하는 열악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심리사회적 환경은 매년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의 원인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공적 예산과 보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특별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4) 따돌림의 실제

① 표적으로 삼은 이와 인사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② 상대가 말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는다.
③ 일과 관련된 의사전달 시 메모나 메일 등을 써서 표현하고, 항상 상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 한다.
④ 직무상 상대의 책임이 될 만한 실수를 일부러 하기도 하며, 실행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거나 제안을 해 일부러 실수하게끔 유도한다.
⑤ 표적으로 삼은 상대가 직장에서 크게 신뢰를 잃을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⑥ 폭언이나 신체적 ·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주위에서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끈질기게 괴롭힌다.
⑦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사태를 몰아간다.

(5) 따돌림의 대처방안

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과 폭언,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② 직장만 그만두면 해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비참하고 위축된 상태가 되어 퇴사를 결심하기 쉽다. 하지만 평소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최대한 직장 내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③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의사를 표시한다.

부당한 업무박탈, 인사이동,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다.

④ 집단따돌림의 발언이나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 시 녹음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발언과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가해자들은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게 마련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입증자료가 된다.

⑤ 집단따돌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상담한다.

집단따돌림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또한 집단따돌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므로 노동조합 등에 가입해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다.

⑥ 업무를 박탈해도 당당해야 한다.

은근한 압력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종용하다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면 주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업무를 아예 박탈하는 방식으로 왕따를 한다. 업무가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⑦ 직장 밖에서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한다.

평소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최대한 직장 내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⑧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때를 기다린다.

처음에는 원인도 잘 모르고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점차 퇴출 음모라는 것을 파악해도 가해자가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 고통스럽다면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 이유를 묻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⑨ 주위사람들을 설득해 내편으로 만든다.

따돌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시작되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 따돌림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따돌림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왕따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에 대한 오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1350)
-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

(6) 따돌림의 치료방법

① 행동주의 치료기법

상상적 노출과 역할 연습, 모델링 기법, 피드백, 자기 모니터, 과제 제출 등을 사용하는 치료로써 실제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② 인지적 치료기법

자동적인 생각으로 연결되는 핵심 사고를 분석하여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도록 한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여 생리적 불안 현상이 일어남을 알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도록 한다.

③ 자기주장 훈련기법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장기간 필요하다. 자신의 욕구를 알게 하여 싫어하는 것을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④ 대인관계 치료기법

대인관계 패턴분석, 가족관계 패턴분석,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훈련 등을 사용해서 문제의 뿌리가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 시작되었고 그 패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한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패턴을 배우고 실제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게 한다.

따돌림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변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따돌림 시키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성인 왕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 내 따돌림은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 매우 은밀히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형사처벌도 어렵다.

따라서 원인은 다양하지만 청소년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따돌림도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쉬쉬하거나 감추지 말고 용기를 내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사팀에서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곳도 많다. 인사팀이 없는 작은 기업의 경우는 상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든 해결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결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따돌림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형법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힘들다는 게 사실이고 산재로 인정받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 아예 회사를 퇴직했으면 모를까 재직 중이면 회사나 동료를 상대로 법률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보다는 회사 내 상담센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점검 해보기 1

자기애형 성격자 체크테스트

문 항	예	아니오
•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재능이나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멋진 연인과도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		
• 자신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 자신이 독특한 사람이라서 자기처럼 특별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인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주변에서 칭찬하면 무엇보다도 좋아한다.		
•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이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거의 들어주는 편이었다.		
•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잘 설득할 자신도 있다.		
• 항상 자기가 남들보다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 친구나 주변의 행복을 보면 내심 질투한다. 아니면 남들이 자신을 보고 질투할 것이라 생각한다.		
•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건방지고 거만하다.		
평가 : '예'가 5개 이상일 경우 정신과의사 전문상담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출처: 나만 모르는 성격, 오카다 타카시, 유인경 역., 모멘토, 2006.

해설 : 따돌림의 가해자는 일종의 성격장애인 자기애형 성격을 가진다. 자신이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 희생양 삼아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점검 해보기 2

직장 왕따 평가

문 항	예	아니오
1. 직장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동료가 없다.		
2. 지질구레한 일은 내게만 시키는 것 같다.		
3. 일은 시키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4. 회식에 갈 때 나를 빼놓고 간다.		
5. 남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시킨다.		
6. 모여서 얘기하다가도 내가 오면 흩어진다.		
7.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곤 한다.		

문 항	예	아니오
8. 남들 앞에서 공공연히 야단을 친다.		
9.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식적인 술자리가 있었다.		
10. 일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11. 나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한다.		
12. 나보고 왕자병, 공주병 환자라고 한다.		
13. 감원이나 책임을 물을 대상이 될 거라고 수근거린다.		
14.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업무 평점이 나쁠 거라고 소문낸다.		
15. 한직으로 배치된다.		
16. 꼭 혼자서 처리해야 할 일만 시킨다.		
17. 같이 일하게 되면 사무적으로만 대한다.		
18. 내 인사는 받지 않는다.		
19. 남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예를 들면 커피 타주기)에서 나는 제외된다.		
20. 내 기물이나 사물이 없어지거나 손상된다.		
21. 점심을 혼자 먹는다.		
22.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동료가 없다.		
23. 내 자리만 동떨어져 있다.		
24. 사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		

평 가

"예" 0~3개 당신은 보통 직장인

당신의 직장은 보통 수준의 직장이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정도를 왕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왕따라 함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성격을 가진다. 전체에 잘 융합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격과도 관계되지만 어울려 즐거울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보자.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나를 이해시키는 첫 걸음이다.

"예" 4~9개 당신은 다소 냉랭한 직장인

당신은 왕따라고 할 정도의 따돌림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당신은 전체에 잘 융합되어 있지 않다. 물론 소외 ·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주위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예" 10~15개 당신은 잠재적인 왕따

당신은 높은 왕따의 위험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왕따 당할 위험은 더 높다. 능동적으로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본다.

"예" 16~24개 당신은 왕따

당신은 거의 확실히 왕따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패로 몰려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물론 왕따를 할 때는 숨어 있는 가학적인 본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직장이고 매우 덜 성숙한 동료들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다.

해설 : 따돌림의 책임은 나에게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함께해 보기 ! !

따돌림의 사례를 읽고 의견 나누기

다음은 따돌림에 관한 얘기이다. 내용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직장인 A씨(29)는 "지병으로 입사가 늦어 나이 어린 동료들에게 왕따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32)는 "또래집단에만 가면 미운 오리새끼가 된다"면서 "직장 동료들이 나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 입사 4년차인 C씨(32)는 "회사 동료들이 결혼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나를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후배들까지 선배 대우를 하지 않을 때는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왕따 문화는 노인 사이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경로당에서 2,000~3,000원인 월 회비를 내지 못하는 노인의 출입을 금하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노인을 따돌리는 일이 발생한다.

① 따돌림의 가해자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 해 보자.

② 위 사례를 통해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노인 왕따

산업화,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왕따'는 어린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래 집단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한 경우 물리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 왕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경로당이다. 다른 지역의 거주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차별당하기 일쑤다.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전문가들은 뇌 기능의 저하로 억제기능이 상실되면서 머릿속에 숨겨두었던 생각이 여과 없이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년기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힘을 획득하고 싶은 욕망과 관계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왕따에 대한 해결책 역시 청소년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이들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1) 청소년 집단따돌림 현황

학교와 같은 공동생활 장소 내외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 언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힘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왕따'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용어로 이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1.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도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법제처, 2010)

2. 괴롭힘

'공식적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 (강진령 · 유형근, 2000)

3. 집단따돌림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 (구본용, 1997)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발생률은 2012년 1차 조사 13.3%, 2차 조사 11.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학교 집단따돌림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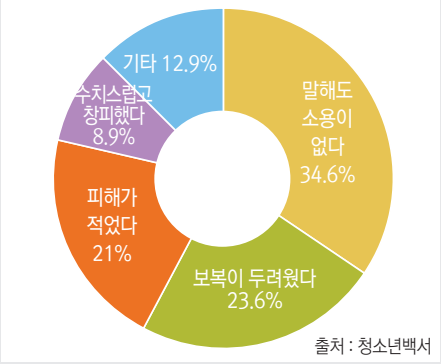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발생률	비고
2012년도	1차 조사	13.3	
	2차조사	11.4	
2013년도	1차 조사	16.6	
	2차조사	16.5	
2014년도	1차 조사	17.1	
	2차조사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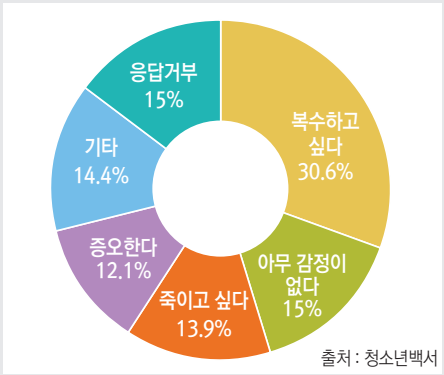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집단따돌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52.6%)이 남학생(41.1%)보다 남을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따돌림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가해자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집단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매우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고 심각성이 커져야만 교사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그림 5] 가해학생에 대한 감정

실제 집단 따돌림의 13% 정도에만 교사나 학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만약 교사나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면, '복수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증오한다.'와 같은 응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의 다른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 · 간접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거부가 남긴 상처는 매우 심각해 피해자의 상당수는 일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며, 자살이나 가족의 이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분노 감정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 · 중 · 고의 40%가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으며,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30%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따돌림이 재미있다, 기분이 좋다(30%)고 하였다.
따돌림의 이유는 따돌림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65.4%), 그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덩달아서', '심심해서' 등으로 따돌림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중 신체적 폭행 피해, 협박피해, 금품갈취의 피해 장소는 주로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굣길,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에서 발생하지만, 집단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매우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고 심각성이 커져야만 교사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집단따돌림의 13%정도에만 교사나 학부모의 개입이 이루어진다(Coloroso, 2003).
피해학생이 느끼는 가해학생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복수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증오한다와 같은 응답이 많이 차지하는 결과를 볼 때, 피해학생의 분노 감정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차후의 집단따돌림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장난?

따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A는 학급에서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이다. A는 겁을 잘 내고 소심하여 '잘 쫄기' 때문에 "쫄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같은 반 여학생들조차 아주 쉬운 문제도 잘 풀지 못하는 A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일부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A에게 팔 꺾기, 밀치기 등 신체적 장난으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A는 "그러지 마"라고 낮은 소리로 말할 뿐이다. 친구들은 A가 싫다고 말한 적이 없기에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바보, 멍청이", "쫄맨! 쫄맨!"이라고 놀려도 A는 "아휴, 아휴"만을 연발할 뿐 "하지마"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학급 친구들은 A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 집단따돌림의 유형

〈표 4〉 집단따돌림의 유형

유형		예시 행동
신체형 따돌림	강제형	• 숙제를 강제로 시킨다. • 하기 싫은 심부름을 시킨다.
	장난형	• 가방이나 옷 등에 벌레를 집어넣는다. • 금전 및 물품을 빌리고서 돌려주지 않는다.
언어형 따돌림	욕 · 협박형	• 자존심이 상하는 약점만을 들추어 이야기한다. • 심한 욕을 한다.
	조롱형	• 신체적 특징을 들어 '돼지' , '거지' 등으로 부른다. • 몇몇이 쑥덕거리며 쳐다보고 웃는다.
소외형 따돌림	소외형	• 쉬는 시간에 함께 놀지 않고 고립시킨다. • 묻는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따돌림의 유형

① 수동적 피해자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는 신체적인 공격이나 모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스스로 무가치한 태도나 행동양식을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는 여기에 '신체적 열세'가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해 보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로 따돌림을 당한다. 수동적 피해자는 학교에서 혼자지내며, 친구가 거의 없다.

또한 동년배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특성을 가지며,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종 과잉보호를 받는다.

② 도발적 피해자

도발적 피해자(provocation victims)는 주의 집중의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로 주위 사람들에게 긴장과 불편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불안한 반응 형태의 공격적 반응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친구들을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고, 특히 수업시간이나 또래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왕자병, 공주병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들 역시 도발적 피해자 유형이 되기 쉽다.

이들은 '잘난 체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고, 자기 본위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타인과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아이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③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따돌림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유형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따돌림의 피해자였다가, 자신보다 더 약자인 학생을 발견하면 그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혹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역할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완전히 가해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해 주동자 주변을 맴돌다가 자신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만성적인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이다.

(3) 집단따돌림의 원인

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있어 왔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일정 정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따돌림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특히 따돌림의 정도가 심한 이유는 사회 · 환경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 집단따돌림의 원인

즉, 우리 나라의 처벌위주의 양육태도를 가진 가정환경과 통제 위주의 학교환경은 집단따돌림을

일으키기 쉽다.

① 개인 내적 요인

-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는 강한 공격성을 지니고 자신의 공격성을 통해 성공을 성취한다고 확신하며, 다른 또래에게 가해질 고통과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했거나 정서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학생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 없이 가해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적 기술이 부적절한 학생들은 사고의 초점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또래에게 고립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패와 욕구좌절을 느끼게 된다.

② 가정적 요인

- 부모의 무분별한 처벌적 양육방식에서 비롯되는 자녀의 공격적 행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는 아동이 각 발달단계에서 스스로 정립해야 할가치관과 독립심을 갖지 못하게 하여 또래와의 적절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

③ 학교 환경적 요인

- 학업성적 및 입시에 대한 압박감은 학생들을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만들어 친구들을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의식하게 한다.
- 집단따돌림은 그 특성상 교사의 감독권이 있는 상황인 학교에서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 발생한다.

④ 사회문화적 요인

- 비인간적인 사회 현상을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하고 있다.
-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의 중요성보다는 지나친 출세주의에 의해 경쟁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는 풍조를 갖게 되었다.

(4) 집단따돌림의 관련자별 특성

① 가해자의 특성

〈표 5〉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심리적 ·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다. • 자신감이 있고,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 • 재치있게 대답하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자기 자신을 강하고 성공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외향적이다. • 피해학생은 벌을 받을 만하다고 믿는다. • 주변에서 대담한 사람으로 불린다.	• 체격이 큰 편이며, 체력적으로 강하다. • 공격행동에 자신감을 나타낸다. • 어릴 때부터 사회성, 인기, 자신감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운동을 잘한다. •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편이다. • 피해학생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다. • 또래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다.

② 피해자의 특성

〈표 6〉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심리적 ·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 소위 말하는 튀는 행동을 한다. •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학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심하다. • 내성적이며,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한다. • 대인관계에서 피해의식이 많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다. • 지나치게 잘난 체하거나 이기적이다. • 과도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 • 무능력하거나 정서적 장애가 있다.	•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 • 힘이 약해서 주변 또래의 놀림감이 되기 쉽다. • 체력이 약하거나 신체 구조상 문제가 있거나 운동능력이 부족하다. • 활동 및 활력 수준이 낮고, 신체적인 매력이 없는 편이다.

③ 방관자의 특성

〈표 7〉 집단따돌림 방관자의 특성

구분	특성
가해자	집단따돌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직접 가담한다.

구분	특성
동조자	집단따돌림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직접 가담한다.
지지자	시작하지도 않고 직접 가담하지도 않지만 집단따돌림을 지지한다.
소극적 지지자	집단따돌림을 좋아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무관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만 하고 상관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
소극적 방어자	집단따돌림을 싫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만 한다.
적극적 방어자	집단따돌림을 싫어하고 따돌림 받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시도하거나 도와준다.

(5) 집단따돌림의 징후

따돌림의 실제

공통적으로 대상 개인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싫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구체적인 형태는 상대 안하고 무시하기, 딴 동료와 못 놀게 방해하기, 싫어하는 별명이나 말로 바보 취급하기, 말 따라 하며 놀리기, 시비걸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지나갈 때 발 걸고 물건 던지기, 소지품 뺏기, 엉뚱한 소문내기 및 때리기 등이 있다.

①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징후

- 안색이 좋지 않고 기운 없어 보인다.
- 혼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 친구의 심부름을 많이 하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항하지 못하고 아부하듯 웃는다.
- 넓은 장소에서 혼자 일하거나 청소한다.
- 모임이나 소풍, 견학 등을 피한다.
- 지각과 결석이 많아진다.
- 친구들에게 멍청이, 이상한 놈 등의 말을 듣는다.

② 가정에서 집단따돌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징후

- 피곤한 듯하며 혼자 있고 싶어 한다.
- 근심에 잠겨 있거나 말이 없어진다.
- 화를 잘 내는 등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 같다.
- 집안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씀씀이가 커지거나, 손발에 작은 상처를 입고 있고, 옷 · 노트 ·

가방 등에 낙서나 흠집이 많다.
-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전학 보내 달라고 조른다.
-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한다.
- 지각과 결석이 잦아진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책 등의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
-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식욕부진이나 눈물 등을 자주 보인다.

③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의 징후
- 교사와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반발한다.
- 자주 화를 낸다.
- 교실이나 벽에 낙서를 한다.
- 몇몇 친구와 패거리를 만든다.
- 남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 말투가 거칠고 불평불만이 많다.

(6) 집단따돌림의 예방 및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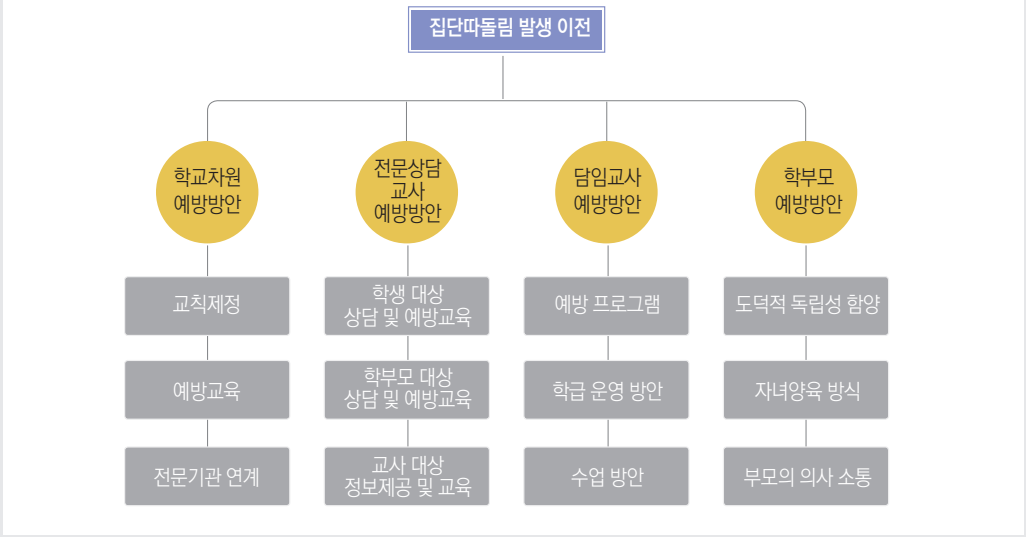
① 따돌림의 예방 방안

예방은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역기능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고립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피해학생이 따돌림 상황에 장기간 놓이게 되면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처럼 후유증이 오래 남는 문제들은 그만큼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따돌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 지속적인 관심 및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

이다.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의 부모, 담임교사 및 학교당국, 전문 상담교사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따돌림이 발생하고 나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집단따돌림은 발생 후의 대처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림 7]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예방 방안

- 학교에서는 집단따돌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교칙을 제정한다.
-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집단따돌림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사 한 사람의 개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ONE-STOP 지원센터, Wee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요청된다.
- 집단따돌림과 같이 여러 학생이 개입되는 상황은 전문 상담 교사가 학생, 학부모, 일반 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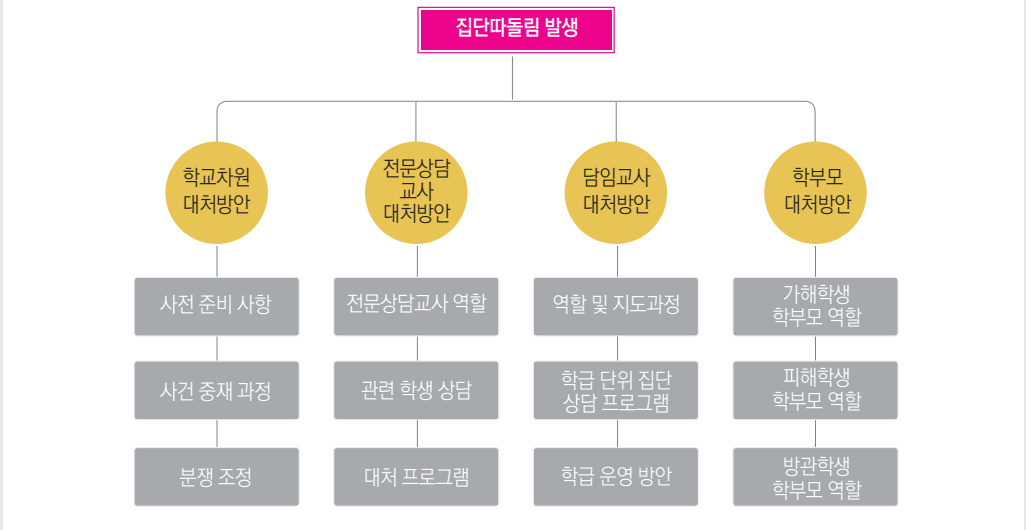
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담임 교사는 학급 내 역동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교실 내 집단따돌림 징후를 인지하고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돌림의 발생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담임교사는 평소 학생들에 관심을 갖는다.
-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화,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은 자녀가 다른 학생들을 따돌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느끼게 하고, 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② 집단따돌림 대처 방안

-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 전문 상담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한다.
- 담임 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학급회의 시간에 집단따돌림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여 가해학생들 스스로가 집단따돌림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교육한다.
- 학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돌림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사건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 담임 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친구의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한다.
- 학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잦은 부부싸움은 자녀의 자살 충동과 폭력행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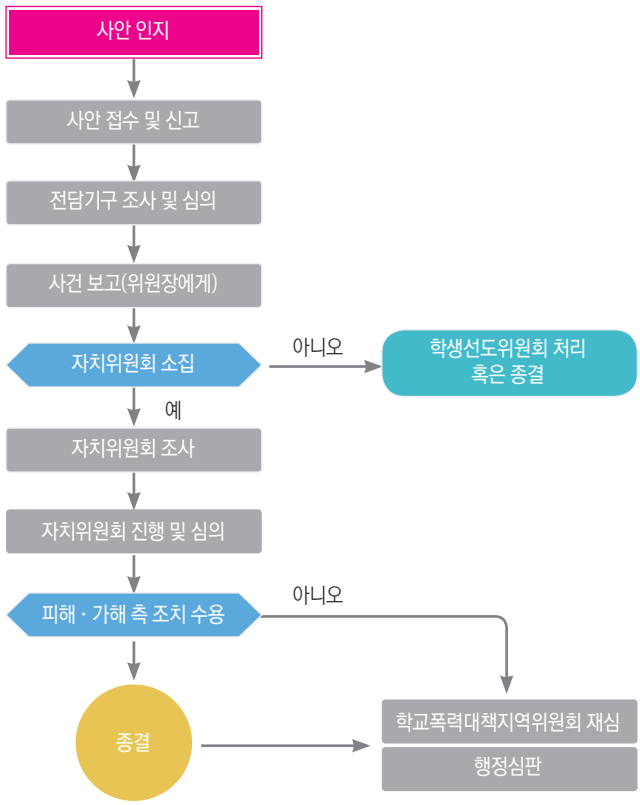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따돌림 피해 학생들에게는 부모-자녀 사이의 건강하고 원활한 대화가 중요하다. 자녀가 따돌림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부모 역시 함께 상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림 8]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대처 방안

③ 집단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집단 따돌림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 및 처리 과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림 9]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④ 집단따돌림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 청소년폭력예방재단(www.jikim.net, 02-585-009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Cys-Net 청소년 상담지원센터(http://www.kyci.or.kr, 02-1388)
- Wee센터(모든 학교에 설치)
- 홈페이지 신고상담, 1:1채팅 상담(www.safe182.go.kr)
- 모바일 웹 / 앱 신고(m.safe182.go.kr 접속 또는 모바일앱 실행)
- 휴대폰 문자신고(학교신고의 경우, #0117을 수신번호로 하여 송신)

함께해 보기 1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법 의견 나누기

그림이나 사진	그림이나 사진	그림이나 사진
가. 신체적인 형태	나. 언어적 형태	다. 심리적 형태

① 가, 나, 다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의논해 보자.

②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따돌림 사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정리하기 !

폭력의 결과를 알아보고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구분	내용	
1. 학교 적응력	1)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 늑장 또는 꾀병을 부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학년 초 반이 바뀌는 것과 새 친구들에 대해 걱정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전학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자기 통제력	1) 울고 짜증을 부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친구가 놀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거짓말을 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하지 말라고 꾸중해도 소용이 없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정서 감정 관리	1) 사소한 일로 삐치고 토라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화가 나면 오래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겁이 많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또래 아이들과 다툰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책임감	1) 자기 방을 정리 정돈하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공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무엇을 물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몰라'라는 말을 쓴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엄마 때문이야"라는 말을 쓴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5. 신체 정서 발달	1)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논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신체 정서 발달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감정표현이 서툴고 상황 판단을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관심사만 이야기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6. 사회성	1) 새로운 친구를 못 사귄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2) 자기만 알고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3) 잘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잘못할까 봐 불안해서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4) 잔소리를 많이 해야 할 만큼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다.	③ 자주 ② 가끔 ① 어쩌다가 ⓪전혀 아니다

• **채점 (③은 3점 ②는 2점 ①은 1점 ◉ 0점)**

• **영역별 점수**

- 합계가 0점이면 자녀가 심리적 ·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 1-4점이면 부모가 자녀의 취약점을 발견해 이를 보완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5-7점이면 자녀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단계다.
- 8점 이상이면 자녀의 인성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야 한다. 때에 따라 부모가 자녀 양육법을 고치고 전문가가 자녀를 심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

• **전체 점수**

- 모든 영역의 합계가 0점이면 심리 인성 발달이 매우 우수한 상태다.
- 1-23점이면 자녀의 인성에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 24-36점이면 부모가 자녀의 인성지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인성 발달의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 37-48점이면 학습부진이나 인성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상태다. 부모가 경각심을 갖고 문제 극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49-60점이면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학습부진은 물론 대인불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부모가 특별히 주의해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 60점 이상이면 집단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면 학습부진은 물론 신경성질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부모의 조치와 함께 전문가에 의한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

〈합계 49점 이상 위험 – 심리 치료 꼭 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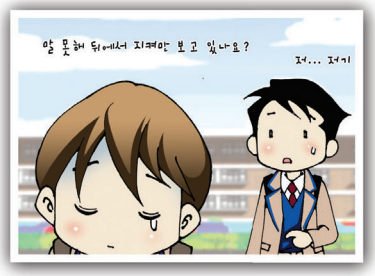
부모는 자녀가 집단따돌림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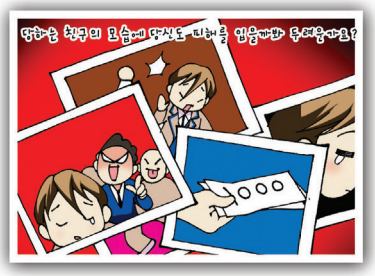
정리하기 1

말풍선 채우기

여러분은 아래의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말풍선을 채워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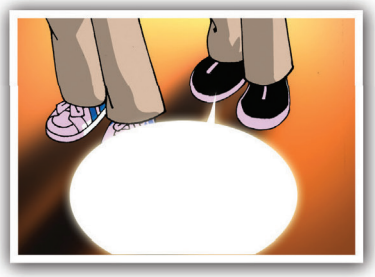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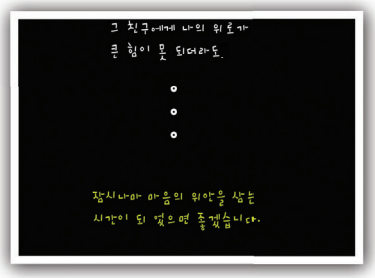












3) 청소년 자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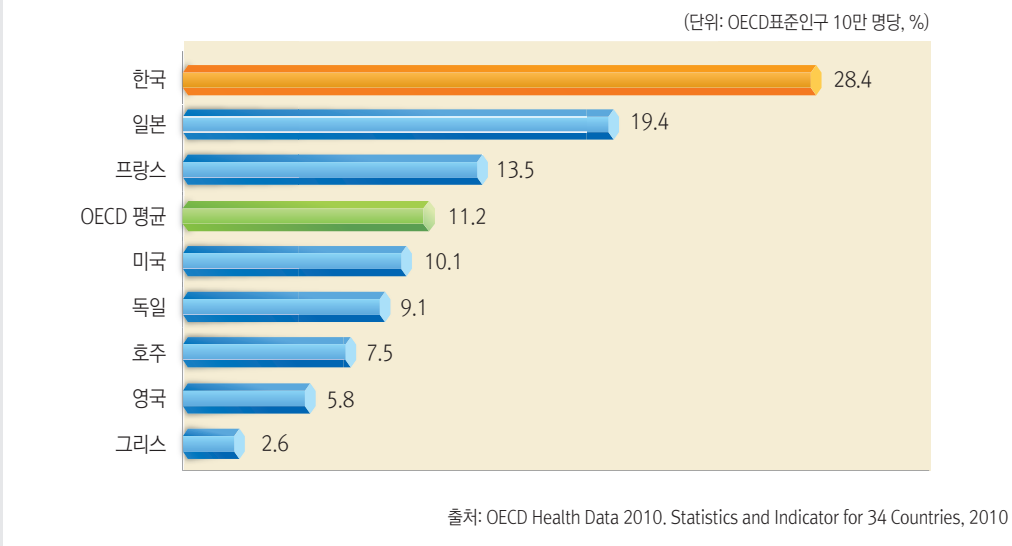
(1) 자살의 현황

자살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살의 개념

자살(自殺, suicide)이라는 용어는 Thomas Browne 경(1605~1682)이, 자신의 저서인 종교의학(Religion Medicine, 1642)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자살' 또는 '자살 행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즉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살은 아동기 이후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발생률이 높은 치명적인 행위이다.
청소년기에는 아직까지 자아가 미숙하고 약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10 년간 자살 증가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와 20대의 경우에 전체 사망원인의 1, 2위가 자살로 인한 사망이다.



출처: OECD Health Data 2010. Statistics and Indicator for 34 Countrie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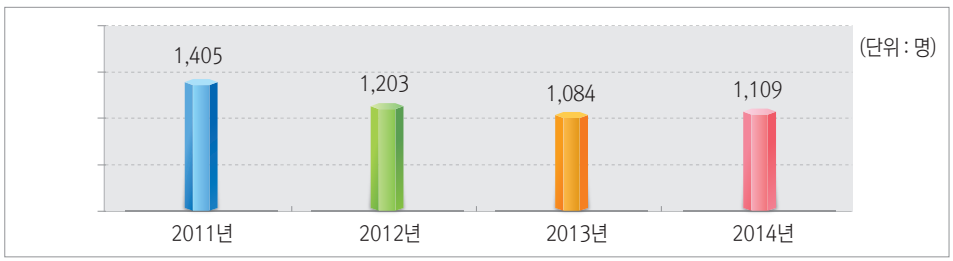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비교

자살의 현황

우리 나라의 자살 현황에 대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대 사인 중 자살이 2013년에는 1위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 운수사고가 1위이고 자살은 2위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운수사고(26.2%), 2위 자살(24.7%), 3위 암(14.3%)로 나타났으며, 2013년엔 자살이 28.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로는 운수사고로 19.1%로 나타났으며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순위가 뒤 바뀌었다.

10대 사망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0대 사망자 수는 △2011년 1,405명 △2012년 1,230명 △2013년 1,084명으로 해마다 줄었으나, 2014년 1,109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림 11] 4년 간 10대 사망자수

또한 보건복지부 2013년 조사에 의하면 1년 간의 청소년 자살생각률은 16.6% 자살계획률 5.7%, 자살시도율 4.1%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로는 성적 및 진학문제(28.0%), 경제적 어려움(20.5%), 외로움 및 고독(14.1%), 가정불화(13.6%), 직장문제(6.7%), 기타(17.1%)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2) 청소년에게 흔한 자살 심리

① 입시부담, 학교폭력, 부모처벌 공포 등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심리
② 부모, 선생님, 이성 친구에 대한 강한 분노 감정으로 인한 보복심리
③ 자아존중감의 부족으로 인한 자기 처벌 심리
④ 욕구좌절 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충동적인 자해심리
⑤ 대인관계 상실 시 죽은 친구나 부모를 사후세계에서 만나기 위한 재결합 심리

(3) 자살의 원인

① 개인적 위험요인 : 지나친 완벽주의, 절망감, 상실감, 분노 통제의 어려움, 수치심에 대한

공포와 과장된 수치심, 우울증 등 정서 통제 기술이 미숙하고 충동적이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하고 인지 전략이 폭넓지 못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하기 쉽다. 따라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업 부담의 증가,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 진로문제 등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지나친 완벽주의, 절망감, 상실감, 분노 통제의 어려움, 수치심에 대한 공포와 과장된 수치심, 우울증 등이 있다.

개인적 경험	개인적 특성
과거 자살시도 경험, 자살사이트 방문경험, 음주, 흡연, 약물사용 경험, 상실 경험	성, 연령, 우울, 절망감, 적대감, 공격성, 충동성, 정신질환

- 성차 : 자살생각 여〉남 청소년 (Liu & Tein, 2005)자살시도 및 자살률 여〈남 청소년(Halfors, 2004)
- 연령 :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상승
- 과거 자살시도 경험 : 자살관련 행동 예측력이 매우 높음(Dlekstra, 1989)
-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 약물 사용 : 자살생각보다 자살시도와 밀접한 연관성(Kelly 외, 2002)
- 절망감 : 우울과 자살 행동 간 매개 요인이며, 자살행동 예측시 우울보다 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Beck, Steer 외, 1990)
- 공격성 및 충동성 : 높은 공격성은 자살관련 행동 재발의 위험성을 높임(Stein 외, 1998)
- 정신질환 : 조울증, 정신분열증, 인격 장애 등
- 상실경험 : 경제적 손실, 지위의 실추, 질병이나 외상

② 행동적 위험 요인 : 약물복용, 알코올 중독, 자실시도 경험, 자기 파괴적인 행동, 학교 무단결석과 부적응 등

③ 가정적 위험 요인 : 자살 가족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존재, 비현실적인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 등

- 가족의 의사소통 부족 및 왜곡, 부모와의 갈등, 소외감: 자살생각의 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Lester, 1987)
- 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Gibb, 2001)

- 가족의 우울, 약물문제(Wagman 등, 1999)
- 부모의 범죄경력 및 가족구성원의 상실: 청소년의 자살시도와 깊은 관련(Joff 외, 1988; Wichstorm, 2000)

④ 환경적 위험 요인 : 잦은 이사, 원만하지 못한 친구 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언론매체의 자살에 대한 보도,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체제의 부족 등

또래 및 주변 환경 요인

- 또래와의 어려움은 청소년 자살 시도와 유의한 관련성(Bjarnaron 외, 1997)
- 친구의 죽음은 자살 관련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 높음(Buddeberg 외, 1996)
-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변인(Morano 외, 1993)
-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자살관 및 자살 소식은 청소년 자살과 유의한 상관관계(Hawton 외, 1999)

(4) 자살의 특성

① 충동성

- 성인에 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장 · 노년층에 비해 정신과적 질환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시도가 더 많다.
-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유사한 자살 동기를 가진 또래를 찾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연령대와 비교 시 자살 시도율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낮다.
-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도피 수단으로 사후 세계를 지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있다.
- 촉발사건이 자살에 직접 영향을 준다.

② 공유성

-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유사한 자살 동기를 가진 또래를 찾는 경향이 있다.

• 특히 청소년들은 자살 생각이나 계획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관심과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 특성을 비교해 보면, 성인은 시도 결과가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의도를 갖고 있으며, 행동 · 정동장애 진단을 더 많이 받을 상태인 반면에,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덜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며, 덜 심각하지만 더 자주 시도하게 되고, 적응 또는 불안장애이지만, 진단명은 없다(Parellada et al., 2007).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은 입시 위주의 교육,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자살의 표현, 우울증, 열등감, 소외감, 복수심, 인터넷 중독, 동조 및 모방적 특성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에 의한 자살 행위를 보일 위험이 높다.

(5) 자살의 징후

자살 위험 징후는 자살과 관계되는 여러 위험 인자들의 표출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쉽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약 8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다.

• 언어적 표현
• 죽음 생각에 몰두
•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대인 접촉 기피
• 슬픔, 절망감, 분노 등의 과대적인 표현
• 지나친 죄책감 또는 당혹감
• 수면상태나 체중의 변화
• 술, 약물의 오 · 남용
•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이러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교사나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만나 실제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받도록 지지해 준다.

생명 존중


[그림 12] 아름다운 '이지선'씨

누구나 버티기 힘든 일이 생겨 고통스러울 때,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날 때,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을 꿋꿋이 지켜낸 다음의 사례를 읽어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 보자.

지난 2003년 4월 KBS '인간극장'의 주인공 이지선. 그녀는 200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온 몸에 중화상을 입고 가망 없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수십 차례 수술의 고통을 겪었지만, 마디 없는 손과 일그러진 얼굴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마음이 아픈 사람 곁에 함께 하겠다'는 꿈을 갖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 직전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잠재적인 자살 위험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을 자살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① 자살에 대해 넌지시 암시한다. : '어디 먼 곳에 가고 싶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하며 자살을 암시한다. '죽고 싶다'거나 '죽겠다'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또한 자살할 곳을 미리 알아보고 대수롭지 않게 은근히 장소를 흘리듯 말하는 경우도 있다.

② 주변 정리 및 이별을 준비한다. : 평상시 아까워하던 자신의 소지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동안 써 왔던 일기, 편지, 사진 같은 것을 처분하여 빌려온 물건을 돌려주는 등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자살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를 갑자기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다.

③ 과도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 : 사고가 발생할 만한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 잠재적인 자살 소망을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자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④ 태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한다.

- 평소 관심을 갖던 일에 갑자기 흥미를 잃는다.
- 대인관계를 끊고 방 안에 틀어박힌다.
- 정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한다.
- 지금까지 손쉽게 해 왔던 일을 하지 못한다.
- 학업성적이나 업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 초조감과 불안감이 늘어나 안절부절못하며 침착하지 못하다.
- 잘 다니던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경솔한 태도가 눈에 띈다.
- 자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낙서나 글을 쓰고 그림 등을 그린다.
-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불면 등을 호소하며 건강을 포함한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
- 술이나 약물 복용이 부쩍 늘어난다.
- 도박이나 무모한 주식 투자 및 방탕한 성생활을 한다.

⑤ 자신의 신체에 실제로 자해 행위를 한다. :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거나 정량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행동을 한다. 이 경우 실제 사망의 위험은 없지만 이런 행동까지 보인다면 자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6) 자살 예방 및 대처 방안

자살의 위험 요인을 제거 하고 보호 요인을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자살 기도를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모님이 괴로워할까봐 (22.6%)
-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 때문(17.3%)
- 너무 무서워서 (16.7%)
-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11.5%)
-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10.2%)
- 자살이 나쁘다고 생각돼(10%)
- 기타(6.7%)
- 자살을 생각하게 된 문제가 해결돼(3.7%)
- 전문 상담가의 도움(0.6%)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① 자살 예방법

• 모든 사람이 생명 존엄성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자살은

고통스러운 삶의 해결책이나 탈출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생명의 문제이다.

즉, 삶에서 얻어진 고통스러운 문제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중단하는 자살로 풀지 말아야 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아두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자가 진단, 사이버 및 전화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위험요인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족 내 요인
- 가족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유지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 일관된 양육방식
- 의사소통의 원활
- 가족의 안정과 능력

• 인지 방식과 성격
- 좋은 사회성 기술과 대처기술
- 자신, 환경, 성취에 대한 자신감
-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구함
-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을 구함
-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해결책을 잘 받아들임
-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것

•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생활에 잘 어울리는 것
- 동료들과 대인관계가 좋은 것
-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지지
- 종교활동 및 종교적 신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② 자살 위기 대처법

- 사고의 구도를 바꾼다 : 자신이 가진 생각과 문제 등을 글로 나열해 보고, 이를 각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제안의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본다.

• 도움을 요청한다 : 자살의 위기감이 들면 숨길 것이 아니라 주위의 믿을 만한 친구나 어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

Who :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본다.
How :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Organization :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Cys-Net 청소년 상담지원센터(http://www.kyci.or.kr, 02-1388)
▶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kyci.or.kr, 1388
▶ 한국생명의 전화(www.lifeline.or.kr, 1588-9191
▶ 한국자살예방협회(www.counselling.or.kr, 1577-0199)
▶ 서울시자살예방센터(suicide.blutoch.net, 1577-0199)
▶ 서울시정신보건센터(02-2231-2188) 및 각 지역정신보건센터

함께해보기 !

고민 해결 방법

① 자신에게 고민이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3가지 이상 써 보자.

② 다른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자.

함께해보기 2

WHO 도움 요청하기

① 누구에게(=Who)?






(　　) (　　) (　　) (　　)

② 어떻게(=How)?
요즈음 (_____) 해서 정말 힘들어요.

③ 상담기관(=Organization)?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헬프콜 청소년전화, 한국 생명의 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관

함께해보기 3

삶의 의미 생각하기

자살생각을 물리치는 나의 힘!

①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로하기, 격려하기
☐ 난 괜찮아.....　　☐ 난 괜찮아.....
☐ 난 괜찮아.....

②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기
☐ 나에게 _____가 있어 참 좋다
☐ 나에게 _____가 있어 참 행복해!

③ 삶의 의미 떠올리기
무엇(삶의 목표 등)이 있어서 내게 살아갈 힘이 되나요?
☐ _____는 내 삶의 의미! 행복!
☐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_____이지!

정리하기 !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문 항	예	아니오
1.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충격이 원인이다.		
2.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는다.		
3.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반복적으로 자살 위협을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4. 한 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던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		
5. 자살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살하는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		

해설 :

(1) 특정사건이 자살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것이다. 조기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간은 어떠한 참혹한 고통도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 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3)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하는 고민을 계속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원래 죽을 맘이 없었다", "겁주려고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자살 시도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 보다는 감정이 촉발되는 위기상황에서 밀물처럼 강력히 밀려왔다가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썰물처럼 사라지고 이후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살의 충동을 갖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적절히 위기개입을 해주면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5)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이다.

이야기 해주기

학교폭력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부모님, 선생님에게는 큰 짐을 친구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교육부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며, 폭력 발생 장소에 있어서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폭력 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심리적 폭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제외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현황

최근 우리 나라의 학교폭력은 흉포화, 저연령화, 조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김준호, 김선애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체학생의 9.4%가 금품갈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남학생이 13.6%, 여학생 5.0%이었다. 협박이나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11.2%이었고 신체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10.6%이었다. 폭력피해시간에 있어서는 교사와 규율이 있는 학교에서 벗어나 통제가 불가능한 방과 후가 3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쉬는 시간 21.2%이었다. 피해를 당한 장소는 교실 안이나 복도가 34.4%로 나타나 학교 안에서 그것도 교실이나 복도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피해를 알린 경우에 친구에게 말한 학생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29.5%, 부모 혹은 가족에게 말함은 28.5%이었고 교사에게 말한 학생은 5.3%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2008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한 학생의 45.1%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한편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는 반응은 28.6%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6.3%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성격이나 외모, 장애 등의 피해자의 원인보다는 '만만해 보여서'(31%), '이유가 없거나 모름'(15.4%) 등 가해자의 잘못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가해 이유는 장난이 24.7%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오해와 갈등이 16.6%를 나타냈다.

교육부의 2014년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4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으로'(31.3%),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0%), '먼저 괴롭혀서'(17.5%), '이유없음'(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5.4%),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강제심부름(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항상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학교폭력의 원인

(1) 개별학생의 인격적 특성

학생의 자아통제력 및 타인 존중의식과 대인관계 기법이 미약하며 소심한 성격의 학생이 불만이 누적되었을 때 공격성이 갑자기 표출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맞을 짓을 했다. 남자사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울러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 훈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폭력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폭력에 대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부적응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 부모에 대한 욕구불만 등과도 관련이 있다.

(2) 가정환경

자녀 과잉보호, 가정의 기능 약화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 가정폭력에 의한 폭력의 학습, 가정에서의 자녀가 방치되는 것 등이다.

(3) 학교환경

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인권이나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이 미흡하다는것과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관한 대처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일부 교사들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나아가 체벌과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을 적용하는 등과 같이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있다.

4) 학교폭력의 징후

(1) 피해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희롱을 당한다.
- 지배를 받고 굴복한다.
- 조소적이고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다.
- 꼬집고, 툭툭치고,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책,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빼앗기거나 손상을 입는다.
-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베이고 긁히고 또는 옷이 찢기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심란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 학교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휴식시간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 곁에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한다.
- 동료학생 그룹 안에서 체력으로나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 비행친구들과 어울린다.
-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2) 부모님이 알아 볼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 비싼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고 온다.
- 상처가 많이 발견되지만 '그냥 다쳤다', '운동하다가 넘어졌다'고 답한다.
- 가방이나 책에 '죽어라'와 같은 폭언이나 욕설이 쓰여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자주 말하거나 몰래 돈을 가져간다.
- 풀죽어 들어와 맥없이 주저앉거나 음식을 잘 안 먹는다.
- 두통, 복통을 호소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자주 지각, 결석을 한다.
-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한다.
- 선배나 친구로부터 자주 전화가 걸려오며, 부모 눈길을 피해 나가서 통화를 한다.
- 갑자기 전학을 보내 달라고 말한다.
-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5) 학교 폭력의 대처방안

심각한 경우 자신이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가족이나 선생님 등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학생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신고의무가 있다. 누구든지 학교 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경찰 등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아이가 등교하기 전에 '잘 하고 있어. 00는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한다.
- 아이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루 최소 30분 대화한다.
-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 한다.
- 신학기일수록 신체, 의복, 씻기 등에 더욱 신경쓴다.
-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새로 바뀐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읽어본다.
- 아이에게 이전에 불리던 별명이 있다면 가정에서 별명에 대한 대처요령을 습득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에게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자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돼, 하지마, 그만해' 등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미리 연습한다.

참고)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교장과 경찰,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되어, 가해 · 피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게 하였다.

5-2. 성폭력 안전

I. 단원 개관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이 장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예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익힌다.

II. 단원 목표

1. 성폭력의 특징과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방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III.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성폭력과 안전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유형 및 원인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의 대처 방안	•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설명 • 성폭력의 유형 및 원인 설명 • 성폭력의 후유증을 설명 •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설명	100분	영상물 신문	성폭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의 양성과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 성폭력

지도상의 유의점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이 장에서는 성폭력의 폐해를 알아봄으로써, 개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비판하는 시각을 갖도록 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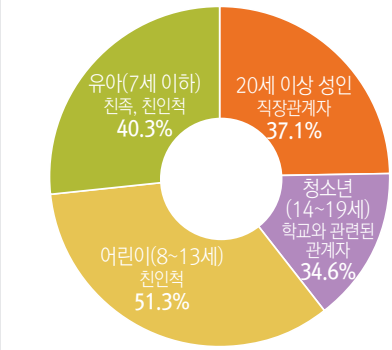
1)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 성폭력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언동은 '성폭력범죄'라 하여 이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여 연간 25만 건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63.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남성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82.1%)이었다. 또한 남성이 피해자(3.9%)인 경우, 상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69.6%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 중 84.8%는 아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생활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림 1]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우리 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여 연 간 25만 건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의 성폭력 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이 중 30%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39.6%가 10대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과 스토킹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4년은 전체 상담 2,185회(1,602건) 중 성폭력 상담이 총 2,017회(1,450건)로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비율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건수 1,312건 중 성인 여성 피해자가 837건(63.8%)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가 남성성인인 경우가 1,077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남성이 피해자인 51건(3.9%)중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35건(69.6%), 여성인 경우가 16건(31.4%)으로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은 강간>성추행 순으로 피해 양상이 드러나나 연령이 낮은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성추행>강간 순으로 피해가 보고된다.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성희롱 상담 건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일 때 성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폭력이 성별 권력차 뿐만 아니라 나이 · 지위 · 계급 · 경제력의 차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 중 84.8%는 아는 사람과 행해졌는데,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자인 경우가 319건(3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소년(14~19세)의 경우는 학교와 관련된 관계가 59건(22.3%), 어린이(8~13세)의 경우 친족, 친인척이 57건(51.3%), 유아(7세 이하)도 친족, 친인척이 27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성폭력은 피해자의 주요한 생활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 2인 이상에 의해 행해지는 강간인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1) 행위에 따른 유형

① 강간

강간이란 저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혹은 '죽여 버리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하여 행해지는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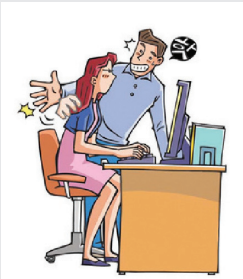
②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이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강제로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출처 : 여성가족부

④ 기타로 음란 전화, 과도한 신체 노출, 스토킹 등이 있다

(2) 대상에 따른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성학대'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어린이 성폭력의 약 80% 이상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친부, 의부,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등 혈족 혹은 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친족 성폭력이라고 한다. 다른 유형은 교사(학원 강사 포함),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기사, 동네 이웃, 경비원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이다.

②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는 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 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③ 데이트 성폭력

이성 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으로 성폭력 상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④ 사이버 성폭력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보내거나, 인터넷과 채팅방을 통해 오고가는 욕설 등도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되며 이 또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온라인의 특성 상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성폭력의 후유증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때의 기억으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중 3, 여)


출처 : 여성가족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고는 건물 3층에 가서 누구를 불러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며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올라 와서 저를 옥상으로 잡아끌었어요. 저는 반항을 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도 그런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신체적인 증상은 없이 생리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모든 걸 잊자고 결심하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결혼도 못할 것만 같아요. 순결을 잃은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엄마가 낯선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실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일부

우리 사회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회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08년 4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인 12명의 가해학생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2007년 11월 가해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는 등의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가해학생에게 위인전만 읽히거나 방송으로 진행하는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였다.

3) 성폭력의 원인

(1)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문화이다.
- 여성을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문화이다.

(2) 성에 대한 무지 · 그릇된 성교육의 현실

- 가정과 학교의 성교육이 생물학적, 보건적 내용에 치우치며, 여학생의 경우 순결만 강조하는 남성 중심의 성교육이다.
- 친구나 선배 등 또래 집단으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3)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

-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남성의 성욕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피해 여성이 먼저 유혹한다는 등의 인식이다.
- 여성의 거절의사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다.
-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한다.
-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강간당한 여자는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4) 대중매체 · 음란물에의 노출

- 대중매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다.
- 음란물이 강간 등의 성폭력을 미화시키고 있다.

4) 성폭력의 후유증

(1) 정신적 증상

충격과 혼란, 두려움과 불안감,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우울과 죄책감,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실,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자아존중감의 저하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며 대인기피증 및 정신공황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충격과 혼란, 두려움과 불안감,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우울과 죄책감 및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체적 증상

두통이나 불면증, 식욕상실, 메스꺼움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

강압에 의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또한 두통이나 불면증, 식욕상실, 메스꺼움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3) 사회적 증상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잃게 되고 불신과 공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다.
마음의 상처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다.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성폭력의 예방

①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②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 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③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 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
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⑦ 음담패설을 삼간다.
⑧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⑨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⑩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⑪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⑫ 택시를 탈 경우는 차량의 번호와 회사 이름을 알아둔다.

5) 성폭력의 대처 방안

(1) 성폭력 피해 상황의 대처법

-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다.
-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불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 구토나 소란, 나쁜 병에 걸린 척을 하여 도망칠 기회를 만든다.
- 머뭇거림은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가할 경우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상대방의 눈, 목, 배 등을 힘껏 공격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지나가는 사람 등의 도움을 청한다.

(2) 성폭력 피해 후의 대처 방법

- 부모나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을 찾아간다.
- 피해 직후(12시간 이내)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고, 상처부위는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폭력을 했는지 등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록해두어야 한다.
-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경우 녹음해 두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저장해 둔다.
- 가능한 경우 사건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찍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해자가 또 다시 나를 공격했을 때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 경찰에 고소,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 성폭력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이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대처하기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믿을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림 2] 성폭행 후 대처요령

〈표〉 성폭력 발생가능성 지수 측정

내 안의 성폭력 지수

아래의 질문들은 당신도 모르게 갖고 있을지 모르는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정답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솔직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천천히 돌아보며 답해보세요.

1. 애인이나 아내라면 배려하지만, 보통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2. 괜찮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3. 화가 나거나 괴롭고 힘들 때,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4.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성관계에서는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
6. 키스나 스킨쉽 전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일이다.
7. 성폭력 피해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여성이 밤에 여관이나 집에 따라 왔다는 것은 섹스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9. 성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10. 적극적으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는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많을 것 같다.
11.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박력 있는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12. 여자가 싫다고 해도, 꾸준히 애정을 전달하여 사랑을 얻어내는 것은 낭만이고 순정이다.
13. 나는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여자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14. 화가 난 대상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가 있다.
15. 자신보다 나를 더 배려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주고, 나를 존경하는 여자가 좋다.

내 안의 성폭력 지수

평가 :

- 1~2개 초록 신호등 : 이미 멋진 서포터즈인 당신! 당신의 의미 있는 경험과 긍정적인 느낌들을 주변 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3~6개 노란 신호등 : 폭력에 반대하고, 평등하고자 하는 당신. 그러나 주변의 관계와 감정들을 돌아보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7~15개 빨간 신호등 : 주변의 감정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출처: 한국성폭력 상담소

해설 :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이고 실천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보기 !

성폭력의 실태 알아보기

① 현황자료에 나타난 성폭력 발생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② 현황자료에서 많은 성폭력이 왜 가까운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자.

정리하기 !

성폭력 위기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방법



대응 방법 :



대응 방법 :



대응 방법 :



대응 방법 :

출처 : 여성가족부

성폭력의 잘못된 오해

사례	○/×
(1)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다.	
(8)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한 것이다.	
(9)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10)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12)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해설 :

(1)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아니겠지" 라고 접어두게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난 아냐"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든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 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된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시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문화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정신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렇게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게

된다.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로 막고 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개인 전반적인 교육과 연구, 시도가 필요하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는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이다.

(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여성은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의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다. 이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7) 침묵은 사실상의 동의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은 언제나 동의했던 순간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흔쾌히 '좋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진실한 대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변명인 경우가 많다.

(8) 밤늦게까지 술 먹은 건 동의한 것이다.

밤늦게 술을 먹은 것이 여성이 성폭력을 원한 것이라면, 반대로 밤늦게 술을 먹는 남성들은 성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인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가시간과 인간관계를 즐기는 것이 여성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되는 것은 부당한 성별에 대한 차별의 현실과 이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단 한 번뿐이었다, 두 번뿐이었다를 누가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변명은 '두 번밖에 안했는데 문제없다' 라는 말이 될 수 도 있다. 그 한 번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 사고방식과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더욱 빠르다.

(10)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의 의도가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피해자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 것에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이라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야기 해주기

〈학교 성교육의 중요성〉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일생 동안 이루어질 성생활, 결혼, 출산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Baltes, 1990).

청소년기 시절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성폭행이나 강간 등의 피해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성장 단계별로 이루어질, 체계적인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적 욕구의 해결 대안 제공 및 오염된 성적인 환경에 대한 대처 교육으로 최우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 관련 법률

1. 우리 나라

해당 법	사례	○ / X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촌 오빠(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버스나 지하철, 극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연 1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법죄 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선불금)은 갚아야 한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성학대(abus sexuels) :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로써, 폭력에 의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여 일어난 경우까지도 포함.
- 성폭행(aggressions sexuelles) : 폭력, 강제, 협박이 사용되거나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성학대
- 성남용(atteintes sexuelles) : 성폭행과 같이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외국의 여러 나라 (유럽 8개국)

1) 각국 법률의 특기 사항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 1973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성의 자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제목의 절을 두고, 특히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 중 하나로 한다. •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령을 14세 미만, 16세 미만, 18세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범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본다. 즉,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량은 무겁다. •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 요소들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성학대 시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피해자가 미성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학대에 관한 처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볍다.

국가명	특기사항
영국	• 최초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1956년에 제정되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은 1960년에 제정되었다. • 1989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 1996년 4월에는 성범죄에 관한 백서를 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 1975년 법 이래 존재하던 성범죄 관련 조항들이 1989년의 개정에서 하나의 절로 독립하였다. • 몇몇 조항들은 피해자가 14세 미만, 16세 미만일 경우 달리 적용한다. • 형법에 소아성애병자(pedophile)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상정 중이다.
벨기에	• 1989년의 법률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 특히 14세 미만의 성교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 1995년 4월에는 미성년에 대한 성학대를 규제하는 법률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또한 성범죄자가 청소년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형기만료 후에도 계속 관리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 소아성애병자(pedophile)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덴마크	• 15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행위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가령 피해자가 동의한 것일지라도 실형의 대상이 된다.
스페인	• 1995년 11월에 개전된 법률에서는 "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명명된 절이 대폭 강화되어 성학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직계가족, 교사, 이웃 등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성학대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탈리아	• 1970년대 말부터 성범죄에 관한 법률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 1996년에는 '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다루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 성학대 시도는 성학대의 경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
스위스	• 형법은 '성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언급한다. •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성의 자결권'과 '미성년의 원만한 성적 발달'을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로 한다. • 미성년을 16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한다. • 1996년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2) 강간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 정의 : 여성이 폭력, 협박에 굴복하여 배우자 이외의 남성과 성교를 하는 것.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이며, 항문 성교는 제외한다. • 처벌 :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죽었거나 범죄 후 살인을 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는 형량이 추가된다.(살인의 경우는 종신형까지 가능)
영국	• 정의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 행위.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피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이다. 구강, 항문 성교도 포함된다. 폭력, 위협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약물에 취해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 성행위도 포함된다.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신체적으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력, 지식 등이 부족하여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 • 강간, 강간 미수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명	특기사항
오스트리아	• 정의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 혹은 이에 상응하는 행동, 피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이다. 구강, 항문 성교는 제외한다. • 폭력, 위협의 정도와 강간의 심리적, 신체적 결과에 따라 최고 14년까지 형량이 달라진다. •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최고 20년까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벨기에	• 정의 : 성행위의 내용이나 이에 동원된 수단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행위 • 미성년에 대한 강간은 성년에 대한 것보다 더 중한 벌로 다스리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처벌은 더 중해진다.(성인의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6세 이상의 미성년의 경우는 10년 이상 14년 이하,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는 14년 이상 20년 이하) •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행위로 성립된다. •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이거나, 피해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피해자를 돌보는 주치의 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가중처벌 한다. • 강간시도도 처벌된다.
덴마크	• 정의 : 협박이나 흉기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성행위 • 강간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5세 미만이어도 형량은 성인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성교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스페인	• 정의 : 폭력에 의한 성행위. 구강, 항문 성교도 포함된다. • 처벌 :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의 경우는 1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인 이상의 그룹에 의한 강간, 가족(양부모 포함)에 의한 강간, 흉기를 사용한 강간은 가중 처벌한다. • 피해자가 12세 미만일 경우,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로 간주한다. • 가해자가 직계일 경우, 기타의 보호자인 경우(교사 등), 혼인빙자일 경우는 가중처벌 한다.
이탈리아	• 정의 : 폭력, 위협, 권력의 남용 등에 못이겨 성에 관계된 행위를 하는 것 • 처벌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친족, 보호자의 강간은 가중처벌을 한다. • 피해자가 10세 미만이면 최고 14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	• 정의 : 위협, 폭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개인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는 살인죄가 추가된다.

3) 강간 이외의 성학대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 피해자의 연령을 18세 미만, 16세 미만, 14세 미만으로 나누어 형량을 달리 한다. •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기준이 다르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8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면 권위를 이용한 자(교사, 부모나 양부모 등)에 의한 성학대만 처벌한다.
영국	• 강간 이외의 성학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방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6개월의 징역 혹은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가명	특기사항
오스트리아	•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피해자가 14세 이상의 미성년일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차가 2년 이하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나 이 경우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죽었으면 처벌한다.
벨기에	•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는 최고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 강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더 중해진다.
덴마크	• 강간의 경우와 같다.(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교육에 관련된 자로서 권력을 남용한 경우는 최고 4년의 징역에 처한다.
스페인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미성년의 경우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강간에서 규정한 것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이탈리아	• 1996년 법부터는 강간을 다루는 조항 속으로 흡수되었다.
스위스	• 16세 미만의 미성년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돕거나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최고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여 일어난 행위는 그 형이 감해진다. • 피해자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인 경우는 교육, 직업 그리고 여타의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행위들만이 실형의 대상이 된다.

4) 성 남용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앞에서 성기 노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영국	•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외설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이다. •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가해자가 24세 미만이거나,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수간(獸姦)을 시도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오스트리아	• 성 남용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약한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벨기에	• 16세 미만에 대한 성 남용은 징역형에 처한다. • 강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처벌은 더 중해진다.
덴마크	•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교육에 관련된 자로써 권력을 남용한 경우는 성폭력으로 간주한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면 감형된다.
스페인	• 일반적으로 성남용은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미성년에게 성기노출을 지시한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명	특기사항
이탈리아	• 성 남용은 미성년과의 성적 행위와 미성년자 앞에서의 성적행위로 구분하다. • 미성년과의 성적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16세 미만이면서 가해자가 친족, 교사, 동거인 등일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가해자가 미성년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둘 사이의 나이 차가 3세 이하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최대 3분의 1까지 감형될 수 있다.
스위스	• 성 남용은 성폭력의 가벼운 것으로 본다. • 성기의 노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

국가명	특기사항
독일	• 약물치료 :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써 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25세 이상의 가해자에게 전문의에 의해 실시한다. 이는 가해자가 비정상적인 성본능에 의해 고통받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를 치료하는 것인데, 신체적 • 심리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8월에 공포된 법에서 명시하였다. • 외국에서의 성범죄 행위 : 1993년 이후부터 법률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독일법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성학대를 하였으면 처벌한다.
영국	• 1996년에 더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죄질이 나쁜 경우 재범이 행해지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강간, 강간미수, 13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 등이 이 경우이다. 종신형에 처할 경우 법원은 그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이 조항은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소 후에 형기의 50%에 해당하는 관찰기간을 둔다.(다른 범죄는 15%) 관찰기간은 12개월 이하가 될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찰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 DNA검사 결과를 보관한다, 전자감시장치를 한다, 전과기록을 별도로 관리한다, 주소 이전을 신고하도록 한다,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한다. • 이웃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외국에서의 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의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오스트리아	• 1997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로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벨기에	• 성범죄 관련 전과자의 권리 제한 :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배심원 • 가족 성상담 • 교사 • 재산 관리인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을 경우 1년에서 20년 동안 일정한 권리를 제한한다.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공립, 사립기관에서 어떤 형태의 활동도 할 수 없다. 자원 봉사기관, 개인의 법률이나 계약자문, 청소년에 관계된 모든 기관, 단체의 재정, 관리도 금지한다. • 1995년 4월 13일의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범의 가석방에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 성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할 것, 기간과 내용을 확정한 치료를 받을 것 • 성범죄자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로 '가석방' 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하의 일시적 석방' 의 대상일 뿐이다. • 외국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여기에는 내,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덴마크	• 외국에서의 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 1989년 이후 자원자에 한해 전문가에 의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치료의 형태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없다. • 판결시 특정 장소(공원, 학교, 놀이동산, 수영장, 해변 등)의 출입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4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지령이 적용된 3년 후 해당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신청이 거절되면 다시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국가명	특기사항
스페인	•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6년에서 12년 동안 금지한다. • 6개월에서 6년까지 부모, 교사의 역할 금지, 모든 직업 또는 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 할 수 있다. • 스페인 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페인 법에 따른다.
이탈리아	• 부모(양부모 포함)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부모의 권리를 상실한다. • 교육, 치료에 관계된 직업을 갖는 것이 영원히 금지 된다. •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도 이탈리아의 영토 내에서 행해졌으면 이탈리아의 법에 따른다.
스위스	•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5년까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사법관, 행정관, 공무원의 경우 2년에서 10년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신병이나 성격장애로 인한 범죄의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의 입원이나 시설에 수용을 명할 수 있다. • 스위스에서 일어난 범죄는 국적에 상관없이 스위스 법을 따른다. 또한 스위스인이 외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기록은 별도로 관리한다.

성희롱

1) 성희롱의 정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의 유형

(1) 시각형

음란한 시선,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몸짓, 불쾌한 응시 등

(2) 언어형

전화통화를 포함한 음란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언행 등

(3) 신체형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암시, 성적 농담 등의 언어적 행태 및 입맞춤,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성적접촉, 애무, 포옹, 추행, 강간 등 신체적 행태 등

3)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또는 남녀 간에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고려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

라면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성희롱의 영향

피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1) 심리적 영향

성희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두려움과 공포 등이 발생하며, 우울증, 대중적이지 못하게 되어 친구들을 멀리하고 학교나 직장 가는 길을 변경하게 되며,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

(2) 신체적 영향

심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 영향도 가지게 되는데 불안, 두통, 불면증, 식욕저하나 식욕증가, 위염, 울화병, 체중감소나 증가, 울기 등이 나타난다.

(3) 사회적 영향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성희롱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공부 또는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사기저하로 인한 학업성적 부진, 잦은 결석, 결근, 생산성 저하 등 결국에는 학생들의 경우 타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게 되고 직장인들은 부서 이동을 하거나 사직, 전직 등이 발생한다.

성희롱은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 대상이 되며, 형사책임(형벌) 및 행정적 책임(과태료 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과 명예손상은 당연하며, 그로인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5)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모든 부서 배치에 앞서 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성희롱 예방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만일 공공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경우, 종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내용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셋째, 성차별적인 대우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어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존중한다.

넷째, 모두가 즐거운 회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성희롱은 행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임을 인식한다.
여섯째, 성희롱을 사소한 일로 간주하거나 무마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킨다는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일곱째,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희롱을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여덟째, 말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타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이 서투르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으므로 평소에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셔서 실수했다는 핑계도 마찬가지이므로 술 때문에 실수할 것이 염려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성희롱 대처방안

(1) 우선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첫째, 가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지 말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다. 또한 가해자의 성적 요구도 분명히 거부한다.

둘째,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이때 서면의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 일시와 발송 방법도 기록하며,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발송에 관한 기록을 저장한다.

셋째,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관 내의 위계적 상하관계나 차별적 성별관계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거부의사를 전달하기 보다는 다른 방안(공식적인 해결절차 이용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성희롱의 피해를 내 탓으로 돌려 자책감에 빠지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고충상담원, 노동조합, 주변 친구 또는 상담 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또는 고용평등상담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청한다.

(2) 주위에서 성희롱의 사례를 본 경우

성희롱의 발생을 야기하는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본다든가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자신이 행위를 보았으며 다시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3) 성희롱 가해를 했을 경우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노인의 성폭력

성폭행을 당하는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 여성의 강간 피해 건수는 2003년 96건(1.4%)에서 2006년 217건(1.8%)으로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2012) 보도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폭력 가해자 검거수는 2009년 712건에서 2010년 955건, 2012년 1,070건으로 증가하여 2006년 217건의 약 5배가 증가하였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인식과 환경 등이 개선된 까닭도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노인 성폭력 피해 건수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설마 노인한테 성폭행을...' 하는 식의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성 노인은 아동과 장애여성처럼 자기 보호 능력이 낮아 언제라도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성폭력은 전 연령의 모든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노인이나 장애여성 등 취약 계층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 여성 노인들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수치심과 자책감이 강하고, 사건에 따른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폭력예방 실천수칙

1.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하면 즉시 112로 신고한다.
2. 원인은 다양하지만 따돌림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3. 낯선 사람의 차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4. 몸 어디라도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
5.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벗어난다.
6. 밖에 나갈 때 부모, 형제에게 가는 곳을 반드시 알린다.
7. 밤 늦은 시간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이버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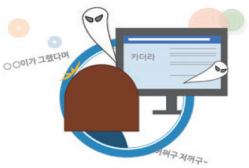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며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떼카(집단 공격): 왕따 친구를 카톡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과 조롱함
▶카톡감옥 : 카톡방을 나가더라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 카톡방에 가둔 후 조롱과 욕설을 함
▶와이파이 셔틀(무선데이터 갈취), 하트 셔틀(아이템 갈취) 등을 당하기도 함



사이버폭력
왜 무서운 것일까요?

가해행동의 집단성
사이버폭력은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폭력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보지 않고 또 자신을 숨긴 채 사이버폭력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파성과 복제성
인터넷, SNS의 빠른 전파와 무한 복제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를 확대시킬 수있습니다.

무경계성
시공간적 제한 없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기록의 영속성
인터넷, SNS 등 사이버상에 노출된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은밀한 사이버폭력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사이버폭력 징후 파악하기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 등)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 보인다.
- SNS 상태 글귀나 사진의분위기가 갑작스럽게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있다.
-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SNS 등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사이버폭력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피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며 아이를 지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보호해주세요
아이에게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을 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욱 움츠려듭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가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해야 할 일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정당화 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내 자녀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10원칙

존중과 배려의 원칙	자녀에게 사이버공간에서 타인도 자신과 같이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 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자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의 원칙	평소에 대화를 통해 학생이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온라인 게시글 등록시 여러번 생각해본 후 남기도록 해주세요.
이하부정관의 원칙	타인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다는 말
지피지기의 원칙	사이버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해주세요. ※지피지기(知彼知己) :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한다는 말
대화의 원칙	평소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주세요.
도움요청의 원칙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언제든 부모가 든든한 지지자가 됨을 알려주세요.
초기대응의 원칙	자녀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보복하지 말고 무시하고 차단하도록 교육해주세요.
증거보존의 원칙	자녀를 비난하거나 욕설 등의 메시지를 확인한 경우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이때, 자녀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대응의 원칙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관련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내 자녀의 사이버폭력 고민!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

온라인 신고/상담서비스 에듀넷(도란도란)

www.**edunet**.net
www.**dorandoran**.go.kr 도란도란

학교별 학교폭력 익명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에듀넷
www.**edunet**.net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제공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 1388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82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 신고/상담서비스

학교폭력 · 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안전Dream(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117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 지원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sos ☎ 1588-9128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쉼 센터(인터넷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 1599-0075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
http://www.**digitalculture**.or.kr/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문자 상담/신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0117
경찰청 안전Dream m.safe182.go.kr

모바일앱
117Chat(학교폭력 신고센터, 채팅상담 등 제공)
스마트 안심드림(사이버폭력 감지시스템)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We센터 우리가 희망이다!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정부3.0

Quiz

문제 1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다음 문제 중 성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이성교제 상대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②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③ 단 한 번의 성폭력 행위는 성폭력이라 볼 수 없다.
④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문제 2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①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
② 회사를 그만두면 해결된다.( )
③ 아무리 유치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
④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린다.( )
⑤ 집단따돌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제 3 아동 따돌림의 징후는 경미한 정도에서 자살에 이르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다음 중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하는 상황을 모두 고르시오.

① 안색이 좋지 않고 기운 없어 보인다.( )
② 혼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
③ 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항하지 못한다.( )
④ 넓은 장소에서 혼자 일하거나 청소한다.( )
⑤ 모임이나 소풍, 견학 등을 피한다.( )
⑥ 지각과 결석이 많아진다.( )

문제 4 다음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① 대부분의 자살은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이다.( )
② 정말 자살할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힌다.( )
③ 반복적으로 자살위협만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
④ 한 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 )
⑤ 자살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

문제 5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준에 따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성폭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 ❶ ○ ❷ × ❸ × ❹ ×

해설 : 이성 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데이트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성폭력 상담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간이다.

문제 2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❺ ×

해설 :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과 폭언,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도 없는 게 당연하다.
②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비참하고 위축된 상태가 되어 퇴사를 결심하기 쉽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 뿐이다. 최대한 직장 내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한다.
③ 부당한 업무박탈, 인사이동,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의를 제기한다.
④ 가해자들은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게 마련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입증자료를 대비한다.
⑤ 집단따돌림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므로 조직적인 지원은 해결에 도움을 준다.

문제 3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❺ ○ ❻ ○

해설 : 모든 교육에서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으나 사고는 경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이란 시행착오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문제 4 정답 : ❶ × ❷ ○ ❸ × ❹ × ❺ ×

해설 : ① 특정사건이 자살을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자살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개입되는 것이다. 조기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간은 어떠한 참혹한 고통도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② 다수의 자살자들이 자살시도 전에 자살 의도를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암시한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다.

③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하는 고민을 계속한다. "죽을 거야"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고도 실제 심각한 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원래 죽을 맘이 없었다", "겁주려고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충동성을 돋우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살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④ 자살 시도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보다는 감정이 촉발되는 위기상황에서 밀물처럼 강력히 밀려왔다가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썰물처럼 사라지고 이후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살의 충동을 갖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적절히 위기개입을 해주면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⑤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살위험성이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이다.

문제 5 정답 :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이다. 따라서 불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사이버폭력예방 리플렛, 2015.
- 경상남도 진주교육청.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 2007.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를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2006.
- 교육인적자원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자료개발연구, 2007.
- 교육인적자원부.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고등학교), 2001.
- 구니자키 노부에 저, 윤나영 역.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킨다, 2009.
- 김준호, 김선해. 학교폭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청소년연수 제14권 2호, 2003;pp.5-47.
-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 2010.
- 대덕구청. "아이사랑프로젝트" 리플릿.
- 대법원.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2007.11.15.
- 여성가족부.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요령, 2007.
-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부모용), 2009.
-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교용), 2009.
- 유형근 외 3인. 집단따돌림에 갇힌 아이들, 학지사, 2010.
- 채혜선, 임미혜. 영유아 안전교육, 양서원, 20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년 조사 결과, 1998.
- 쿠키뉴스. 2011.7.10.
- 한국교육문제탐구. 바람 든 한국교육, 문음사, 2009.

참고사이트

- 건강샘 www.healthkorea.net
- 대검찰청 www.spo.go.kr
-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v.go.kr
-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www.suicide.or.kr
- 성폭력 · 유괴납치예방운동본부 www.cw112.or.kr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한국심리교육연구소 www.mindnlp.com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www.childsafedu.go.kr

2. 어린이 성폭력 예방

지도상의 유의점

사회의 고도화 등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장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폐해와 유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도한다.

1) 어린이 성폭력

(1) 어린이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위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이란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주로 아동 성학대라는 개념을 쓰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동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아동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위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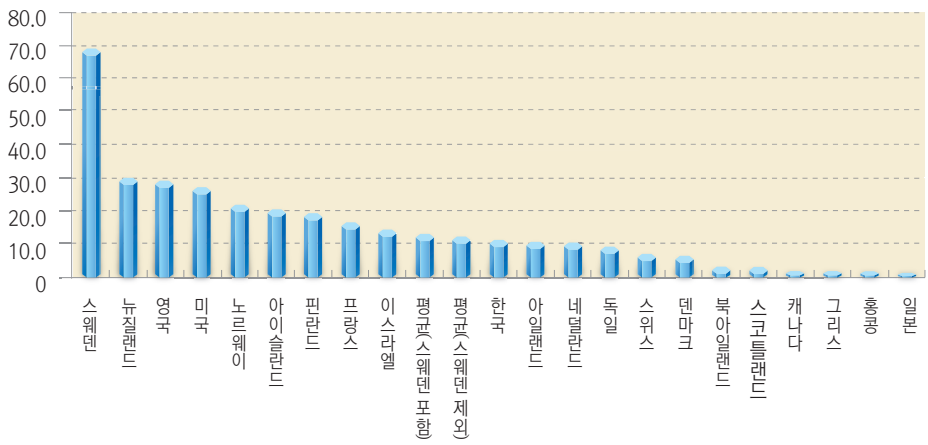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WHO의 정의]

아동 성학대는 어린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어린이가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어린이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 어린이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를 이용



[그림 3] 10만 명당 강간율

2013년 by unodc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흔히 성희롱 · 성폭력은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지만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청소년(13~20세)은 31%를 차지하며, 13세 미만 아동은 4.8%를 차지한다. 또한 2011년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자료에 의하면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81.4%이다. 그리고 어린이 성희롱 ·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가해자는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가해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 중 19세 미만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88.6% 증가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 2013)

요즘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은 어린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사회적, 성적 후유증과 더불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일생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성폭력 문제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평소에 개방적인 분위기로 어린이에게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생활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어린이 성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여러 형태의 강요가 이루어졌는지, 성기 혹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어린이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린이에게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결국 어린이 성폭력은 어린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① 대상별 어린이 성폭력

- 또래들이 화장실 훔쳐보기, 치마 들추기, 신체의 변화에 대해 놀리기, 일부러 몸을 부딪히거나 만지고 도망가기 등이다.
- 가족이나 친척이 속옷으로 가려진 내 몸의 소중한 곳을 만지려고 하는 경우이다.
- 주변에 아는 어른이나 오빠들이 내 몸을 만지는 경우이다.
-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거나 따라오라고 하여 몸을 만지거나 보여주는 경우이다.

② 행위별 어린이 성폭력

- 어른들이 자신의 성기를 어린이에게 노출시키면서 어린이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비밀스럽게 혹은 드러내놓고 어린이가 옷을 벗거나 목욕하는 모습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 등이다.
-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성폭력은 주로 어른들과 몇몇 운 나쁜 어린이들만 당하는 것이다.
- 실제라기 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나 거짓일 것이다.
- 가해자는 주로 낯선 사람들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 피해 어린이는 금방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 쉽게 알아챌 수가 있을 것이다.
- 어렸을 때의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어린이를 집밖에 나가 놀지 않게 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어린이 성폭력의 원인

① 개인적 요인

- 퇴행형 가해자 : 성인이 일차적인 성적 대상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특히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업적 · 사회적 · 성적 적응상태가 매우 약해질 때 성폭력을 하게 된다.
- 고착형 가해자 : 선택적 소아기호증이라고도 부르는 고착형 가해자는 일찍부터 성적대상이 아동으로 결정된 경우로 간혹 성인과 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인 성적 대상이 아동인 집단이고 동성 소아기호증이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

② 가족적 요인

근친 성폭력을 유발하는 가족유형은 첫째, 부부간의 성적 불화가 딸과의 근친 성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갈등회피형태이고, 둘째, 가족해체에 대해 공포가 있어 부녀의 근친성폭력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묶고, 부부간의 갈등을 약화시키는 갈등조정 형태가 있다.

남매간의 근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장한 후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남매간의 근친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대개의 부모들이 이 사건이 이웃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피해자인 딸에게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③ 사회 · 문화적 요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배와 성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한편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남성 중심의 성적 사회화 문화인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④ 심리적 요인

아동성폭력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일탈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어른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부모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의 대처방법을 평소에 교육시켜 두는 것이 좋다.

- 외출 시 만날 사람, 장소, 시간 등을 집안 어른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 등 · 하교 길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은 피하도록 한다.
- 모르는 사람의 차에 함부로 타지 않는다.
-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않는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공공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한다.

1단계 나의 몸은 소중해요.	나의 몸은 구조마다 다른 이름이 있고, 각기 하는 일이 달라요. 나의 몸은 소중해요.
2단계 나의 몸은 친구와 달라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 몸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3단계 타인의 몸도 소중해요.	•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 친구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친구의 몸도 소중해요. • 친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

[그림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3단계 성교육

특히 어린 아이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익혀 둘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어린이가 속옷을 입었을 때 '옷 안의 네 몸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하고 말해준다.
-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에게 가해자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 또는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고 알려주고 "싫어요. 비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라고 주의를 준다.
-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 줄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지 않는다.
- 어디 갈 때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알리도록 한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 공공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한다.
-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엄마, 아빠 외는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절대로 옷을 벗으면 안됨을 강조한다.
- 누군가 속옷 속의 내 몸(가슴, 생식기)를 만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도망친 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도록 가르친다.
- 성범죄자가 아무리 범행 의사가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범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은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 조금이라도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 선생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도록 가르쳐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4)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대처하기 쉽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믿을 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① 눈동자를 보고 당당하게 "싫어요." 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② 틈을 이용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③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④ 아는 사람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어린이 성폭력 전담 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3 K-Tertle 7층/02-3274-1375/www.child1375.or.kr)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82)

이야기 해주기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는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아동성폭력범죄에 피해자가 된 순간부터 피해아동과 그 부모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육체적 · 정신적 · 감정적 고통에 휩싸이고 평화롭던 가정이 일순간에 악몽 속에 빠져들게 된다. 피해아동의 가족은 자신의 보호 소홀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학과 과도한 음주 · 흡연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피해의 대상이 된 후 직장생활 및 생업에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실직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아동의 피해회복과 범인을 찾는 데 많은 비용을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겪게 된다.

2) 어린이 유괴

지도상의 유의점

유괴는 의사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유괴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유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 어린이 유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괴는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억류하는 범죄이다.

또한 납치는 유괴의 일종이며, 이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의 구속보다는 주로 범죄자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비행기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로써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 기망 ·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 한다. 따라서 약취와 유인을 총칭하여 유괴라고 정의한다.

이야기 해주기

유괴의 개념

아동 유괴의 경우, 독립된 단일 개념이 없고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 유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형법상 '아동 유괴범죄' 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다른 범죄와 경합* 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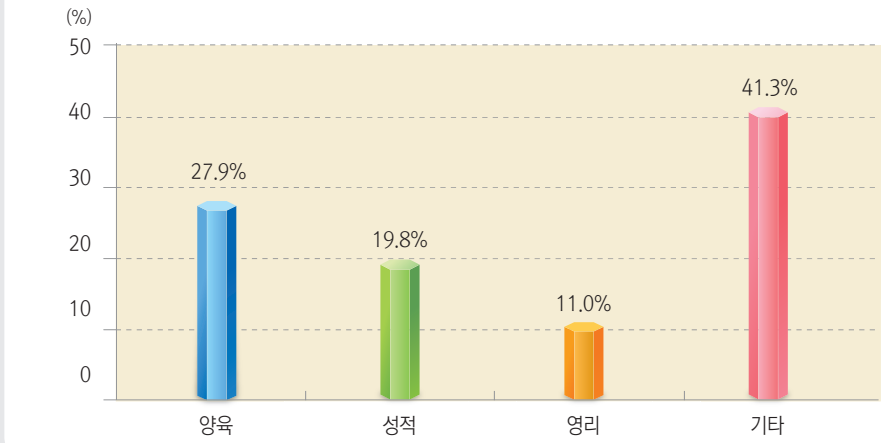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치는 유괴의 일종이며, 이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의 구속 자체보다는 주로 범죄자가 폭력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비행기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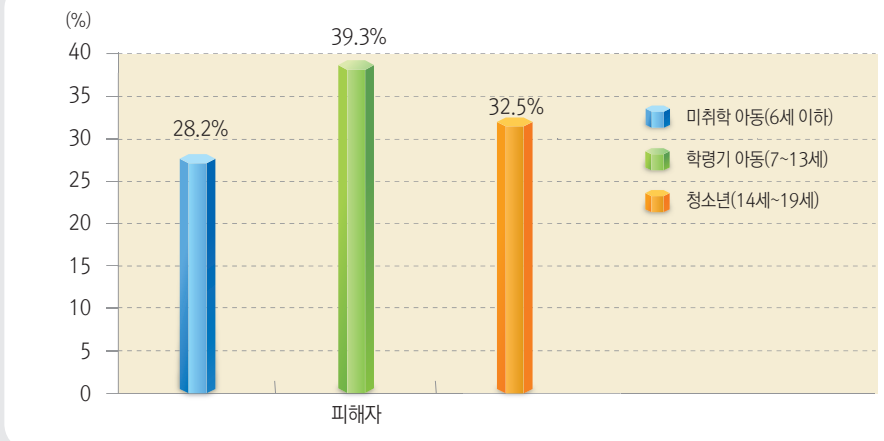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건이 59.2%로 비면식범(40.8%)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림 5]에서 기타목적은 복수와 단순한 애착, 특별한 목적 없이 충동에 의한 범행을 뜻하는데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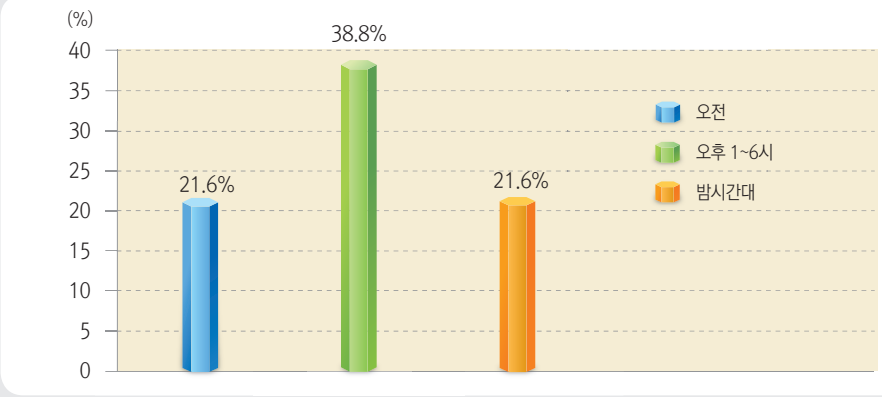


[그림 5] 유괴의 목적

피해자는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65.9%로 남자 어린이(34.1%)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가해자는 남자가 65.3%로 여자(34.7%)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6] 유괴대상



[그림 7] 사건 발생 시간

또 집 인근에서 유괴되는 경우가 가장 잦았고 학교 주변, 학원 주변이 그 뒤를 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1~6시가 가장 많아 어린이 유괴의 취약시간대이다.

(2) 어린이 유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호기심 유발형

• 과자나 선물을 사 주거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한다.
⇒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거절한다.

선물 등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괴한다.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돈을 이용한다.
•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는 식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용한다.
-〉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한다.

과자 및 선물을 사 주거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거절한다.

② 지인 사칭형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님을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한다.

⇒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부모님의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유괴한다.
-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가장하여 걱정과 공포심을 이용한다.
- 유아의 옷이나 가방에 새겨진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이름을 대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며 접근한다.

-〉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님은 친구, 친척이라며 같이 가자고 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③ 동정심 유발형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 달라고 한다.

⇒ '같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싫다고 말한다.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유괴한다.
-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가장하며 유인한다.
- 경찰이나 조사관을 가장하여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아동에게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는 권위를 이용한다.

-〉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어요,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싫다고 말한다.

④ 강제 유괴형

-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가자고 하거나 데려간다.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간다.
- 같이 가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위협과 공포심을 이용한다.
- 술이나 수면제 등이 들어 있는 약물을 이용한다.

-〉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가자고 하거나 데려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일반적으로 험상 궂은 인상의 사람이 유괴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괴범의 모습은 험상궂을 수도 인자하게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친절하게 말하고 선물도 주며 호감을 줄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괴범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유괴의 특징

- 아동이 가해자의 요구에 순조롭게 따랐든 아니든 상관없다.
- 거리와는 상관없이 아동이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옮겨지는 것
- 아동을 밤새 붙잡아 두고 있거나, 살해한다든가, 관계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감금시킨다든가, 아동을 영구적으로 데리고 있는 것
-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잡혀 있는 것
- 아동유괴의 목적은 피해자인 아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 범죄자의 범행의도를 뚜렷이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많고, 범행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해석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많다.

유괴의 목적

협박이나 폭행 등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유인하여 그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① 모성욕구 : 유괴 장소 부근에서 찾게 된다. 주로 병원에서 유괴를 하고, 유괴 장소 부근에 사는 경우가 많다.

② 성적 욕구 : 성적욕구 충족이 가장 대표적인 동기가 된다.

③ 경제적 이익 : 아동을 인질로 양육자에게서 물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④ 복수 :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보다 이혼상태이거나 양육권 분쟁 중, 아동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⑤ 살인 욕구 : 가해자가 유괴한 아동을 죽이는 경우에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이미 살해하기로 계획한 경우가 많다.

(3) 유괴범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1단계 : 기회 엿보기

유괴범이 범행 대상을 찾는 단계입니다. 보통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눈여겨봅니다.

예방법)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도록 합니다.

2단계 : 탐문하기

유괴범이 범행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어린이에게 다가가 어린이와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어린이가 저항하거나 의심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법) 낯선 사람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3단계 : 유괴하기

유괴범이 어린이를 범해 장소로 데려가는 단계입니다.

예방법)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도록 합니다.

(4) 유괴 예방 3단계 구호, 이렇게 해요

낯선 사람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 구호를 꼭 기억하세요.

① 안돼요!

낯선 사람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큰소리로 "안돼요!"라고 외쳐요.

② 싫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싫어요!"라고 말해요.

③ 도와주세요!

위험할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고,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고 112번으로 전화해서 도와 달라고 말해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OS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경찰(혹은 보호자)에 말없이 신고하여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서비스 유형 및 내용

- 원터치SOS :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 여성
  - 근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시 단축번호를 눌러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112 긴급신고 앱: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 여성
  -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경찰청 제작) 무료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위급상황 시 앱의 '긴급신고하기'를 길게 터치하여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 U-안심 :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전용단말기 소지자
  - 전용단말기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유 괴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트리아 소녀 나타샤 캄푸쉬는 "오직 범인이 시키는 대로만 서거나 앉거나 걸을 수 있었다. 일어날 때도 앉을 때도 범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뻗기 전에도 물어봐야 했다."고 말했다.

등굣길에 유괴됐던 10세 소녀는 5㎡의 지하방에 감금된 채 8년을 보냈다. 하지만 학대, 구타, 굶주림 속에서도 소녀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8세가 되던 해 탈출에 성공했다.



1991년도에 이모 어린이가 어느 날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 유괴범에게 납치되었다. 유괴범은 공중전화로 부모에게 7천여 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다. 이모군의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유괴범과 44일 동안의 기나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44일 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이군은 한 토끼굴이라 불리는 한강의 굴 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였다. 부검 결과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위에서 발견 되었던 것으로 볼 때 유괴한 뒤 바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44일 동안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다. 이군을 살해한 유괴범을 아직도 잡지 못했다.

(5) 유괴,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이렇게 해요

① 유괴 예방

-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다.
- 모르는 사람이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는다.
-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는다.
-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허락을 받아야 한다.
- 모르는 사람이나 차가 가까이 오면 멀리 떨어지도록 하며, 자동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는다.
-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안전한 큰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 외출할 때는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약속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있으며, 누군가 찾아오면 쉿!하고 없는 척 한다.
- 위협을 느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평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동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한다.
-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② 대처방안

-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안돼요! 싫어요!”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친다.
-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 낯선 사람을 만난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곳 (아동지킴이집, 친구 집, 가게, 상가, 학교 등)으로 가서 집에 전화한다.
-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 갈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빨리 알린다.

과자를 사 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거나,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거나,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 안내를 부탁한다거나 기타 강제적인 납치 등으로 유괴하여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있으므로 그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① 예방 방법

• 아동의 예방 방법

〈낯선 사람과 단 둘이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만약 함께 탄 경우 절대로 상대방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되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만일의 경우 다음 층에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버튼 바로 옆에 선다.

• 부모님의 예방방법

어린이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유괴에 대해 이해하고, 유괴범의 유인행동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고로서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과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한다.〉

-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낯선 사람과의 거리는 내 팔 길이의 2배 만큼 떨어지도록 가르친다.〉

-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내 팔 길이의 2배가 되는 만큼 떨어지도록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망칠 수 있다.

〈낯선 사람의 차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타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나쁜 사람들도 옷을 잘 차려입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 이런 사람은 남자나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일 수 도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도록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잠그게 하고,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게 한다.〉

-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집에 혼자 있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경우〉

- 열쇠를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되고, 집에 아무도 없어도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들어가도록 한다.

〈가족의 사고소식 등 어린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낯선 사람이 와서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어린이를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하면 직접 부모님께 확인해 보도록 가르친다. 또한 가정에서도 평상시에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해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를 대신 데려오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어서 어린이가 속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부모의 허락 없이는 받아먹지 않도록 한다.〉

〈외출할 때에는 부모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유치원이나 친구 집에 갈 때에는 안전한 큰 길로 다니게 하며, 혼자 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살고 있는 동네까지 분명하게 외우게 한다.〉

- 집 전화번호와 지역번호도 외우게 한다.

〈비상시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전화번호 '119'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중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때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위험한 장소란 어떤 곳인가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본다.〉

-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 엘리베이터, 빈집이나 공터, 공원, 높은 울타리가 이어지는 길, 쇼핑센터 등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친다.〉

-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훈련시킨다. 어린이가 망설이면 끈질기게 따라와 차마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함께 연습해 본다.
  -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잘 몰라요."
  - 설문조사 핑계로 선물을 준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 모델로 스카우트하겠다고 하면 "관심 없어요."
  - 힘들어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 **낯선 사람이**



-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 빨리 가보자"
- (차 안에서) "학교(병원 · 학원 등)를 찾는데 도와줄래"
- "친구들이 저기서 너 기다리고 있던데 같이 가자"
- "저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하던데, 구경 가자"
- "엄마친구야, 아줌마랑 엄마 있는 데 같이 가자"
- "집이 같은 방향이네 태워다 줄게"
- "게임 카드를 보여주며" 같이 갈래? 사줄게"
- "새로 생긴 학원에서 선물도 주는데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 안전 지킴이」로 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상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하게 합니다.**

아이이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출처 : 경찰청

② 대처방안

유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와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 어린이 범죄자가 구타를 하거나 유괴를 하려는 경우의 행동 요령
-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의 고함소리는 "아악"이 아니라 "살려 주세요"라고 명확히 말한다.
- 만약 범죄자가 입을 틀어막았다면 그 사람의 새끼손가락을 잡아서 떼어내면 어린이의 힘으로도 충분히 어른 손을 쉽게 떼낼 수 있다.

〈평상시에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해둔다.〉

- 갑작스런 위험상황에서는 당황하여 고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므로 평상시에 "안돼요! 싫어요! 살려주세요, 저리 비켜요" 등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연습해둔다.

〈만약 범죄자에게 이미 잡힌 경우의 행동 요령〉

- 침착하게 도망갈 기회를 노린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올 상황이 안 되는 곳에서 강한 반항은 오히려 범죄자를 자극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빈틈을 노려 도망갈 기회를 보도록 한다.

③ 유괴를 당하는 순간 이렇게 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괴를 당하는 순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물건을 던져요 : 우선 주변의 시선을 끌어야 하니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가방, 책 등)을 던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 큰소리로 외쳐요 :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를 외쳐요.
- 바닥에 드러누워요 : 유괴범이 데리고 가기 어렵도록 체중을 실어 땅에 눕습니다.

④ 유괴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요.

- 유괴범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유괴범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 유괴범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은 유괴범을 자극할 수 있어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괴범의 지시를 따릅니다.
- 마음을 진정시켜요.

  유괴를 당하면 겁나고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 범인의 차량 번호를 외워요.

  유괴범의 차를 탈 때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주의하여 차량번호를 외웁니다.
-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지켜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면 더 겁나고 두려워요. 밥을 잘 먹고 아프지 않도록 합니다.
-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기억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기다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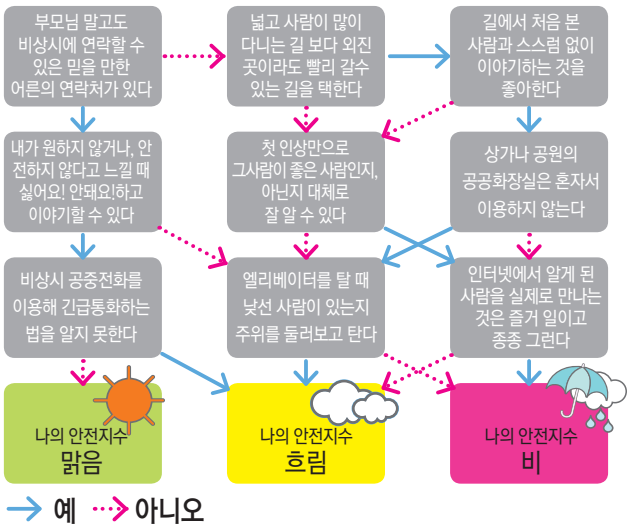
각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 달라 해요.

⇒ 혼자 집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 주지 않아요.

-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최신 게임기를 준대요.
  ⇒ 부모님 허락 없이 길거리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은행에서 만났는데 나를 데려 오라고 했대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 엄마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해도 먼저 엄마에게 확인해요.

나의
안전 지수는?



이야기 해주기

우리동네 실종아동 정보 페이스북에서 바로 본다

아동이 실종되면 빠른 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종된 동네 주민의 페이스북에 공지하는 실종 경보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앰버 경보'(Amber Alert)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발령된다. 페이스북은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실종이 발생한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가 보내진다. 경찰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1천 400만 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우리동네 실종아동 정보 페이스북에서 바로 본다 (연합뉴스, 2015.5.5)

함께해보기 !

퀴즈 퀴즈

① 1. 밖에 놀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모님과 집에 계신 어른들께 꼭 말씀드려요.

B. 나가서 놀고 돌아온 다음에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C. 종이에 적어놓고 나가면 되요.

정답 : A. 부모님과 집에 계신 어른들께 꼭 말씀드려요.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나가도 보지 못하실 수 있으니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와 만나는 지를 말씀 드립니다.

②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혼자 다녀요. 덩치가 커서 혼자 다닐 수 있어요.

B.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더 재미있어요.

C. 빨리 가려고 어두운 지름길로 다녀도 괜찮아요.

정답 : B.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녀요. 더 재미있어요.
길이 빠르다고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로 다니지 말고 환하고 넓은 길로 친구들과 함께 다니도록 합니다.

③ 모르는 어른이 도와달라며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B. 도망쳐요.

C. 어른들의 차를 함께 탄 후 도와드려요.

정답 : A.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절대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해요.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라고 외치고 밝고 사람들 많은 곳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구해요.

④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문을 열어드려요.

B. 혼자 있다고 말해요.

C. 가만히 "쉿!" 하고 있어요.

정답 : C. 가만히 "쉿!" 하고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열러달라고 할 때는 일단 아무소리 안내고 "쉿!"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실꺼예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거나 부수려고 하면, "엄마! 아빠!"를 외치고 나중에 오시라고 말하거나 112로 전화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출처 : 주니어 네이버

실종

실종아동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실종아동이라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이라 말한다.
기아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말한다.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소년"이라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말한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실종아동.가출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등의 관계로 사실상 실종아동. 가출인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실종아동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을 말한다.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으로 행정관청에 설치신고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
행불자	실종아동 등 가출인 중 합동심의회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한 대상자를 말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치매노인	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의한 치매질환자는 정신지체장애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실종예방을 위한 어린이 지침

(1) 내가 어디 있는지 늘 부모님께 알리기

(2) 나갈 때 부모님 또는 집안에 계신 어른들께 허락 받기

(3) 내 이름,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기억하기

(4)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 또는 '긴급전화 112'에 전화하기
(5)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 선물 등을 받지 않기
(6)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2) 실종예방을 위한 부모님 지침

(1)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기
(2)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님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
(3) 자녀의 정면사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미리 찍어두고 항상 소지하기
(4) 자녀의 신상정보는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옷 안쪽, 주머니 등)에 기입하거나 넣어주기
(5)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몇 번씩 같이 연습 해보기
(6) 부모와 헤어졌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게 가르치기
(7) 길을 잃었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 또는 '긴급전화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치기
(8) 실종예방 3단계 구호(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를 암기시키기
(9) 외출 시 자녀의 착의사항을 기억하기

3)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실종아동들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3)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이가 잠깐 한 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다.
(4)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다. 아이가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5)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본다.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의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두는 경우가 많다.

(6)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준다.
(7)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둔다.

4) 실종아동 신고방법(발생 시)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에 신고방법
1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단계 :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 실종아동발견 신고방법(보호 시)
1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단계 :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5) 실종상황 시 대처방법

(1)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한다.
(2) 아이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 확인하고, 주변에 아이에 대해 물어본다.
(3)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최근 사진, 신체특징,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트위터(missingchild182)에 게재한다.

〈아이들에게 평소에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2) 보호자와 헤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만났던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평소에 지도하며, 경찰관이나 인근 슈퍼 등에 근무 중인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알려준다.
(3)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112에 신고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6)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사회안전망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출처 : 경찰청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를 하는 한편 지구대와 핫라인 등을 통해 경찰과 연계한다.

Best Tip 실종예방 구호 3단계

1. **멈추기** : 길을 잃거나 헤어지면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한다. 부모는 역시 자녀가 사라지면 왔던 길을 되짚어 가봐야 한다.
2. **생각하기** : 자신의 이름과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을 10번씩 외우며 기다리도록 한다.
3. **도와주세요** : 주위에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전화 112' 또는 182를 눌러 경찰아저씨나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출처 : 경찰청

생활 속의 어린이안전 실천 수칙

1.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먼저,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춘다. 차가 오는지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고,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차량이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 후 손을 들고 차를 보면서 건너가도록 한다.

2. 어린이는 전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플러그나 잭을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하고,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부모님에게 먼저 사용법과 주의점을 듣고 사용하도록 한다.

3.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으면 당황하여 달리지 않고 멈춘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구른다. 친구들은 옷을 벗어서 불을 꺼주고, 물을 가져와 뿌려준다.

4.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맨발로 놀면 유리조각이나 돌 등에 의해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놀이기구별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배우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논다. 옷은 활동하기 편하고 몸에 잘 맞는 옷으로 입는다. 끈이 달려 있는 옷을 입으면 놀이기구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공공장소에서 자주 이용하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안전선 내에서 바른 자세로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이동한다.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한다.

6.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싫어요." 또는 "만지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 또는 친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문제 1 우리 나라의 어린이 사고유형과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이 제일 높다.
② 취학 아동보다 미취학 아동 사고가 많다.
③ 여아보다 남아 사고가 월등히 많다.
④ 보행 중 사망 사고는 이면도로 횡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 2 장소별 사고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가구를 창문 가까이 둔다.
② 주방 사고 예방을 위해 칼이나 가위 등 다칠 우려가 있는 주방용품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③ 욕실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욕실바닥에 물건을 늘어놓고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어린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에서 걸어가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게 한다.

문제 3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② 한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③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④ 불꽃의 위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뒤로 뿌린다.

문제 4 놀이터 사고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려야하며 그넷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고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앞사람과 함께 올라가서 탄다.
③ 시소 등 흔들 놀이기구를 탈 때는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으며 두 손으로 손잡이를 반드시 꼭 잡고 타야 안전하다.
④ 회전하는 놀이기구에서는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문제 5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승강장 안의 바닥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탄다.
② 갇혔을 때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려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거나 문에 기대어 서지 않는다.
④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탄 채로 서지 않는다.

문제 6 어린이 유괴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아도 따라가지는 않는다.
②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주지도 말고 따라가지 않는다.
③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길로 오도록 한다.
④ 값비싼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 ❹

해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이 65%를 육박하고 있으며, 보행 중 사망 사고는 무단횡단, 횡단보도 횡단 등 도로횡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학 아동보다 미취학 아동 사고가 많고 여아보다 남아 사고가 월등히 많다. 보행 중 사고는 대부분이 아동이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만 꾸준히 실시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 2 정답 : ❶

해설 : 장소별 사고 대처방안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구를 창문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의자, 침대, 책상 등 아이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를 창문 옆에 두지 않는다. 평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는 것을 삼간다.

문제 3 정답 : ❹

해설 :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 소화기 의 안전핀을 뽑는다. → 한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 불꽃의 아래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뒤로 뿌린다

문제 4 정답 : ❷

해설 :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을 한 개씩 올라가고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끄럼판에서 내려올 때는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오고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부딪히지 않도록 빨리 자리를 비켜주며 가방이나 장난감을 들고 타지 않도록 한다.

문제 5 정답 : ❷

해설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서 갇혔을 때는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려야 하며,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나간다.

문제 6 정답 : ❹

해설 :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도 먹지도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그 곳에서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는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올 때는 안전한 큰길로 다니며 혼자 놀지 않고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다.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서 놀지 않도록 한다. 평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동네 어디에 있는지 기억한다.

참고문헌

- 도로교통공단. 신호등지, 2010~2011.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 1999.
-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부모용), 2009.
-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학교용), 2009.
- 윤선화. 안전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 I , 한국생활안전연합, 2004.
- 윤선화. 안전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 II, 한국생활안전연합, 2004.
- 윤선화.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 한국생활안전연합, 2010.
- 유형근 외 3인. 집단따돌림에 갇힌 아이들, 학지사, 2010.
- 장희주. 유아의 사고위험 지각과 가정안전 환경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2006.
- 채혜선, 임미혜. 영유아 안전교육, 양서원, 20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년 조사 결과. 1998.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 2003.04.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안전 실태조사, 2011.
- 행정안전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 365일, 2009.
- 허 억. 엄마는 교통안전 선생님, 1995.
- Hendricks,C.M., & Reichert, A. Parents self 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1996;66:247-251.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 2013.

참고사이트

- 어린이안전학교 www.go119.org
- 현대자동차 www.happyway-drive.com
- 성폭력 · 유괴납치예방운동본부 www.cw112.or.kr
- 세이프키즈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www.safia.org/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http://www.isafe.go.kr

6. 보건 안전



6-1. 식품 안전 / 454

6-2. 중독 안전 / 466

6-3. 감염 안전 / 472

6-4. 응급처치 / 499

6-1. 식품 안전

Ⅰ. 단원 개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의식주의 하나인 식품에 의한 사고를 들 수 있다. 식품에 의한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습관, 환경구성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Ⅱ. 단원 목표

식품에 의한 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Ⅲ.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 사고사례 원인 및 분류 대처방안	• 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사고원인의 분류와 대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식품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도한다.

1) 발생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은 '식료품 및 기호품' 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4).

원인으로는 이물, 부패, 변질, 식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 내' 가 가장 높았다.

가정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때,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 · 보관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였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표〉 국내 10년 간 식중독 발생 현황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	발생건수	4	2	3	16	12	16	11	13	15	6	5	6	109
	환 자 수	142	78	44	865	689	1,062	346	639	788	51	449	558	5,711
2006	발생건수	6	4	8	8	6	56	31	42	35	15	8	40	259
	환 자 수	52	52	319	75	809	4,567	348	1,514	1,161	216	190	1,530	10,833
2007	발생건수	31	28	41	42	65	56	49	76	44	25	32	21	510
	환 자 수	730	277	820	959	1,296	1,803	849	754	1,343	287	294	274	9,686
2008	발생건수	13	14	23	31	28	36	28	38	51	37	29	26	354
	환 자 수	177	144	680	751	627	1,256	354	538	1,207	454	440	859	7,487
2009	발생건수	14	22	20	26	36	29	20	18	20	7	7	9	228
	환 자 수	126	279	753	709	1,232	1,318	378	324	301	416	40	123	5,999
2010	발생건수	9	17	15	20	15	29	34	41	35	18	15	23	271
	환 자 수	142	430	364	893	201	1,908	561	770	783	335	362	469	7,218
2011	발생건수	11	14	21	26	19	35	23	38	25	9	16	12	249
	환 자 수	137	351	690	827	1,017	414	740	1,482	809	194	267	177	7,105
2012	발생건수	9	21	11	17	28	27	20	28	38	24	17	26	266
	환 자 수	294	392	296	387	680	503	300	590	1,403	189	346	678	6,058
2013	발생건수	22	4	19	24	20	24	26	15	18	15	21	27	235
	환 자 수	286	50	327	896	252	677	611	405	450	141	492	371	4,958
2014	발생건수	9	14	24	22	35	36	33	43	27	24	32	50	349
	환 자 수	56	80	1,063	371	1,548	955	484	1,429	261	257	342	620	7,466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중독 통계

식중독이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일어나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해를 말하며, 우리 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중독의 정의

※ 식품위생법(제2조 제14항)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WHO(세계보건기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날이 더워지면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식중독은 음식물의 위생관리만 잘하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위생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고사례

식중독 사고

더운 날에는 음식물을 실온에 오래두지 않는다.

지난 4월 산악회 총무인 K씨는 동네에서 김밥을 단체로 구입한 후, 산악회원 수백 명과 산행을 하면서 야외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산악회원 수백 명이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단체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3) 원인 및 분류

(1) 식중독에 의한 사고

① 원인

최근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이 1, 2위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육류, 어패류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충분하게 가열 ·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실온에 음식을 보관한 뒤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 오염된 어패류(생선회, 굴, 조개) 등을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 오염된 주방기구로 처리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74℃,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59℃)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살균 · 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씻기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을 부주의한 경우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② 증상

음식섭취 후 6~48시간 내에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증세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급하게 먹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아야 한다.

서울에 사는 A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간 색 젤리를 사먹었다. 급하게 먹다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게 되었고 뱉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딸의 안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몰라서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도 쳐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 드디어 A양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A양은 의식이 없어지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4) 대처방안

(1) 식중독에 의한 사고

식중독은 흔히 음식점에서 사먹는 경우에나 생기는 병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식사 전, 조리 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음식물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으며, 맛이 이상하면 버려야 한다.
- 신선한 식재료는 한 번에 먹을 분량만큼만 구입하여 조리한다.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 칼, 도마, 행주 등 주방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제로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1]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특히, 올바른 손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식재료 취급 전 · 후,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 · 후 등이나 음식물을 만지기 전, 손이 비위생적인 곳에 접촉한 경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은 모든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손 씻기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2) 어린이 식품사고 예방법

① 식사 시 주의사항

- 뜨거운 국이나 밥 등은 잘못하면 화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식사 전 ·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주변을 청결히 해야 한다.
-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색깔이 변색된 경우, 또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등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이야기를 해야 한다.
- 복용하는 약이나, 몸 상태에 알맞지 않은 음식이 있는지 주의 깊게 체크하여 먹도록 하며 알 수 없는 음료수나 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② 이물이나 식품에 의한 사고

- 영 · 유아가 견과류 · 둥근 사탕 · 포도 · 방울토마토 등을 먹을 때에는 주의한다.
- 음식은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 먹는다.
- 급 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 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선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
-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는다.
-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대화하거나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는다.
- 작은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지 않는다.



[그림 2] 식중독 예방 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함께해 보기 1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

① 식중독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 원인을 생각해 보자.

정리하기 !

식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습관을 만들어 보자.

① 식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습관을 적어보자.

-
-
-
-
-

②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1)

2)

3)

이야기해주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식품 이물 발생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 : '11년 7,419 → '12년 6,540 → '13년 6,435 → '14년 6,419

이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10)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의 원인조사, 제조현장에서의 이물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노력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 지난해 신고 된 이물은 벌레, 곰팡이, 금속 등의 순이었으며, 이물 발생률이 높은 식품은 면류, 과자류, 커피, 빵 · 떡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의 종류로는 벌레(2,327건, 36.3%) > 곰팡이(667건, 10.4%) > 금속(433건, 6.7%) > 플라스틱 (316건, 4.9%) > 유리(101건, 1.6%) 순이었다. 식품 종류별 이물 발생률은 면류(910건, 14.2%) > 과자류(735건, 11.5%) > 커피(723건, 11.3%) > 빵 · 떡류(506건, 7.9%) > 음료류(493건, 7.7%) 순으로 나타났다. ('14년도 식품 중 이물 발생 신고 및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5. 4. 9)

생활 속의 가정안전 실천 수칙

1. 가정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둘째, 항상 안전을 고려한다. 셋째, 비상 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둔다.
2. 가정 내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 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전화를 하도록 한다.
4.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척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은 보기 쉽게 표기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특히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문제 1 유치원을 다니는 딸이 있는 가정에서 주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스 불이나 뜨거운 주방기기, 기름에 주의한다.
㉡ 유리제품은 흠집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스불을 켜기 전에 가스기 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칼, 가위 등 주방용품은 조리할 때 눈에 띄고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둔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문제 2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해야 하는 번호는?

① 119 또는 1588-7500
② 112 또는 1577-7500
③ 119 또는 1588-8282
④ 112 또는 1577-8282

문제 3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아닌 것은?

① 음식을 하는 개인의 손 세척 소홀, 비위생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조리 후 음식물을 0℃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③ 기구와 용기를 살균 · 세척 없이 사용할 때
④ 식품원료가 위생적이지 않을 때



문제 1 정답 : ❸

해설 : 칼, 가위 등의 주방용품은 어린아이 등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문제 2 정답 : ❶

해설 : 전기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속히 전화해야 한다.

문제 3 정답 : ❷ 손

해설 : 식중독은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59℃)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참고문헌

- 가리키 히데아키. 생활 속의 음식독물 60, 국일미디어.
- 강성희. 가정 내 영 · 유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3.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안전과 건강, 2010.
- 이명선. 안전보건학, 계축문화사, 2001.
- 이의평. 가정 내 사고의 발생실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005;19(4):7-17.
- 장희주. 유아의 사고위험과 지각과 가정안전 환경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2006.
- 한국산업안전공단. 가정생활의 안전실천은 이렇게, 2002.
- 한국소비자원. 주방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2010.08.
- 한국소비자원. 노인 생활안전 사고 실태조사, 2007.08.
- 한국소비자원. 가정 내 전기제품 안전실태 조사, 2004.12.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 2003.04.
- 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교재, 2009.
- Hendricks,C.M., & Reichert, A. Parents self 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1996;66:247-251.
- CPSC Final Rule: Requirements for Child-Resistant Packaging.

참고사이트

- 세이프키즈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www.safia.org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넷 http://www.ciss.or.kr/index.jsp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http://www.isafe.go.kr
-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www.kesco.or.kr

6-2. 중독 안전

I. 단원 개관

가정 내외에 방치된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위험요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익힌다.

II. 단원 목표

유동성 물질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III.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현황 사고사례 원인 및 분류 대처방안	• 유독성 물질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 유독성 물질로 인한 가정 내 사고현황 및 대처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중독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이 장에서는 가정 내 유독성 물질로 인한 사고를 이해하고 그 위험성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도한다.

1) 발생 현황

가정 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는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중독사고 피해를 입고 있다.

〈표 1〉 최근 3년 간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중독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발생건수	388건	352건	264건	1,004건
증 감 률	-	↓9.3%	↓25.0%	

사고 장소의 경우 전체의 86.6%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외 보육시설 등이 많은 것을 볼 때, 가정 내 어린이 중독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가정 내 사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정에서 상비하는 감기약, 해열제, 피임약, 안약 등도 다수 발견되어 가정 내 의약품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표 2〉 위해품목별 현황

발생품목	건수	비율	발생품목	건수	비율
의약품	258	(25.7)	손세정제	14	(1.4)
살충제	68	(6.7)	탈취제	14	(1.4)
표백제	64	(6.4)	식기세척용품	11	(1.1)
비누 & 세탁소용제	33	(3.3)	담배	11	(1.1)
기타 어패류 & 어패류가공식품	28	(2.8)	방향제	10	(1.0)
메니큐어용품	22	(2.2)	접착제	10	(1.0)
소독살균제	18	(1.8)	세정제	9	(0.9)
체온계	16	(1.6)	화장품	8	(0.8)
방습제	14	(1.4)	기타	396	(39.4)
합계				1,004	(100.0)

2) 사고사례

약물오남용에 의한 사고사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1. 최근 2세 된 B가 집안에서 할머니가 드시는 약을 집어 먹고 전신쇠약증 및 눈이 돌아가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2010년 1월, 5세 C 여아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화장대 위에 있던 아세톤 뚜껑을 열고 20cc 가량을 먹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인 및 분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는 주로 가정 내외에 방치된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로서, 의약품 등의 정상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는 구별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중 기침약, 아스피린 같은 비처방 의약품과 처방약, 가구광택제 및 배수관 클리너, 구강청결제, 접착제 같은 화학제품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의 내용물을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먹을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약품의 아스피린 성분을 가진 해열진통제는 이명, 발열, 의식장애, 시력장애, 경련, 두드러기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의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리도카인 성분을 지닌 국소마취제는 경련이나 혼수상태,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프록센 성분의 소염진통제는 설사, 복부통증 등 위장의 합병증, 현기증, 두통, 이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정용 화학제품인 가정용 세척제, 구강청결제, 화장품, 살충제 등을 잘못 먹는 경우, 가정용 세척제는 입이나 식도염증, 소화관 천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강청결제의 에탄올은 과다복용의 경우 사망과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과민성, 신진대사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하이드로카본(Hydrocarbons)의 성분으로 폐에 직접 흡입될 경우 화학적 폐렴, 구토나 두통, 심할 경우 뇌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약품 및 화학제품 종류 및 부작용

의약품 종류 및 부작용

가정에구분	성분	독성 및 부작용
해열진통제	Aspirin	귀울음, 발열, 의식장애, 시력장애, 경련, 두드러기나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지사제	Lopermide	현기증, 구토, 복부팽창 · 장애,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
국소마취제	Lidocaine	경련, 혼수상태, 호흡곤란 등
소염진통제	Naproxen	설사, 복부통증 등 위장의 합병증, 현기증, 두통, 이명 등
발모촉진제	Minoxidile	혼수상태, 심장손상, 부종, 협심증 악화 등

가정용 화학제품 종류 및 부작용

구분	성분	독성 및 부작용
가정용 세척제	Potassium Hydroxide	입이나 식도 염증, 소화관 천공, 호흡곤란, 쇼크, 식도나 유문(위의 출구) 협착증세
구강청결제	Ethanol	과다 복용의 경우 사망과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는 과민성, 무기력 반응, 신진대사 합병증 등
화장품	Hydrocarbons[1)]	폐에 직접 흡입이나 토할 경우 화학적 폐렴, 구토나 두통, 심할 경우 뇌질환, 사망
살충제	Pyrethroid	흥분, 손발 떨림, 전신경련, 호흡곤란

출처 1. CPSC Final Rule: Requirements for Child-Resistant Pacakaging
2. 가리키히데아키. 생활속의 음식독물 60. 서울: 국일미디어

4) 대처방안

가정 내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삼킴이나 흡입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세척제, 화학약품 등은 보기 쉽게 표기를 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 장기 복용 약품 등은 보기 쉽게 표기를 하여 오용하지 않도록 한다.
- 식품 용기에 화학물질, 농약 등을 담아두지 않도록 한다.
- 노인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 쉬운 표현, 눈에 잘 띄는 위치 등에 표시를 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화학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 수돗물 등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씻어 낸다.
-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 품목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화학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싱크대 밑 공간에 보관하기보다는 되도록 높은 위치의 수납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살충제를 집안에 설치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가방이나 침실 탁자 속에 보관하지 말고 되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밖에도 제품 구입 시 '어린이 안전 캡'이 달린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모든 제품은 원래 담겨 있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보호원(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에서 발표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매번 쓸 때마다 용기를 꽉 닫고 어린이 안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모든 화학제품과 의약품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독극물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극물통제센터에 연락한다. 구토제를 상비해 두고 있으면서 독극물통제센터에서 그 구토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④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아이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전화를 받는 다거나 현관문을 열어 주기 위해 나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⑤ 모든 물품을 원래 그 용기가 담겨 있는 곳에 둔다.
⑥ 모든 제품에 원래의 라벨을 그대로 붙여 두고 사용 전에 그 라벨을 숙지해야 한다.
⑦ 약을 주거나 먹을 때는 항상 복용량을 체크한다.
⑧ 어린이 앞에서 약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사탕'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어린이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⑨ 약품 보관함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버린다.

〈표 3〉 가정 안전 환경 체크리스트

안전문제	항 목
욕실	1.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장판이나 바닥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2. 좌변기 뚜껑은 사용 중이 아닐 때 반드시 내려놓으십니까?
	3. 유아를 목욕시킬 때, 온수의 온도를 확인하십니까?
	4. 유아에게 바닥에 물이 있는 화장실, 목욕탕, 수영장에서 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까?
	5. 욕실, 화장실 바닥 혹은 욕조에 고무매트나 안전발판과 같은 미끄럼 방지 장치가 깔려 있습니까?
	6. 살충제, 소독제, 세제 등은 화장실 바닥에 두고 사용하십니까?
주방	7. 주방에 칼이나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유아의 손이 닿을만 한 거리에 있습니까?
	8. 전기밥솥을 바닥에 놓고 사용하십니까?
	9. 유독물질을 음료수병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10. 유아가 가스 사용 중인 주전자, 냄비 등을 만지지 않도록 가르치십니까?
	11. 가스레인지 사용 후엔 꼭 중간밸브를 잠그십니까?
	12. 가스 연소 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십니까?
방과 거실	13. 모든 문이나 창문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4.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가 있거나, 전기 콘센트를 가구나 물건으로 보이지 않게 가려 놓으셨습니까?
	15. 유아에게 책상과 같은 바닥에서 떨어진 가구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르치십니까?
	16. 집 안 가구(책상, 식탁, 탁자 등)에는 모서리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17.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플러그를 빼놓으십니까?
	18. 피아노 뚜껑, 서랍, VTR,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9. 다리미 사용 시, 유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십니까?
	20. 유리를 사용하는 문이나 제품이 안전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계단	21. 옥상, 베란다, 창문에는 난간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22. 유아에게 계단, 난간,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까?
기타	23. 가정 내 가정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24.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 전면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붙여 놓으셨습니까?
	25. 비상구급약이 가정 내 비치되어 있습니까?
	26. 장난감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선하십니까?
어머니 안전 의식	1. 부모님께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님께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안전에 대하여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해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가정안전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주변의 사례를 자유롭게 얘기해 보자.

② 영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독성 물질사고가 왜 심각한지 토론해 보자.

정리하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가정사고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자.

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의 원인

-
-
-

②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예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칙을 만들어 보자.

-
-
-

6-3. 감염 안전

Ⅰ. 단원 개관

국내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국제 교류 활동의 증가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변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익힌다.

Ⅱ. 단원 목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경로를 이해하고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감염병의 종류나 발생 기전은 매우 복잡하므로 개별 감염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기 보다는 감염병의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이해하고 치료 방법이나 예방백신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해외 발생 신변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여행 시 주의 사항 등을 알려준다.

1. 감염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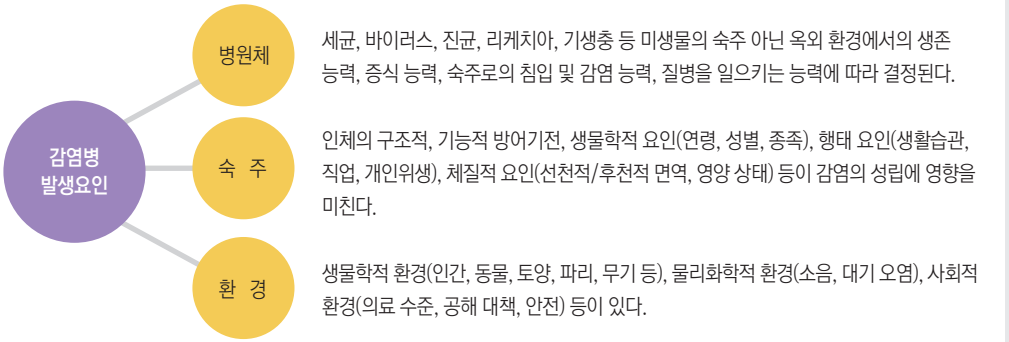
1) 용어 정의

구 분	의 미
신종 · 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기존에 알려진 감염병으로 최근 유행 우려가 높은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해외에서 발생하여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 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구 분	의 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격리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 또는 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일정기간 동안 자택이나 격리시설, 병원 등에 수용 또는 입원시켜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로부터 사람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
전염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해당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현상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2) 감염병의 발생인자

감염병의 발생에는 병원체, 환경 및 숙주의 3개 질병요인이 관여한다. 이들 요인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상태가 된다. 즉 숙주(사람)가 건강한 경우라도 침입한 병원체의 병독성이 강하면 발병을 하게 되며, 반면 병독성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저항력이 낮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림 1] 감염병의 발생 요인

3) 감염병의 분류

감염병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병원체, 발병 및 경과의 완급, 감염경로, 전파방법, 법률적 기준 등이 있다.

(1) 병원체에 따른 분류

원인 병원체	감 염 병
동물성 기생충	말라리아, 아메바증, 각종 기생충 질환
진균	캔디다증, 스포로트리쿰증
세균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임질
바이러스	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A형/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생물 병원체의 종류

- 동물성기생충 : 단세포 동물로 중간 숙주에 의해 전파되는 원충류(protozoa)와 숙주 몸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후생동물(metazoa) 등을 말한다.
- 진균 또는 사상균(fungus) : 곰팡이, 버섯, 효모 등의 아포형성 식물로 무좀, 습진 등의 피부병을 일으킨다.
- 세균(bacteria) : 가장 흔한 질병의 원인체
- 바이러스(virus) :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 유전자복제 능력이 없다. 생물과 무생물 중간에 해당되며 조직 세포 내에서 증식한다.

(2) 발병 경과의 완급에 따른 분류

종 류	감 염 병
급성 감염병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만성 감염병	결핵, 한센병, 매독

(3) 감염경로에 따른 분류

감염경로	감 염 병
호흡기 감염	인플루엔자,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결핵
경구 감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생식기 접촉감염	임질, 매독, 연성하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비임균성요도염,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
곤충/동물 매개감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뎅기열, 광견병

(4)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 제외), 제4군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며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분	법 정 감 염 병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 정*
특성	물/식품 매개, 유행 즉시 방역대책 (6종)	예방 접종 대 상 (12종)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19종)	신규 발생, 해외 유입 가능 (19종)	기생충 감염 (6종)	유행 여부 조사 · 감시
질환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C형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주기	즉 시	즉 시	즉 시	즉 시	7일 이내	7일 이내

* 지정감염병 세부내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1호(시행 2013.12.31) 참고】
제4군 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는 기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등으로 새롭게 출현할 인플루엔자를 말하며, 2009년 출현하여 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는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에 해당한다.

4) 감염병의 전파경로

(1) 비말 전파

5㎛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들이 기침, 재채기나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비강 또는 구강 점막에 튀어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말은 공기 중에 부유하지 못하며 대개 주변 약 1~2m 이내에 전파한다.

(2) 공기 전파

병원체를 포함한 5㎛ 이하의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감수성이 있는 환자가 이를 흡입함으로써 호흡기로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로로 전파되는 병원체는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3) 접촉 전파

병원체가 분비되는 환자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시 전파되는 경우이다. 환자와 악수 등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환자로부터 오염된 탁자, 손잡이 등 환경 표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감염된다.

(4) 매개체 전파

오염된 음식, 물, 혈액, 기구 등을 통하거나 모기, 파리, 진드기 등 매개충을 통하여 병원체가 전파되어 감염되는 경우이다.

2. 감염병 예방활동

감염병 예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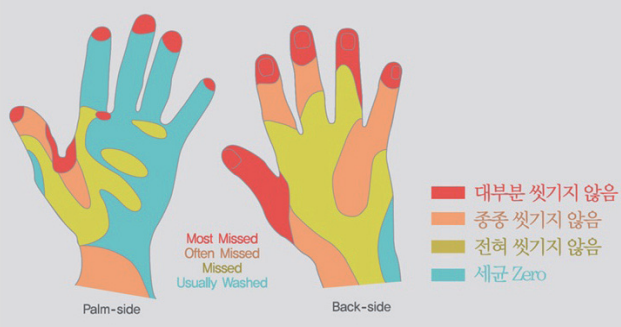
- 국가 : 감염병 홍보,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의 검역
- 지역사회(학교, 병원 및 보건소) :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학생 등교 중지, 감염병 진단 및 보고, 환자 격리 및 치료, 예방접종
- 개인 : 예방접종, 개인위생 관리(올바른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위생적인 음식 조리 등), 면역력 강화

1)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 것은 세균이나 먼지를 씻어내 주어 감염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1)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여주기 전
- 식탁 차리기 전
- 음식물을 조리하기 전
- 기침, 재채기, 콧물 닦기 등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후
-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 렌즈를 끼기 전
- 눈에 보이게 손이 더러워졌을 때
- 환자와 접촉 후, 환자의 옷을 만진 후
- 동물 혹은 동물의 분비물과 접촉한 후, 애완동물의 집을 청소한 후



[그림 2] 평소대로 손을 씻었을 때 세균이 제거되지 않는 부위

출처 : 서울삼성병원홈페이지

(2)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

①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 비누를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충분히 적신다.

- 충분한 시간(30초 이상) 동안 비누와 함께 손을 비빈다. (손을 씻는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손을 씻을 때는 손목,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가락 사이 및 손톱 밑을 철저히 씻는다.
- 손을 씻은 후에는 일회용 타월로 닦고 완전히 말린다.

②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씻기

- 물과 비누의 사용이 어렵고 눈에 보일 정도의 오염물이 묻어 있지 않으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독제의 알코올 농도가 60~90%일 때 최적의 살균력을 보인다.
- 한 손바닥에 적정량(보통 1~3cc)의 손소독제를 던다.
- 손과 손가락표면 전체에 골고루 바르고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른다.



[그림 3]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출처: 질병관리본부

2) 기침 예절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손을 닦는다.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림 4] 병문안 규칙과 기침 예절

출처: 질병관리본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그림 5] 올바른 기침 예절

출처: 질병관리본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3)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의 기본 원리

면역(immunity)은 자기 자신(self)의 물질과 외부물질(foreign material)을 구별하여 외부물질에 대항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 인체의 능력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면역체계에 의해 외부물질로 인식되므로 면역은 감염질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생물에 대한 면역은 대개의 경우 항체의 존재 여부로 알 수 있다. 면역은 특정한 균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미생물군에 특이적인 것이다.

면역은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능동면역(active immunity)과 수동면역(passive immunity)의 두 가지로 나뉜다. 능동면역은 자기 자신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대부분 영구적이다. 한편, 수동면역은 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역물질의 투여에 의해서 획득되는 면역력으로,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 소실되게 된다.

① 수동면역

수동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하여 얻게 되는 면역이다. 수동면역으로 감염이 어느 정도 예방되나 예방력은 일시적이다. 항체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소실됨에 따라 면역력이 없어지게 된다.

수동면역의 가장 흔한 형태는 영아가 모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임신 후반 1~2개월에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전해지고, 결과적으로 만삭의 영아는 엄마와 비슷한 정도의 항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항체로 인해 일부 감염병은 1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② 능동면역

능동면역은 항원에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반응 및 세포성 면역반응을 생성하도록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것이다. 수동면역과 달리, 능동면역은 대개 수 년 간 지속되며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능동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연면역과 예방접종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특정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직접 앓고 난 후 획득될 수 있는 자연면역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항원에 노출된 후 특정 세포들(기억 B세포; memory B cell; 골수 및 혈액에 존재)이 혈중에 수년 간

순환하는데, 특정 해당 항원에 다시 노출되면 이러한 기억 세포들이 증식하며 항체를 생산하여 빠른 시간 내에 방어 능력을 재확립한다. 이렇게 감염 후 수 년 동안 예방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면역기억 (immunologic memory)이라고 한다.

능동면역을 생성하는 다른 방법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다. 백신은 면역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흔히 자연감염과 비슷한 정도의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접종받은 사람을 그 질환과 그 질병의 잠재적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앓게 되지는 않는다. 많은 백신들은 자연감염과 유사한 면역 기억반응을 생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인자들이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는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의 존재 여부, 항원의 성상 및 양, 접종 경로, 면역증강제(adjuvant) 함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 나이, 영양 상태, 유전학적 소인, 다른 질병의 동반 여부 등의 숙주 인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6] 성인 예방접종 일정표



[그림 7]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출처: 질병관리본부)

3. 주요 감염병의 특성

1) 호흡기 감염병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수 두	비말 에어로졸	10~21일 (14~16일)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이 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5~6월/11~1월 4~6세/15세미만	발열, 피로감, 피부발진, 수포
유 행 성 이하선염	비말	7~23일 (14~18일)	침샘이 커지기 1~2일 전부터 모두 가라앉았을 때까지 또는 증상발현 후 9일까지 증상발현 후 9일까지	5~7월 6~17세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 부종
홍 역	비말 에어로졸	7~18일 (평균10~12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봄철 5~10세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풍 진	비말 태반	12~23일 (16~18일)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초봄/늦겨울 젊은 성인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증상
인플루엔자	비말	1~5일 (2일)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중지는 의미 없음	봄/겨울 전 연령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디프테리아	비말	2~6일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14일 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인두 혹은 비강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 이상 음성일 때까지	봄/겨울 전 연령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백 일 해	비말	7~20일 (5~10일)	카타르기에 가장 전염성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봄/가을 4개월 미만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뇌수막염	비말	2~10일 (3~4일)	바이러스 : 5~7일 세균 :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24~48시간까지 뇌수막염 학생은 입원치료	바이러스 : 여름, 4~14세 세균 : 연중	발열, 두통, 구토, 의식저하
수족구병	비말 수포액	3~7일	발병 후 7일, 피부 병변에 액체가 남아 있는 동안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여름 영유아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조 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	3~10일 (7일)	증상 발생 1~2일 전부터 7일 혹은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모두 회복될 때까지	가을철 전 연령	인플루엔자와 동일 역학적 연관성 있음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비말	2~10일 (4~6일)	증상이 있는 동안 모두 회복될 때까지	연중 전 연령	급성호흡기 증상 역학적 연관성 있음
결 핵	비말 에어로졸	수주~수개월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연중 전 연령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비말	2~14일	증상발생 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모두 회복될 때까지	해외유입 (병원감염 주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역학적 연관성 있음

〈참고〉 결핵ZERO 홈페이지(http://tbzero.cdc.go.kr)에서 교육자료(Prezi, PPT) 다운로드 및 활용 가능,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용"과 "일반인용" 콘텐츠 제공

2)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세균성이질	직접/간접적 대변-경구 전파	12~96시간 (평균 1~3일)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 검사에서 음성일 때까지 격리	연중 0~4세/ 60세 이상	발열, 복통, 구토, 뒤무직(tenesmus)을 동반한 설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분변-구강 경로	3~60일 (평균 1~3주)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 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격리	5~6월 (장티푸)/ 5,6,7,8월 (파라티푸스) 영유아, 30대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콜레라	식수 및 식품	6시간~5일 (24시간 이내)	대변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정도) 항생제 치료 종료 후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검사에서 음성일 때까지 격리	6~9월 전 연령	수양성 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저림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장출혈성 대장균	사람 간 전파, 식수 및 식품	2~8일 (평균 4일)	발병 후 1주(최대 3주) 항생제 치료 종료 후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한 대변배양검사에서 음성일 때까지 격리	6~9월 호발 전 연령	복통, 수양성 설사(혈성설사가능), 발열, 구토 → 열 내림
살모넬라 감염증	분변-구강	6~48시간, 12~36시간 (6~72시간)	감염 전기간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 주 수일~1주	6~9월 호발 전 연령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노로바이러스	분변-구강	24~48시간 (18~72시간)	질환의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가능 치료 완료시까지	연중 전 연령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열

3) 안과 감염병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유행성 각 · 결막염	유행성 눈병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12시간~3일	인두로부터 2주일, 분변으로부터 3~4주 간 균 배출, 발병 후 7일 간 격리 주요 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연중 전 연령	충혈, 동총, 눈물, 눈곱, 수명 어린아이에서는 두통, 오한, 인후통, 설사 등이 동반되기도 함.
급성출혈성 결막염	유행성 눈병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4~48시간	발병 후 최소 4일~1주 활동성 병변이 있는 동안	연중 전 연령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꼽, 눈부심 등

4) 매개체 관련 감염병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일본뇌염	Culex속의 모기	7~14일	완치될 때까지	3~15세 이하	고열(39℃~40℃),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
신증후군 출혈열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 등	2~3주	완치될 때까지	10~1월 전 연령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등
말라리아	말라리아 모기	약 7~39일로 다양	완치될 때까지	전 연령	주기적인 열 발작
쯔쯔가무시증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	6~18일	완치될 때까지	10~12월 전 연령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함

질 병	전파 경로	잠복기	전염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역 학 (호발시기,연령)	임상 증상
랩토스피라증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2일~4주 (평균 10일)	완치될 때까지	가을철 전 연령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7일간 지속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감염된 진드기 (작은소피 참진드기)	6~14일	완치될 때까지	여름, 가을 전 연령	고열, 설사, 혈소판 감소, 출혈소견

4. 신종 감염병

신종 감염병이란 최근 20년 간 발생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유행할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1) 신종 감염병의 발생원인

환경적 요인	• 지구 온난화 →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등)의 증가 • 깨끗한 환경 → 병원체에 대한 인간의 면역력이 떨어짐.
사회적 요인	• 인구의 증가 →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아짐. • 도시화 →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함. • 교통의 발달 → 병원체의 이동이 쉬워짐. • 의료기술의 발달 → 항생제 내성으로 강력한 병원체 탄생
인간 행동 요인	• 해외여행의 증가 • 성행동의 변화

2) 신종 감염병의 종류

종 류	증상	감염경로	예방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와 비슷하다. •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 등	•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 • 감염된 조류의 배설,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	•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킨다. • 닭이나 오리를 먹을 때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 충분히 익혀먹기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정신 착란과 간대성 근 경련, 운동실조 등 • 치매 진행 • 신경학적 등상	•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섭취	• 프리온을 차단한다.

종 류	증상	감염경로	예방
사스	•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 • 발열(≥38℃) • 하부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숨참)이 1개 이상 • 방사선 소견상 폐렴 또는 호흡곤란 증후군에 부합되는 폐침윤 소견 등	• 사스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 • 환자의 체액에 오염된 물건	• 감염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한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	•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	•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킨다.
메르스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명확한 감염원 ·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동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	• 중동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 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5.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이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 유행하여 국내에 환자 유입이 우려되어 국내 입국 시 검역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의 종류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6호(2015.5.1)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감염병증후군
2. 폴리오
3.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2) 해외여행 건강정보

(1) 해외여행 전

① 여행자 주의사항

-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한다.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한다.
-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한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의사와 반드시 상의한다.
- 여행 전, 적절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 계획이 있다면, 보험의 보상내용 및 범위 등을 확인한다.

② 예방접종

- 황열
  - 황열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 간 유효하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콜레라
  -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 접종 2회와 추가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 장티푸스
  -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 간, 주사용 백신은 3년 간 유효하다.

• 일본뇌염
  -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한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한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광견병
  -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한다.
• B형간염
  -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 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한다.
• 말라리아 예방약
  -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1~2주 전에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예방약을 복용하여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 후 2달 이내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2) 해외여행 중

① 음식과 물

•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다.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 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척 gel을 사용한다.
•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는 게 좋다.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한다.
•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한다.
•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는다.
•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

② 여행자 주의사항

- 30%-50% DEET를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한다.
-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한다.
-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지 않는 방인 경우 permethrin(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안에서 잔다.

③ 자외선

- 대낮에는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
- 팔과 다리를 덮는 옷을 입는다.
-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와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
-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에는 SPF 15 이상의 선크림을 사용한다.
- 물에서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운전 및 교통사고

-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다.
-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다.
- 렌트카는 타이어, 안전벨트, 스페어바퀴, 전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한다.
- 여행국의 교통관습을 알아둔다.
- 낯선 곳이나 조명이 어두운 길에서는 운전을 피한다.

⑤ 수상레크리에이션

- 구명조끼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숙지한다.
- 얕은 물이라도 어린이는 어른이 주위에서 감독한다.
- 다이빙 전에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흐린 물 속에는 뛰어들지 않는다.
- 스파나 사우나에서는 극단적인 온도를 피한다.
- 물가나 강둑, 늪지대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신는다.

⑥ 기타

- 동물에게 물리거나 동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환(광견병이나 페스트 등)예방을 위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건드리거나 만지지 않는다.
- 만약 물렸거나 할퀴었다면 상처를 비눗물로 세척하고 의사를 찾아 광견병 백신이 있는지 물어본다.
-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을 위해 문신, 피어싱 등에 사용되는 주사기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된다.
- HIV 및 기타 성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성관계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한다.

(3) 해외여행 후

①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②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한다.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③ 기타

-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에게는 위에서 기술한 권고안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 무엇이 필요한지, 각 개인별 질병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림 8] 그림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travelinfo.cdc.go.kr)



[그림 9] 해외유입 감염병별 홍보 리플릿

출처: 질병관리본부)



[그림 9-1] 해외유입 감염병별 홍보 리플릿

출처: 질병관리본부)



[그림 9-2] 해외유입 감염병별 홍보 리플릿 출처: 질병관리본부)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1) 감염병 예방은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손을 씻어야 하는 때 :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 이외 요리 시, 설거지 시, 손을 씻거나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 사용 권고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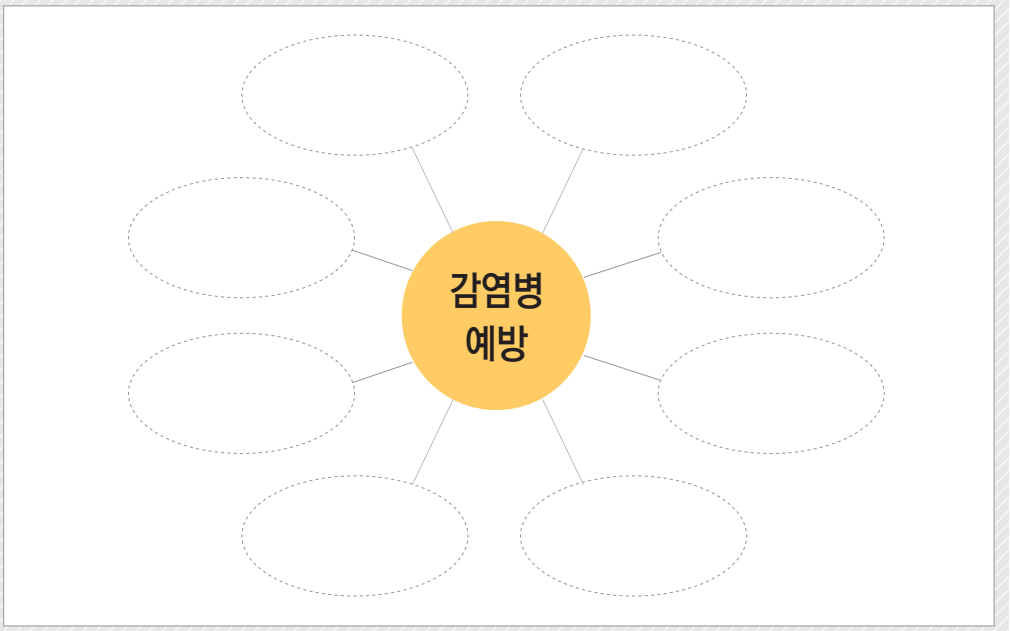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함께해 보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자.



Quiz

문제 1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과일과 채소는 날로 그냥 섭취한다.
② 적당한 운동을 한다.
③ 먹는 물은 끓여서 먹는다.
④ 손씻는 습관을 기른다.

문제 2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지구 온난화 ② 해외 여행의 감소 ③ 교통의 발달
④ 항생제 남용 ⑤ 국제 교류의 활성화



문제 1 정답 : ❶

해설 :

문제 2 정답 : ❷

해설 :

참고문헌

- 충청북도교육청보건교과연구회중등연구분과.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학습자료, 2011.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감염병예방관리매뉴얼, 2011.
- 교육부, 보건복지부.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 2015.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년 청소년결핵 집중관리사업안내(교육청 및 학교용), 2015.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4.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2015.
-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2013.
-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 지침, 2015.
- 질병관리본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홍보리플릿, 2015.
- 질병관리본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바로알기 홍보리플릿, 2015.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즈후군(MERS) 예방 및 신고안내 홍보리플릿, 2015.
- 질병관리본부, 홍콩독감예방안내 홍보리플릿, 2015.

참고사이트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www.schoolhealth.kr
- 결핵ZERO 대국민 홈페이지 http://tbzero.cdc.go.kr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ravelinfo.cdc.go.kr
- 서울삼성병원홈페이지 http://www.samsunghospital.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6-4. 응급처지

Ⅰ. 단원 개관

간단한 상처의 처치부터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심정지 상태까지 급한 의학적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유용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 제대로 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없이는 병원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법과 더불어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상황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의 이해와 적용에 대하여 익히도록 한다.

Ⅱ. 단원 목표

응급상황과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Ⅲ. 단원 전개계획

중단원	소단원	학습활동	학습시간	교육방법	지도중점
응급처치의 개념과 원리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이해	30분	교과서 지도서 영상물 신문	이 단원에서는 응급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익혀 사고로부터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응급상황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하여 응급 시 기본소생술 등을 다루도록 한다.
	응급상황의 파악과 이해	• 응급상황 파악에 대한 이해			
심폐소생술	성인 기본인명 소생술	• 성인 기본인명소생술방법 이해	70분	교재 지도서 영상물 신문	
	기도 폐쇄의 응급처치	• 기도 폐쇄 와 기도 폐쇄 대처법 이해			
외상의 응급처치	외상의 이해	• 외상의 기전과 종류 이해	50분		
	출혈과 쇼크	• 지혈법과 쇼크처치 이해			
	상처 및 사지 고정	• 상처처치 및 사지고정법 이해 및 실행			
구출 및 이송	구출	• 구출법에 대한 이해	50분		
	이송	• 이송법 이해 및 시행			

1. 응급처치의 개념과 원리

지도상의 유의점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의 중요성과 신속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심각한 응급 환자에 대하여는 섣불리 응급처치보다는 빠른 신고가 우선임을 반드시 전달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에 전화를 하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의 도움을 받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센터인 1339에 연락 시에는 응급처치 요령, 병원안내, 질병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119 연결 시 전화접수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말로 전달하여야 하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표 1〉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들의 대표적 예

1. 기도폐쇄	9. 마비 환자
2.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10. 중독 환자
3. 심장마비	11. 물에 빠졌을 때(익수)
4. 심장질환이나 흉통	12. 중등도 이상의 화상
5. 의식이 없는 경우	13. 전기손상
6. 심한 출혈	14. 자살기도
7.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15. 분만
8. 경련 환자	

1) 2012년 7월부터 119와 1339가 통합되어 1339에서 받던 서비스를 119에서 받을 수 있다.

〈표 2〉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①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정확히 알려준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④ 환자의 수

(2) 응급처치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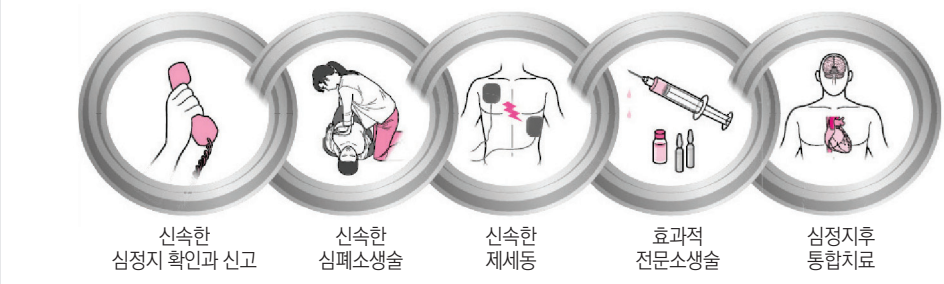
응급처치란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하며 이는 병원에서의 전문 진료에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전문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응급처치의 목적

응급처치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4) 응급처치의 실시

응급상황 중 가장 급한 것은 갑자기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 상태인데, 이 때 소생의 사슬이라고 하는 신속한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전기적 충격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행위), 신속한 전문소생술 및 심정지 이후의 통합치료의 단계가 순서적으로 행하여질 때 환자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그림 1] 소생의 사슬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2011

또한 잘못된 처치나 이송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맥박과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비록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인명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응급처치 시 지켜야 할 원칙

응급처치 시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에게 해로운 일이다.

②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한다.

③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한다. 이 때 누가 긴급한 환자인지 구별하는 중증도 분류가 필요할 수 있다.

④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⑤ 음식물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한다.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⑥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6)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이 법 제5조 제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해당 행위자에게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

2) 응급상황의 파악과 이해

(1) 응급상황의 원인, 종류 및 특징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은 환자의 신체,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응급상황에 다다른 경우의 내부, 외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 원인은 다시 물리적 힘으로 인한 외상, 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 손상 및 신체에 위해한 독극물 중독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응급현장의 파악

응급상황 시 응급현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구조자의 안전 확보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즉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위험요소란 화재, 구조물 붕괴 위험성, 독성 먼지나 가스, 폭발의 위험성, 감전 가능성, 교통사고 위험성, 미끄러운 표면, 깨어진 유리, 뾰족한 물체 등 다양하다. 주위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현장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연락한 전문구조자의 도움을 기다린다. 또한 환자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여러 명이면 도움을 더 요청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환자의 혈액, 구토물 등의 신체분비물과 접촉할 수 있는데 혈액 접촉, 체액 접촉 및 공기전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책은 신체분비물을 격리시키는 것이며, 마스크와 보호 장갑 등의 개인 보호 장구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된다.



[그림 2] 위험한 응급 현장 출처 : 국민안전처

(3) 응급상황 시 환자상태 파악

응급현장의 위험을 파악 후 안전하다면 신속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1차 및 2차 평가로 이루어진다. 1차 평가는 간단히 위험한 상황만 신속히 파악하고, 다음 2차 평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1차 평가 중 의식을 확인하는 데 몇 번의 행동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편안한 환경과 말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부위마다 확인하며, 불편한 곳을 파악하여 도와주며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출혈, 골절 등에 대한 간단한 지혈, 처치 등을 시행하고 119, 건강관리실, 가족 등 도움 받을 곳에 연락하며 의사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회복까지

제지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처치 및 진행과정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① 2010년 5월 9일 오전 11시 50분 : A씨는 작업을 하다가 7~8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② 11시 51분 : 동료가 회사의 간호사에게 연락하고, 간호사는 상황을 보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③ 11시 52분 : 동료가 현장에서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를 고정한 후 인공호흡을 시켰더니 A씨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④ 11시 56분 : 회사의 간호사가 A씨의 목에 경추보호대를 채웠다.

⑤ 오후 12시 01분 : 소방서 구급차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⑥ 12시 09분 : 부목을 하여 들것에 싣고, 환자를 모포로 덮어주고, 움직이지 않게 들것을 구급차에 고정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⑦ 12시 30분 :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하였다. 의료인들은 A씨의 사고 상황, 부상 정도, 상태, 도착시간을 확인하였다.

⑧ 1시 32분 : 응급실에서 응급진료 후 A씨는 수술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⑨ 11월 30일 : A씨는 석고를 떼어내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⑩ 12월 28일 : A씨는 퇴원을 하였다. 그는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없고 병원을 더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건졌고 걸을 수도 있다.

정리하기

응급처치의 개념과 원리

① 동영상 자료 사연(응급처치 내용) 후 응급처치의 개념 및 원리를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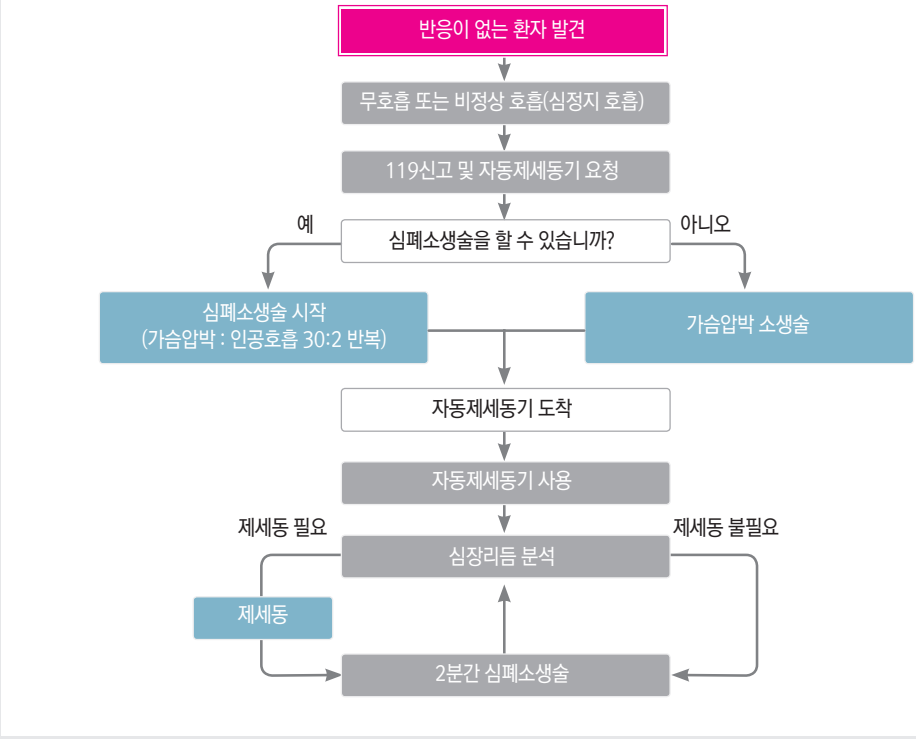
2. 인명소생술

지도상의 유의점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마련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당했을 때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그 중 일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올바른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인명소생술이고 일반 시민, 학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장에서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

1) 성인 기본인명소생술

심폐정지 시 누구나 배워서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대처법을 기본인명소생술이라고 하며, 이 중 핵심적인 기도, 호흡, 순환에 대한 응급처치를 기본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



[그림 3] 일반 시민에 의한 기본소생술 흐름

(1) 반응의 확인 및 신고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환자가 반응은 있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상담원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그림 4]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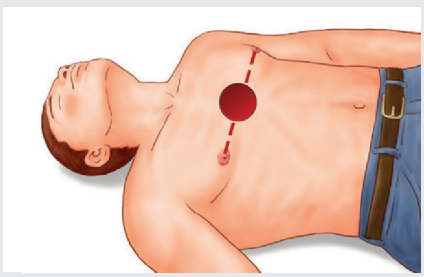
[그림 5] 무반응 시 119 신고

(2) 가슴 압박

가슴압박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려면,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흉골의 절반 부위는 양 젖꼭지에서 가상의 선을 이어 흉골의 수직 정중앙선과 만나는 지점으로 찾으면 된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분당 120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압박 깊이는 적어도 5cm 이상을 유지하지만 6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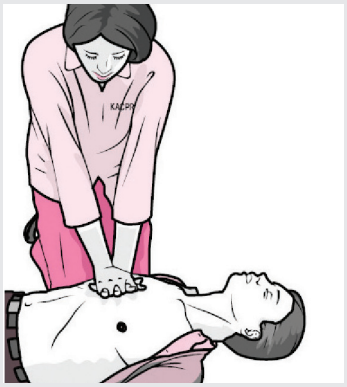
가슴압박할 때 손의 위치는 가슴의 중앙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시간과 빈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가슴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실시)를 권장한다. 매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 가슴 압박 위치의 확인



[그림 7] 올바른 흉부압박



[그림 8] 가슴압박을 하는 방법



[그림 9]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2)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압박만을 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성심정지, 심정지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 압박 위치 : 가슴뼈 하부 1/2
- 손의 위치 : 양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이 환자 가슴에 닿지 않도록
- 자세 : 환자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 위에 위치시키고, 처치자는 다리를 어깨넓이로 하여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가한다.
- 압박술 : 속도 100~120회/분, 깊이 5~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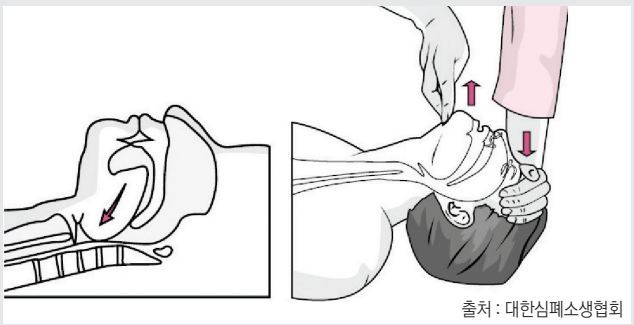
(3) 기도 열기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기도폐쇄의 원인은 혀가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쳐지고 목구멍의 근육도 이완된 상태에서 혀가 숨 쉬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므로, 적절한 자세교정을 하여 막힌 숨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일반적인 기도 열기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 머리 젖히고 턱 들기

구체적인 방법은 이마에 한 손을 대고 이마를 뒤로 젖히며,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 턱의 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유지한다.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그림 10] 머리 젖히고 턱 들기

하악전굴법(턱들어올리기)



목뼈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신전시키지 않는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구조자는 심정지 환자의 머리 쪽에서 두 손을 각각 환자 머리의 양 옆에 두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게 한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린다.

입술이 닫히면 엄지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밀어 열리게 한다.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는 것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기도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 젖히고-턱 들기 방법을 사용한다.

(4) 인공호흡

인공호흡에 대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1회 호흡량은 가슴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다.

③ 2인 구조자 상황에서 인공기도(기관 튜브,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가 삽관된 경우에는 1회 호흡을 6~8초(8~10회/분)마다 시행한다.

④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구강 대 구강법

-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는다.
- 숨을 적당히 들이 쉰 후 환자의 입 주위를 자신의 입으로 덮는다.
-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일정하게 불어넣는다. : 약 1초에 걸쳐 1회 500~600㎖(6~7ml/kg) 불어 넣음.
- 입과 코를 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 호흡 1회당 약 5~6초, 분당 10~12회 실시함.



[그림 11] 구강 대 구강법

〈표 3〉 기본 소생술의 요점 정리

구분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2회) – 호흡 확인(5~10초) – 회복 상태 파악 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의 재실시 여부 판단		
가슴압박 속도	100~120회/분		
가슴압박 깊이	5~6cm	가슴 깊이의 1/3 (5cm) 가슴 깊이의 1/3 (4cm)	
가슴 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 시는 10초 이내)		
기도 유지	머리 젖히고-턱 들기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30:2	30:2 (1인 구조자) 15:2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인공호흡 생략)		

(5)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기계에 의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전기적 제세동이다.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의료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세동기를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순서

자동제세동기의 적용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시킨 뒤에 전원버튼을 누른다. 이후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한다. 이때 환자의 옷은 벗겨야 하며,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자동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또는 화면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자동제세동기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는 심장에 최대의 전류를 전달하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를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midaxillary line)에 부착하는 전외위치법(antero-lateral placement)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패드를 가슴의 앞뒤로 위치시키는 전후 위치법과, 한 패드를 흉골의 좌측에 위치시키고, 다른 패드는 등의 견갑골 밑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다.

2) 기도 폐쇄의 응급처치

기도란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를 가리킨다.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4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4~6분이 경과되면 뇌가 손상되고, 10분이 경과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다음은 기도가 폐쇄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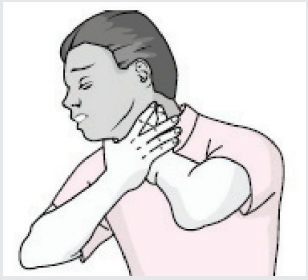
〈표 4〉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

구분	내용
소아 및 노인	이물질(사탕, 고기, 땅콩 등)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
외상/사고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혀가 뒤로 말리는 바람에, 또는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2) 기도 폐쇄 시의 증상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감아쥐는 행동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된다. 또한 기도가 일부분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매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림 13] 기도 폐쇄 징후. 목을 쥐며 기침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3)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그 방법은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상복부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환자의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복부를 두 손으로 후상방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물질 제거를 확인한다. 호흡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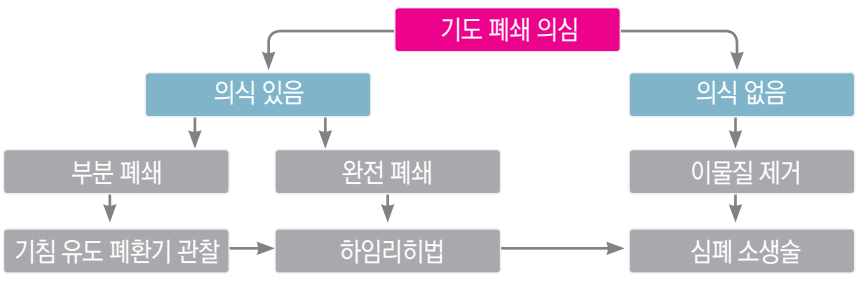
복부밀어내기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임신, 비만 등으로 인해 복부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밀어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성인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일반인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인공호흡을 하기 전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한다.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상복부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후상방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용)



[그림 14] 하임리히법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그림 15]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순서

기도 폐쇄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응급처치 과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B군은 방과 후 귀가 길에 친구들이 길거리 가게에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먹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색깔이 예쁜 젤리 모양의 과자를 사먹고 있어 같이 먹고 싶어 본인도 맘에 드는 빨간 색 젤리를 샀다. 귀가 길에 맛있는 젤리를 계속 빨아 먹으며 즐겁게 집으로 갔고, 집에서도 사온 젤리를 급하게 하나 더 먹었다. 이후 급하게 삼키다 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어 뱉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도 쳐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 드디어 B군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였고, 울기만 할 뿐 다른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119가 도착하여 보니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도착하여 응급진료를 계속하였고 의료진의 전문 심폐소생술 도중 목구멍을 하나 가득 채우고 있는 젤리 덩어리가 발견되어 기구로 제거하였다. B군은 의식이 없었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함께해보기 1

인명소생술

① 성인 기본 인명소생술을 실습해 보기

함께해보기 2

인명소생술

①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 제거 실습해 보기

정리하기 !

인명소생술

① 인명소생술 방법 및 순서를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서 정리해 보기

3. 외상의 응급처치

지도상의 유의점

10~20분가량을 실습에 할애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배분에 유의하며 강의한다.

1) 외상의 이해

(1) 손상 기전

외상은 외부의 힘에 의해 폭발적으로 인체가 입은 손상이라 정의되며, 청년 및 중년층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외상환자의 손상 종류와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손상 기전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손상 기전에 따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7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짐
- 교통사고 시 동승자의 사망
- 시속 32킬로 이상 속도의 차량과 부딪힘
- 교통사고 시 차량에서 환자가 튕겨져 나옴
- 교통사고 시 심각한 차량 손상
- 교통사고 시 부딪힌 후 차량 뒤집힘

(2) 외상의 종류

외상에는 폐쇄성과 개방성 외상이 있고, 폐쇄성 외상인 둔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떨어짐, 운동손상 등이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부딪힘의 형태는 정면, 측면, 회전, 후면, 뒤집힘의 5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은 차량부딪힘, 신체부딪힘, 장기부딪힘, 2차 부딪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초기 대처

외상은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한 부위만 보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외상을 당한 경우의 기도유지법은 목뼈의 보호를 위하여 목을 신전시키지 않고 턱만 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환자가 호흡이 있으면 목뼈의 보호를 위하여 머리를 양손으로 고정시킨 채 전문 구조자의 도움을 기다린다.

2) 출혈과 쇼크

외상환자에서 쇼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출혈이다. 심한 출혈 시 우리 몸은 피부, 근육, 내장기관의 혈관 수축으로 신장, 심장, 그리고 뇌로의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준다. 적절한 산소공급, 환기 및 수액 공급은 쇼크에 의한 세포의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1) 출혈

출혈은 순환 혈액의 갑작스런 소실로 정의할 수 있다. 정상인의 순환 혈액량은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7% 정도(70ml/kg)이고, 소아의 경우는 체중의 8~9% 정도(80ml/kg) 된다. 출혈은 신체 외부로 출혈되어 출혈이 보이는 외부 출혈, 신체 내부로 출혈되어 출혈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로 나눌 수 있다.

(2) 쇼크

쇼크란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적절한 심혈관계의 상태를 말한다. 쇼크 시 순환기 계통의 기능 이상으로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신체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되어 쇼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출혈성 쇼크의 치료로서 우선 환자의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여주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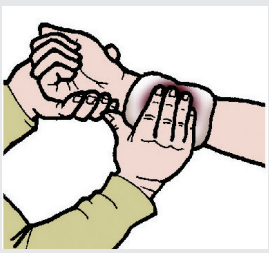
(3) 지혈법

외부 출혈은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지혈대 사용 등으로 해결하고 내부 출혈은 수술 등의 전문 처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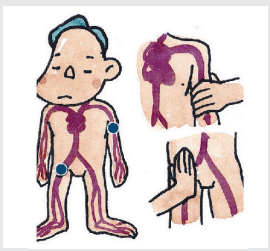
① **직접 압박 :** 출혈부위에 멸균거즈나 깨끗한 천을 대고 직접 압박한다.

② **간접 압박(선택적 동맥 압박) :** 직접 압박으로도 지혈되지 않을 때 출혈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동맥 부위를 압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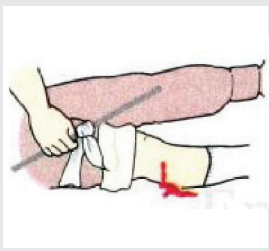
③ **지혈대 :** 지혈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한다. 지혈대는 계속하여 풀지 않고 있으면 그 이하 혈액 순환이 차단되어 위험하므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풀었다 다시 죄어야 하며 푼 시간을 지혈대에 적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림 16] 직접 압박



[그림 17] 간접 압박



[그림 18] 지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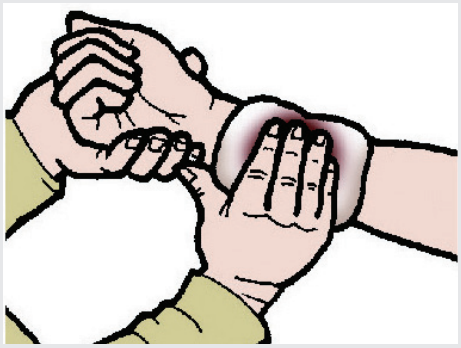
출처 : 국민안전처

3) 상처 및 사지고정

(1) 상처 처치

① 드레싱

드레싱은 상처를 덮어주어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혈과정을 돕는다. 이 때 소독약과 거즈, 소독붕대를 사용한다. 삼각건이나 손수건으로 붕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림 19] 드레싱 출처 : 국민안전처

② 냉찜질

타박상이나 삔 곳은 차갑게 하면 붓기와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다친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거나 물 안에 담글 수 있다. 상처 부위가 머리나 가슴같이 물에 담그기 힘든 부위이거나 장시간 냉각시켜야 하는 경우는 얼음주머니나 냉습포를 이용한다.



[그림 20] 냉찜질 출처 : 국민안전처

③ 붕대감기

붕대를 감는 목적은 드레싱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출혈을 억제하며, 부상 부위를 지지 고정시키고, 붓기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붕대를 감을 때에는 출혈을 멈추고 드레싱을 고정시키도록 단단히 감아야 하나, 혈액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친 부위를 받쳐주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붕대 끝으로 나오게 하여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림 21] 붕대법 출처 : 국민안전처

(2) 근골격 손상과 사지고정

①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진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폐쇄성 골절과 개방성 골절이 있으며 폐쇄성 골절은 손상 뼈의 주위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골절이며, 개방성 골절은 골절로 피부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깨진 뼈가 피부를 뚫은 경우로 심한 외부 출혈뿐 아니라 세균이 살과 깨진 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심각하다.

골절 환자의 처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골절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서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환자를 고정하기전에 이송 먼저 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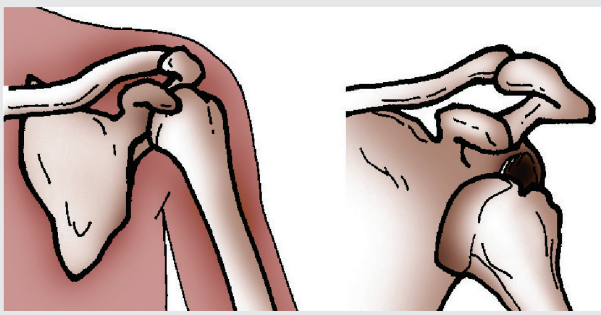
-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부목을 대기 전에 드레싱을 먼저 시행한다.
-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 골절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손으로 지지하여 더 이상의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② 탈구

탈구는 관절에서 원래 있던 뼈가 빠져 나가는 것이다. 탈구는 어깨, 팔꿈치, 손가락, 턱 등이 자주 발생한다. 탈구와 골절을 구별하기 힘들 때의 처치는 골절과 같은 치료를 한다. 처치로서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여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며, 가능하면 붕대나 삼각건으로 고정시켜 준다.



[그림 22] 골절



[그림 23] 탈구 출처 : 국민안전처

③ 염좌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이 갑자기 뒤틀렸을 경우 발생하는 손상으로, 예를 들어 걷거나 뛸 동안 발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뒤틀렸을 경우 발목에서 발생한다. 처치는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주고 손상 받은 부분을 높게 해준다. 찬 얼음으로 붓기와 통증을 감소시켜주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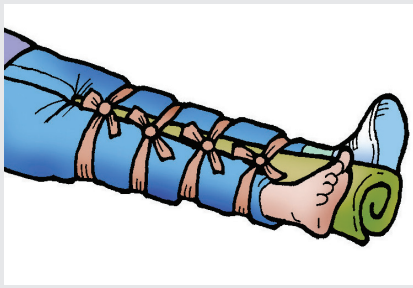
골절과 마찬가지로 부목을 대준다.

④ 부목법

부목의 목적은 통증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부러진 뼈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근육 ·

신경 · 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부목사용 시 원칙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목 대기 전에 다친 곳 아래를 만져보아 감각이 있는지, 맥박을 만져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사지를 움직이게 하여 운동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24] 부목법 출처 : 국민안전처

- 개방된 상처는 부목 대기 전에 깨끗하게 드레싱 해주고 부목은 개방 상처의 반대편에 대어준다.
- 부목을 사용할 때에는 손상 받은 곳의 위 · 아래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외상과 환경 손상

(1) 손가락 절단

수지 절단이란 손가락 등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완전 절단과 아직 신체에 잘라진 부위가 붙어 있는 불완전 절단이 있다. 이 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와 수술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절단된 손가락 등을 보관할 때 차갑지만 얼지 않게, 촉촉하지만 너무 젖거나 건조하지 않게 깨끗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단 부위의 처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환자를 안정시키고 절단부 상태를 살펴본다.

② 절단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올려준다. 불완전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와 연결 부위를 같이 드레싱하고 올려준다.

③ 압박드레싱을 시행한다.

④ 출혈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지혈점을 찾아 압박한다.

⑤ 계속 출혈이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절단 부위 5cm 이내에서 고무줄 등으로 묶어 압박을 시행하며 이 때 압박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한다.

또한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신체 부분을 관리하는 원칙은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습하지 않도록, 또한 최대한 차갑게 유지하지만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은 후에 약간만 젖은 멸균 거즈로 싸서 물이 새지 않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다.

② 이를 다시 다른 비닐 봉투나 플라스틱 통에 넣고 주위에 물과 얼음을 채운다.

이 때 주의할 점으로 얼음이 직접 절단 피검물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드라이아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절단 부위를 직접 물 속에 넣지 않는다.

(2) 화상

열화상은 화재나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처치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타고 있거나 그을린 옷은 먼저 제거한 다음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물수건으로 30분 이상 식혀준다. 만약 환자가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쇼크로 인해 위험하므로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어린아이들은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체온손실로 인한 저 체온증에 빠질 수 있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상의 정도와 인체의 피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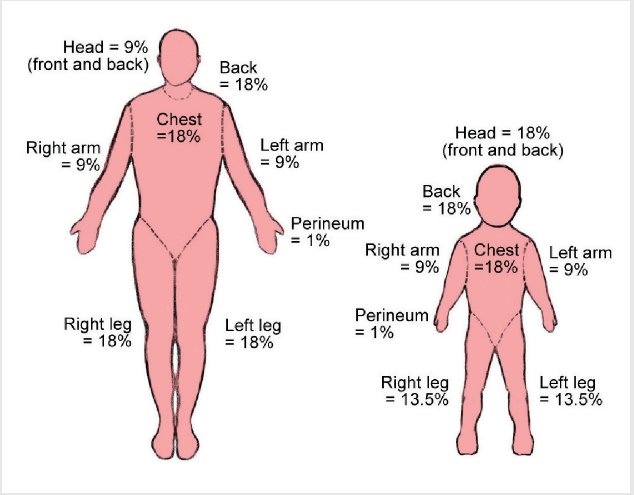
① 화재장소가 막힌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 화재장소에 독극물이 있는가? 환자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가?

② 화상 범위는 어떠한가?

- 화상이 심한 정도는 몸의 표면적 중 화상을 입은 부위의 비율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9의 법칙에 따라 그 비율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③ 화상의 정도는 어떠한가?

- 1도 화상 :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고 붓고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며 병원치료 시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 2도 화상 : 약간 더 깊이 침범한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 3도 화상 : 피부 전 층이 화상을 입은 상해를 말하며 피부가 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그림 25] 화상 범위 : 9의 법칙 출처 : 국민안전처

성인 : 얼굴 9%, 배 18%, 등 18%, 팔 각각 9%, 다리 각각 18%, 성기 1%
(소아 : 얼굴 18%, 배 18%, 등 18%, 팔 각각 9%, 다리 각각 13.5%, 성기 1%)

(3)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이면 그 부위는 붓고 아프다. 벌에는 꿀벌과 말벌이 있어 침을 쏘는 방식이 다른데 꿀벌은 침이 계속 살에 꽂히는 반면 말벌은 그냥 찌르기만 한다. 어떤 벌이든 쏘인 자리가 붓고, 가렵고,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및 심하면 쇼크 증세까지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신 증상까지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처치는 벌에 쏘인 자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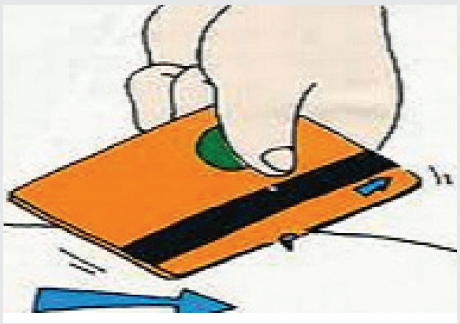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독에 의한 붓기를 가라앉히고, 아픔이 가시는 데 도움이 된다. 꿀벌은 침이 박혔나 살펴 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데 침 제거는 바늘로 살살 긁어 주어 신용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서 시행한다. 여러 곳을 쏘인 후 온 몸이 붓고 가렵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으로서 벌침이 박힌 자리는 핀셋이나 손톱으로 제거하다 보면 벌침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바늘이나 칼로 긁어주는 것이 좋으며 없으면 신용카드 등으로도 긁어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전신 발적 및 부종 등의 증상은 전신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뱀에 물렸을 때

우리 나라에는 뱀에 물린 사고가 많지만 독사의 종류는 세 종류 정도이다. 생물학적 분류 상 논란은 있지만 대략 우리 나라에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불독사 3종의 독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사는 머리가 위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과 구별되므로 독사에 물렸을 때는 확인을 위해 뱀을 잡아 나중에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처치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물로 씻어내며 깨끗한 넓은 천 같은 것으로 물린 부위의 위, 아래쪽에 적당한 압력으로 묶는다. 이 때 너무 꽉 묶어 전혀 피가 통하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정맥피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맥피는 어느 정도 흐를 수 있는 적당한 압력이 좋다. 물린 부위 주위를 움직이지 않게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또한 몸을 고정시키고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뱀에 물렸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뱀에 물린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입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구조자의 몸에도 독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 된장 등 다른 물질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자극하고 더럽히는 결과가 되기 쉽다.
- 칼로 상처를 절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꾸 움직이면 독이 몸으로 더 퍼질 수 있다.



[그림 26] 카드로 벌침 제거하는 방법



[그림 27] 뱀에 물렸을 때 처치법

출처 : 국민안전처

함께해보기 !

외상의 응급처치

① 상처 처치 및 사지고정 처치법 실습

정리하기 !

외상의 응급처치

① 상처 처치와 사지고정 방법 및 순서를 함께 크게 말해 보면서 정리하기

-
-
-
-

4. 구출 및 이송

지도상의 유의점

일반 시민이 위험한 장소에 고립되거나 다치게 되면 스스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누군가가 구출해주고 이송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응급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고 적절치 못한 이송과 구출은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올바른 구출법과 이송법을 익히도록 한다.

1) 구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탈출이라고 하며, 다른이의 도움을 얻어서 벗어나게 되면 구출이라고 한다. 특히 구출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게 되면 구조라고 부른다. 구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출만 하고 구출 후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이는 신속히 구출하지 못한 것만 못하다.
- 쉬운 방법으로 구출한다. 여러 가지 구출의 방법이 있다면 가장 손쉽고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사전계획을 세우고 순서적으로 구출한다.
- 피해자를 빼내기 전에 처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매우 급할 때는 신속한 구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 피해자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이 위험을 당하여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면 이미 있던 피해자와 동료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구출방법은 일단 현장 접근 및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위험요소를 조절, 제거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긴급한 처치를 먼저 시행한다.

피해자가 구조물에 의하여 갇혀있다면 갇힌 곳에서 행동이 자유도록 구조물을 제거하여 주며, 피해자에게 모든 안전처치를 시행한 후 갇힌 곳으로부터 빼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구조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구출에 앞서 반드시 그 상황이 구출을 시행할 만큼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구출을 시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응급처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8] 구출 장면 출처 : 국민안전처

2) 이송

(1) 1인 이송법

1인 이송법은 환자의 자세가 잘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 외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인 이송법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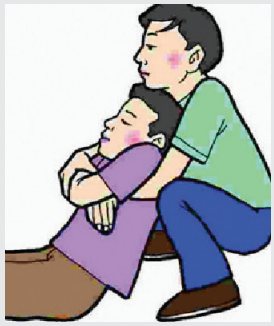
- 부축하여 걷기 : 부상이 심하지 않은 보행 가능한 환자에게 사용
- 안아 들기 :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보행 불가능한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
- 안아 끌기 : 부상이 심하나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
- 업기 : 신속히 탈출할 때 쓰는 방법



[그림 29] 부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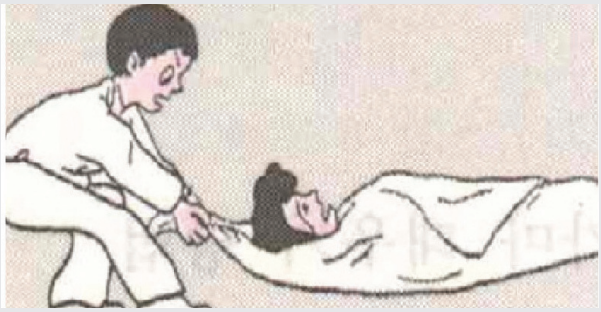
[그림 30] 안기



[그림 31] 끌기



[그림 32] 업기



[그림 33] 담요로 끌기

출처 :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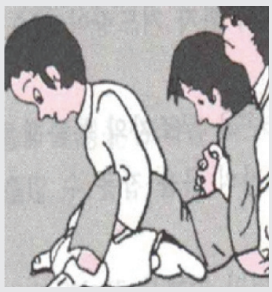
(2) 2인 이송법

2인 이송법의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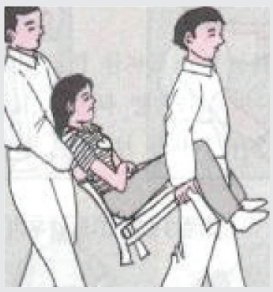
- 가마 태우기 : 팔이나 어깨가 사용 가능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 사용
- 그네 태우기 : 팔이나 어깨가 사용 가능하며 의식이 있는 환자에 사용
- 2인 안아 들기 : 만약 팔이나 어깨 손상 시는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림 34] 가마 태우기/그네 태우기



[그림 35] 2인 안아 들기



[그림 36] 의자이용

출처 :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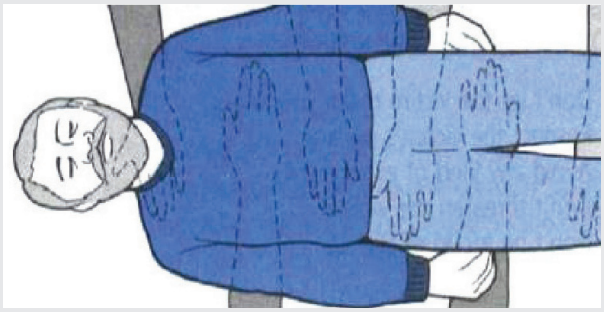
3) 다인 이송법

다인 이송법의 대표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담요로 들기 : 담요가 있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 팔 겹쳐 들기 : 기구가 없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 들것 사용하기 : 가장 이상적이며 들것이 있고 여러 명이 이송 가능할 때 사용



[그림 37] 담요로 들기



[그림 38] 팔 겹쳐 들기

출처 : 국민안전처



[그림 39] 들것 사용하기

출처 : 국민안전처

정리하기 /

구출 및 이송

① 구출 및 이송 시연 동영상을 보며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기

-
-
-

생활 속의 응급처치 실천수칙

1.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생의 사슬의 순서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2.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시 표준 성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이를 위하여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3. 하임리히법을 포함한 기도폐쇄 환자의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혈 환자에 대한 간접압박 및 직접압박을 통한 지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고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부상을 당한 환자의 이송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1인 이송은 주위 환경이 매우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는다.

Quiz

문제 1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시오.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1) (　　)의 (　　)이라는 명칭의 4가지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2) 이는 순서대로 (　　) → (　　) → (　　) →(　　) 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 2 성인의 기본인명소생술의 단계별 행동(① ~ ⑦)을 순서대로 배치하시오.

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② 현장안전　③ 도움요청
④ 인공호흡　⑤ 의식확인　⑥ 가슴압박
⑦ 기도열기

문제 3 산업장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이 필요할 때 잘려나간 손가락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잘린 손가락을 깨끗한 물이 닿도록 물통 속에 넣는다.
② 잘린 손가락을 살짝 젖은 멸균 거즈로 싸야 한다.
③ 통에 얼음을 넣고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 안에 넣는다.
④ 얼음물 안에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는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 1) 소생, 사슬
2) 조기접근, 조기 기본소생술, 조기 제세동, 조기 전문소생술 (순서 맞아야 함)

해설 : 성인에서의 소생의 사슬은 신속한 접근, 신속한 기본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조기 전문소생술의 순서이다.

문제 2 정답 : 2 → 5 → 3 → 6 → 7 → 4 → 1

해설 : 성인의 기본인명소생술의 단계별 행동은 "현장안전 → 의식확인 → 도움요청 →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문제 3 정답 : ❷, ❹

해설 : 잘린 손가락을 살짝 젖은 멸균 거즈로 싸야하는 이유는 너무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습하지도 않게 하기 위함이며, 얼음물 안에 잘린 손가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는 이유는 차갑게 하면서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 심폐소생술 및 심혈관 응급처치에 관한 2010 미국심장학회(AHA) 지침의 주요 내용.
-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2010.
- 생활응급처치. 대한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 1999.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 한미의학. 2010.
- 구급 및 응급처치론. 이희순. 정훈사. 2010.
- 기본응급처치학.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한미의학. 2010.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협회, 2011.
- 응급처치법, 대한적십자, 2011.

참고사이트

- 대한응급의학회. http://www.emergency.or.kr
- 대한심폐소생협회. http://kacpr.org
- 중앙응급의료센터. http://www.nemc.go.kr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http://www.emt.or.kr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 발행일 : 2016년 1월
- 발행처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105호 (수송동, 이마빌딩)
- 전　화 : 02-2100-0513
- 인쇄처 : 한국척수장애인연합회(02-2269-8900)